

시로 읽는 성보순례
반가부좌만 하시게
국보 제118호 금동미륵반가상
삼국시대 ▶2면

현대불교

내 뜻대로 순종하길 바라지 말라
순종해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뜻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숲을 삼아라.
「보왕삼매론」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10월 2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917호 2012년 12월 5일 수요일

반세기 불교학계 이끈 '견인차'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창립 50년

1962년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 연마를 위해 문을 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50주년을 맞았다.

불교문화연구원의 개원은 불교교육과 연구가 전통적 강원교육에서 벗어나 현대화가 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국내 최초 인문분야 대학부설 연구기관인 불교문화연구원은 1983년 2월 연구역량을 강화해 불교문화연구소에서 불교문화연구원으로 승격했다. 2007년 3월에는 대학 교책연구기관으로 승격해 불교학술원 발족의 견인차 역할도 담당했다.

그동안 불교문화연구원을 거쳐간 불교학자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불교문화연구원이 불교계에 끼친 영향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한국불교사학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조명기 박사를 초대원장으로 김동화, 장관규, 홍정식, 김영태 등 불교학계의 거장들이 불교연구원을 거쳐갔다. 또 현재 동국대를 비롯해 여러 불교관련 대학에서 재직하는 교수들이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을 역임했다.

초창기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7년간 9대 원장을 맡았던 이재창 동국대 명예교수는 "재정적인 면이나 연구환경이 열악했다. 연구진도 동국대 교수들로만 구성돼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현재는 연세대, 이화여대과 같은 다른 대학에도 문호를 열고 HK사업을 진행하는 등 학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평했다.

그동안 불교문화연구원의 성과는 눈부시다. 연구업적 보급으로는 1963년 10월 15일 교계 최초 불교학 전문학술지인 〈불교학보〉를 발간했다. 〈불교학보〉 1집에는 김방석, 권상로 등 12명의 당시 대표학자들이 불교연구 업적물을 게재해 화제가 됐다. 〈불교학보〉는 현재 통권 62집까지 발간됐으며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인용색인지수 종교학 분야 1위에 올라있다.

한국불교에 관한 문헌을 정리한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을 1976년 간행했으며 이에 근거해 원효, 의상 등 한국불교 논서와 논문을 정리한

거쳐 간 학계 중진도 다수
한국불교전서 · 사상총서 간행
인접학문 등 협동연구는 과제

〈한국불교전서〉를 펴냈다.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은 "한국불교전서는 그동안 대부분이 중국경전인 대장경에 한국문헌을 포함시킨다는 의미를 지닌다"며 "14권에 이어 향후 15권, 16권 등을 지속적으로 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불교문화연구원은 1973년부터 일본 중국 등 외국 불교연구기관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국제적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불교 체계화를 주제로 연구부분의 인문한국(HK)사업, 집성부분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사업, 교육 불교한문 아카데미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학원을 설치해 다른 사회분야와 불교의 융합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12대 연구원장을 맡았던 서윤길 동국대 명예교수는 "전통에만 안주하던 한국불교를 끄집어 내 변화를 이끈 촉매역할을 계속해야 한다. 인접학문과의 협동연구나 불교생태학 등 인류의 당면문제에 대한 참여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문화연구원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학으로서의 불교학'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관련기사 9면



카이스트 외국인 학생 김장 나눔 체험

카이스트 외국인 학생들이 특별한 김장 체험을 가졌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태화산 마곡사(주지 원혜)가 11월 23일~25일 3일 동안 자비의 김장김치 · 배추나눔 파티를 실시했다. 이 행사에는 카이스트 외국인 학생, 마곡사 신도회, 지역복지단체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담군 자비의 김장 7000포기는 지역 복지관과 소외이웃 다문화 가정 등에 나눠진다.

글=정혜숙 기자 · 사진제공=마곡사

제16대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종의회 만장일치로… 2013년 예산 177억원 확정



천태종 제 16대 총무원장에 도정(道正 · 사진) 스님이 임명됐다.

천태종은 11월 29일 오전 9시 총본산 구인사 삼보당에서 열린 천태종 제92차 정기종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도정 스님 총무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신임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 대조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수행종단의 종풍 진작에 나서겠다"면서 "종의회와 감사원 등 3원이 함께 종단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이끌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현재 대전 광수사 주지로 있는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1968년 입산 △1973년 상월원각 대조사님을 은사로 득도 △2005년 3급(중대사) 법계 품수 △동국대 행정대학원 수료 △총무원 사회부장, 총무부장 역임 △8대~14대(현) 종회의원 역임 △단양경찰서 경승실장, 서울지방 경찰청 경승 역임 △울산 정광사 · 언양 양덕사 · 대구 대성사 · 김해 해성사 · 강릉 삼개사 · 부천 천화사 주지 등 역임 △재단법인 대한불교 천태종 이사(현) △ 13대 감사원장, 13대 종의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천태종 종의회는 내년 일반 예산을 올해보다 소폭 증가한 177억 3,270만원으로 확정됐다.

천태종 종의회는 제92차 정기 종의회 본회의에서 2013년도 종단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세계적 수행자 아잔 브람, 내년 방한

첫 한국 방문… 1월 10~16일 동국대서 명상힐링캠프

불기2557년 계사년 신년을 세계적 명상 수행자의 가르침을 받으며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세계적 명상 수행자인 아잔 브라흐마 스님〈사진, 이하 아잔 브람〉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기 때문이다.

아잔 브라흐마 세계명상힐링캠프 준비위원회(위원장 각산)은 "내년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간 동국대 국제선센터와 대강당에서 '아잔 브람 스님 초청 세계명상힐링캠프'를 개최한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선정 체험과 실제 깨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에서는 고대 불교 명상을 과학적 명상 체계로 복원한 아잔 브람 스님의 수행법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다.

영국 캠브리지대 물리학도 출신인 아잔 브람 스님은 태국의 아잔 차 스님을 만나 불법을 배웠으며, 곧 그의 수제자가 될 정도로 뛰어난 수행력을 보였다.

이후 호주 불교의 산실이자 수행승들의 최대 커뮤니티가 된 보디나야나 수행센터를 건립해 서구인들에게 정통 수행법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 국내에서 출간돼 선풍적인 관심을 모은 명상 에세이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의 저자이기도 하다.



집중 수행 방식으로 진행
'선정 체험과 깨침' 주제
조계사 등서 대중 법회도

첫 방한과 함께 이뤄지는 '세계명상힐링캠프'인 만큼 집중도가 있는 수행으로 이뤄진다.

수행반은 수행 경력 3년 이상의 선정반과 초심자반인 일반반으로 그룹이 편성되며, 그룹, 개인별로 아잔 브람 스님의 점검 인터뷰가 이뤄진다.

선정반은 별도의 개인방에서 좌선을 자율적으로 진행하며, 일반반은 명상실에서 좌선 1시간 30분, 행선 1시간으로 수행을 진행한다. 수행 교재는 아람 브람 스님의 수행 요약본인 〈멈춤의 여행〉이며, 흡연, 음주, 귀금속 착용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 같은 집중 수행 캠프와 함께 대중 강연과 법회도 매일 이뤄진다. 방한 첫 날인 1월 9일에는 서울 강남 구룡사에서 오전 10시에 대중 강연이 진행되며, △1월 10일 동국대 불교대학 강당(오후 7시) △1월 11일 불광사(오전 10시) △1월 12일 봉은사(오전 10시) △1월 13일 불교TV 무상사(오전 10시) △1월 14일 조계사(오전 10시) △1월 15일 도선사(오전 10시)에서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가르침을 전한다.

직접 친견하고 수행법을 배운 방한 준비위원장 각산 스님(조계종 참불선원장)은 "복잡한 현대인들에게 명상은 신심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수행법이지만 현재 한국에 있는 명상의 대다수는 그 뿌리가 없다"며 "아잔 브람 스님이 전하는 수행법은 초기 경전을 근거로 하는 선정과 지혜 수행인 '사마타-위빠사나'라고 하는 정혜쌍수의 지관법으로 이번 캠프에서는 제대로 된 명상수행을 만날 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 지사모집

현대불교신문 지역 주재 지사장을 모십니다

모집 지역 (세부지역은 별도협의)
- 부 산 : 부산지역 일원
- 충 청 : 충청남북도 일원
- 제주도 전지역

지사 사업 내용
- 지역 내 독점 구독확장 및 광고수주 및 수익 사업 전개.
- 기사 제보 및 취재활동 지원.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단체장)
- 제출기한 : 모집 완료시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제 출 처
서울 종로구 수송동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신문사
문 의 : 관리부 · 서춘건 부장
전 화 : 02)2004-8204 팩 스: 02)737-0698
이메일 : cgseo@hyunbul.com

917호 INDEX

동안거 결제법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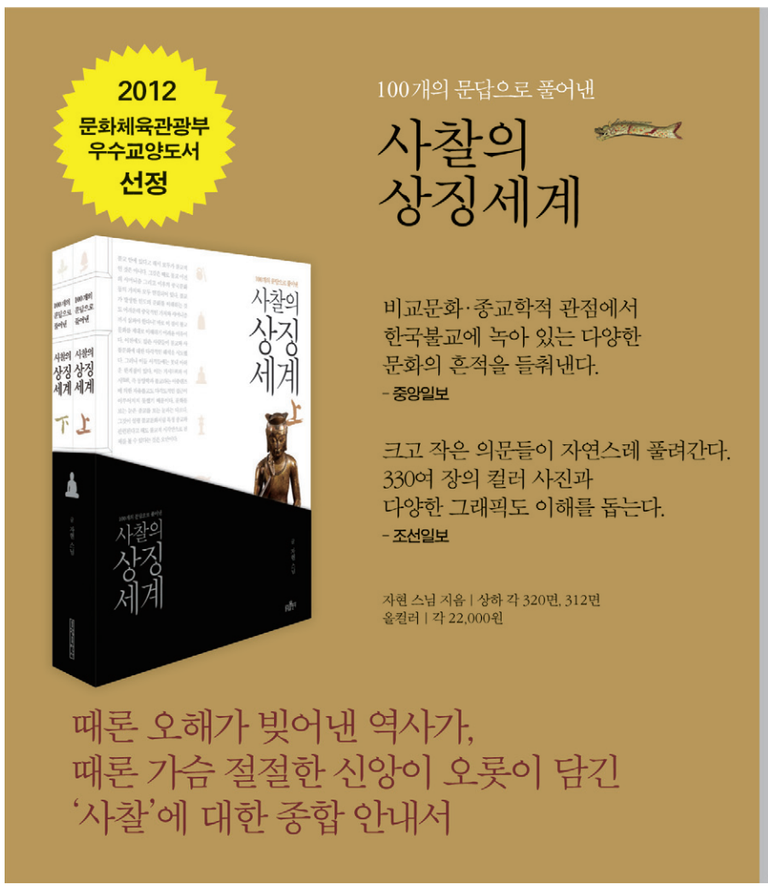
종합 3
조계종 총림실사위원회 첫 회의
10 · 27 법난위 정상화 '급물살'
44주년 군승의 날

시방세계 5
제주명소 메이즈랜드 미로공원



책세상 22
'올해의 불서' 수상도서 선정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118호 금동미륵반가상



반가부좌만 하시게

이 인 원

무슨 화두에
얼마나 골몰했으면
턱을 괴었던 팔이 다 무러졌을까
아니다,
무러진 것은 미륵보살님의 팔이 아니다
3일도 못 가는 우리들의 작심이다

무슨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웠으면
팔꿈치가 무러져나가도 턱은 무사했을까
아니다,
자유로운 것은 미륵보살님의 턱이 아니다
손바닥보다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라는 부처의 가르침이다

중도이 툭툭 끊어지는 생각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미망의 턱을 넘어선 깨달음이 얼마나 빛나는 것인지
천년의 잠에서 깨어나
넌지시 한 말씀 보여주시네

그대 만약
결가부좌가 힘들면 반가부좌도 좋다고 빙긋 웃으시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이인원 시인은… 경북 점촌 출생. 1992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 〈마음에 살을 베이다〉, 〈빨간 것은 사과〉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를 들어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哭不徹笑不徹 〈곡불철소불철〉이라.
倒腹傾腸向君說 〈도복경장향군설〉이니.
父子非親知不知 〈부자비친지부지〉아.
擡頭腦後三斤鐵 〈대두뇌후삼근철〉이라.

금일(今日)은 임진년 동안거 결제일이라. 모든 사부대중은 일상생활 중에 각자 화두(話頭)를 들고 화두의심으로 일념(一念)이 지속되도록 혼신을 다하여 의심에 집중할지어다.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화두를 챙기되 오매불망 간절히 챙기고 의심하고 또 챙기고 의심해서, 다른 모든 잡생각들은 다 끊어지고 오로지 화두의심 한 생각만 흐르는 물처럼 끊어짐 없이 흘러가야 함이로다.

그렇게 화두의심 한 생각에 푸욱 빠져서 모든 보는 것, 듣는 것을 다 잊어버린 바보가 되어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고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게 됨이로다.

〈중략〉 결제에 임하는 모든 대중, 어느 곳이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내린 곳인고? 이 낙처(落處)를 아실 것 같으면 금일이 곧 해제(解制)로다.

금생(今生)에 이 견성법(見性法)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에 또 만나리오.

다겁생(多怯生)으로 윤회고(輪廻苦)에서 헤매이다 비로소 인간 몸을 받아 큰 인연복이 있어 부처님의 견성법을 만났는데, 하루하루 시간만 낭비하고 허송세월 보낸다면 죽음에 다다라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음이로다.

그러면 또 다시 인간 몸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요, 인간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견성법을 만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니, 선지식의 바른 법문을 듣고 대오견성(大悟見性)의 원(願)을 세워 바르게 참선수행을 닦아나가면 반드시 좋은 소식 있을 것이니, 이번 석 달 안에 어떻게든 화두일념(話頭一念)이 도래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하략〉

"깨달음에 확고한 믿음 갖길"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화엄경(華嚴經)〉 '현수품(賢首品)'에

신위도원공덕모 장양일체제선근(信爲道源功德母 長養一切諸善根)
단제의망출애류 개시열반무상도(斷除疑網出愛流 開示涅般無上道)

'지극한 믿음은 도의 근본이며 공덕의 어머니, 일체의 선근을 잘 길러내나니 의심의 그물을 끊어 제거하고 애정의 물줄기에서 벗어나 위없는 열반을 길을 열어 보이네.' 라고 하였습니다.

제방의 수행납자들은 무엇보다 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계행을 잘 지키고 굳건한 신심을 지녀야 마구니의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극한 믿음과 신심으로 용맹 정진하여 애욕의 물줄기를 벗어나 천성(千聖)의 길을 끊어 뇌관(牢關)을 타파하고 태고의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 이치를 깨쳐야 합니다.

집착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심성은 혼탁해지고 오염되어 자신의 참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분별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본래 성품을 관조(觀照)하여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무심(無心)의 묘리(妙理)인 최상승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일체 명안종사(明眼宗師)들이 문자와 언어를 벗어나 찰나의 번쩍이는 선기로써 후학들을 제접할 때 안목(眼目)이 제대로 열린 납자들은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도리를 깨달아 증득하듯, 도를 구하는 자들은 마땅히 어린아이가 엄마 찾듯이, 배고픈 송아지가 어미젖을 찾듯이, 목마른 이 물을 찾듯 오매불망 간절하게 참구하여야 합니다. 제방의 납자들은 이번 한철 마구니에 속지 말고 부디 열린 안목으로 활구를 찾기 바랍니다. 〈하략〉

삼처에 문수가 나타나다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어느 해 결제 때 문수는 세 곳을 돌면서 안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가섭은 구순(九旬)의 금족(禁足)기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잘못을 가리기 위해 대중을 운집시키고자 종망치를 잡으려는 순간 백천만 억 문수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에 가섭 역시 온갖 신통력을 동원하지만 여전히 망치는 꿈쩍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부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가섭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수한 문수 중에 어떤 문수가 허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에 가섭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중략〉

문수가 삼처(三處)에 나툰 것은 그대로가 삼처전심(三處傳心)입니다.

궁궐과 학교와 시장은 탐진치(貪瞋痴) 삼독(三毒)을 가르킵니다. 오백개의 탐욕심과 오백개의 짜증내는 마음과 오백개의 어리석은 마음을 잘 다스린 문수의 안거였던 것입니다.

이번 동안거 결제대중은 탐진치 삼독이 만들어낸 천오백가지 번뇌를 단박에 제거하여 자기 안의 문수지혜를 현현케 한다면 문수의 삼처(三處)가 문 밖의 일인지 문 안의 일인지 명명백백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입림부동단초(入林不動單草)요
입수불양일파(入水不揚一波)로다

용맹심에 사무쳐 수행 정진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



觀是何人心何物인가
本來這個不須尋이라
百花落盡春無盡이요
山自高兮水自流로다
〈중략〉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근본실체를 깨달아 일체 중생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보살정신에 있다는 것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인이 말하기를 "부처님이 그저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기만 했다면 영원히 정각을 성취할 수 없었을 것이요, 높은 금강좌에만 앉아 있는 부처는 참 부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대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깊은 물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중생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큰 배가 있어도 물이 깊지 않으면 띄울 수가 없습니다. 수행자의 마음은 이렇듯 대자비로 깊어져야 합니다. 한 중생도 의지하지 않는 중생이 없게 해야 합니다.

한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입으로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인욕으로 갑옷을 삼고 정진으로 노를 삼아서 어떤 장애가 닥쳐와도 물러섬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용맹심으로 밑바닥까지 사무쳐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략〉

"모든 법 한 순간 통하리라"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向上一路의 眞如佛性은 傳할래야 전할 수 없고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전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은 第一義諦가 아니다.

禪門에서 公案은 선사들이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만들어 낸 門 없는 門이고, 法 없는 法이다. 眞如佛性은 自身이 직접 보고 證得해야 한다. 이것은 精進해서 定力을 向上시키는 도리 밖에 없다. 一念不亂하여 정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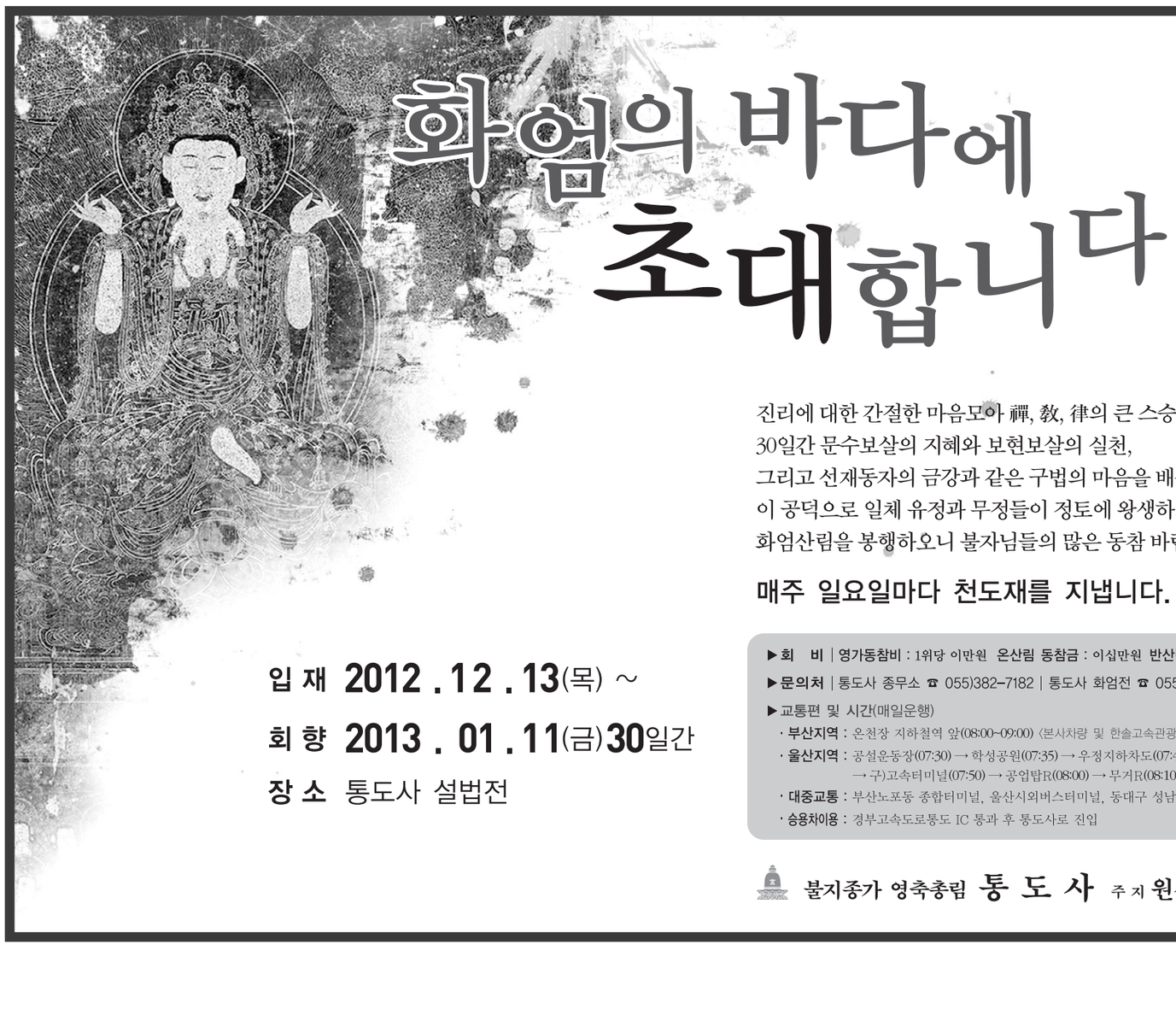
처음 工夫할 때는 조용하고 깨끗한 곳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지만 길게 해야 할 방법은 아니다.

현재 한국 禪房에서 정진하는 태도는 철저히 靜中工夫이지 動中工夫는 아니다. 정중공부에 길들여진 사람은 靜處에서는 좀 된 듯 하지만 動處에서는 지리멸렬 상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修行의 目的은 靜動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塵世 속에서 큰 작용을 하면서도 俗世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다.

一念精進하여 能所가 모두 사라지고, 根塵이 비어지고, 前後생각이 끊어져 分明하고 똑똑해 지면 여기에 生死永斷의 眞消息이 있는 것이다.

動靜一如하도록 정진할 일이다. 〈하략〉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모아 禪, 敎, 律의 큰 스승들을 모시고
30일간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
그리고 선재동자의 금강과 같은 구법의 마음을 배우고,
이 공덕으로 일체 유정과 무정들이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화엄산림을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천도재를 지냅니다.

입 재 2012 . 12 . 13(목) ~
회 향 2013 . 01 . 11(금) 30일간
장 소 통도사 설법전

▶회 비 | 영가동참비 : 1위당 이만원 온산림 동참금 : 이십만원 반산림 동참금 : 십만원
▶문의처 | 통도사 종무소 ☎ 055)382-7182 | 통도사 화엄전 ☎ 055)381-1288
▶교통편 및 시간(매일운행)
· 부산지역 : 온천장 지하철역 앞(08:00~09:00) 〈본사차량 및 한솔고속관광〉
· 울산지역 : 공설운동장(07:30) → 학성공원(07:35) → 우정지하차도(07:40) → 구)고속터미널(07:50) → 공업탑R(08:00) → 무거R(08:10) → 통도사
· 대중교통 : 부산노포동 종합터미널,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동대구 성남고속터미널
· 승용차이용 : 경부고속도로통도 IC 통과 후 통도사로 진입

불지종가 영축총림 통 도 사 주지 원산 도명 합장

2012년 법사 일정표
매일 오후 1시 화엄신중 예참 108배 · 보현행원품 독송

양력	음력	요일	법사	법문하실품
12/13	11/1	목	방장스님 도암스님	입재법문 화엄경 현담
12/14	11/2	금	해월스님	세주묘엄품
12/15	11/3	토	혜거스님	여래현상품 보현삼매품
12/16	11/4	일	종범스님	세계성취품
12/17	11/5	월	설정스님	화장세계품
12/18	11/6	화	덕진스님	비로자나품
12/19	11/7	수	혜남스님	여래명호품 사성제품
12/20	11/8	목	법산스님	광명각품 보살문명품
12/21	11/9	금	원철스님	정행품 현수품
12/22	11/10	토	지안스님	승수미정상품 수미정상게찬품
12/23	11/11	일	무여스님	오전 월하스님다례 오후 십주품
12/24	11/12	월	오심스님	범행품
12/25	11/13	화	도일스님	발심공덕품 명법품
12/26	11/14	수	법인스님	불승야마천궁품 야마천궁게찬품
12/27	11/15	목	수불스님	십행품 십장품
12/28	11/16	금	중선스님	불승도솔천궁품 도솔천궁게찬품
12/29	11/17	토	각성스님	십회향품 1-5
12/30	11/18	일	무비스님	십회향품 6-10
12/31	11/19	월	덕문스님	십지품
1/1	11/20	화	수진스님	십정품
1/2	11/21	수	성림스님	십통품 십인품
1/3	11/22	목	반산스님	아승지품 여래수량품
1/4	11/23	금	용학스님	제보살주처품 불부사의법품
1/5	11/24	토	현진스님	여래십신상해품 여래수호광명공덕품
1/6	11/25	일	월파스님	오전 벽안스님다례 오후 보현행품
1/7	11/26	월	우진스님	여래출현품
1/8	11/27	화	정묵스님	이세간품
1/9	11/28	수	심산스님	입법계품 휴사우바니까지
1/10	11/29	목	지현스님	입법계품 (비목구사~바산사연주야신)
1/11	11/30	금	주지스님	입법계품 회향법문

“총림다운 총림 만들자” 움직임 본격화

조계종 총림실사위원회 첫 회의… 8대 총림 실사

조계종이 내년 1월 해인사, 통도사, 백양사, 수덕사, 백양사 등 기존 5대 총림과 범어사, 쌍계사, 범어사 등 3대 신규 총림을 대상으로 한 실사에 들어간다.

총림실사위원회(위원장 원학, 이하 실사위원회)는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기존 5대 총림과 신규 3대 총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실사위원회는 총림 구성요건과 임회 운영, 주지후보 추천 과정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총림상과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안을 위원회 운영 기조로 삼기로 했다.

실사위원회 구성은 지난 11월 1일부터 7일 열린 조계종중앙종회 제192회 정기회에서 기존과 신규 총림이 모두 종헌에 따른 총림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종회의원 원학 스님을 위원장으로 법진, 장적, 성직, 혜림, 범해, 장명, 주경, 종민, 상화 스님과 총무부장 지현, 기획실장 능도, 교육부장 법인 스님 등이 위원으로 참석·구성됐다.

총림 실사위는 첫 회의에서 12월 말까지 8대 총림에 현황과 운영 방향, 문제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1월 15~19일 현장 조사를 진행키로 결의했다. 현장 조사는 2개 반으로 나눠 진행되며 1반은 동화사, 통도사, 범어사, 쌍계사를, 2반은 수덕사, 해인사, 백양사, 송광사를 조사할 계획이다.

올해 안 개선방안 제안 받고
내년 1월 15일 총체적 조사
“현실 맞는 기준 마련해야”
종헌특위, 총림법 개정 준비

또한 2월 중 연찬회를 개최해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3월 열릴 예정인 정기 중앙종회에 총림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위원장 원학 스님은 “기존, 신규 등 8대 총림 모두 종헌에 명시된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며 “총림에 관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여론을 수렴해 현실적인 대안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직 스님은 “줄가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염불원, 율원 등은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며 “시대에 맞고 현실적인 총림 지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실사 역시를 이런 어려움을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 스님도 “총림 실사는 총림의 전반을 점검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 총림이 종단과 불교발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며 “종합수행도량이라는 총림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현대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림실사위원회는 11월 2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5~19일 기존, 신규 8대 총림을 실사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법안)도 11월 2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총림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돼 온 임회 구성과 방장 권한 축소에 대한 의견들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림실사위는 활동계획과 일정, 범위 등을 결정하고 1차 회의를 마무리했으며, 2차 회의는 실사 하루 전인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0.27법난위 정상화 ‘급물살’

현역군인 12월 중 철수… 정각회 법안 개정 추진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파견된 현역 군인들이 12월 안으로 원대복귀한다. 이로써 내홍으로 갈등을 빚었던 10.27법난피해심의위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조계종은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현연군인 철수, 지원단장 업무복귀 등에 관한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11월 22일 국방부 김광우 기획조정실장이 10.27심의위 위원장 지현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을 예방하고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지현 스님은 “지난 주 국방부 관계자가 방문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철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국방부 소속 직원들은 각자 자신의 소속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법 효력시한 폐지, 종단 전체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내용을 담은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10.27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발의가 추진된다.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 회장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측은 13명의 정각회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의원발의를 추진 중에 있다. 개정안은 법 효력시한을 삭제하고 사건의 책임을 국가로 명시하며, 보상조항 등을 새롭게 넣었다. 특히, 내년 6월30일로 정한 부칙조항을 삭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의 여건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0·27법난의 기해 주체를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에서 국가로 확대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사건임을 명확히 함(안 제2조 제1호) △10·27법난 사건의 피해자의 범위에 강제로 연행·수사·구금을 당한 자와 강압에 의하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부여한 직위에서 해직된 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 피해자에 대하여는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은 사망 당시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종교단체에 귀속하고, 그 밖에 보상 지급 절차에 과하여 규정함(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 등이다.

정혜숙 기자

새롭게 도약하는 군불교 기대

44주년 군승의 날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는 11월 30일 AW 컨벤션센터에서 ‘제44주년 군승의 날’ 행사를 봉행했다.

교구장 자광 스님은 봉행사에서 “신축 불사를 마친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를 청년포교의 거점으로 삼고, 포교의 책무를 소홀히 여지지 안고 위법망구의 자세로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포교원장 지원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군종교구가 중심이 돼 이룬 호국연무사 대작불사의 원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군포교에 더욱 매진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무원장상은 육군사관학교 혜산 박동진 법사가 포교원장상은 제2작전사령부 경제 강의중 법사가 포교원장상을 수상했으며, 13명의 군승에게 군종교구장상이 수여됐다. 또한 108산사순례단을 이끌고 있는 도선사 주지 선묵혜자 스님과 파주 보문원 주지 지행 스님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신중일 기자

관련 칼럼 31면

산스크리트 교재 법보시

교종본찰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정수)가 ‘산스크리트 문법’을 펴내고 무료 법보시에 나선다.

봉선사가 지난 7월 설립한 ‘산스크리트 편집실’은 최근 ‘제1차 산스크리트 교재’인 〈산스크리트 문법〉, 〈우빠니샤드〉, 〈빤짜딴뜨라〉를 펴냈다.

〈산스크리트 문법〉은 산스크리트 문법의 초급과 중급 과정을 익힐 수 있는 문법서로 480 페이지로 구성돼 있다. 〈우빠니샤드〉는 인도철학의 근원인 우빠니샤드 가운데 초기 18책을 모아 어학적으로 문법을 분석하고 번역했으며, 세계 최초 우화집인 〈빤짜딴뜨라〉는 이솝우화의 원류로 지목되는 소중한 책이다.

〈산스크리트 문법〉은 편집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12월 중 세 책 모두 PDF 형태로 공개된다.

한편, 봉선사 산스크리트 편집실은 2013년에는 ‘제2차 산스크리트 교재 및 제1차 빠알리 교재’를, 2014년에는 ‘제3차 산스크리트 교재’를 발간할 계획이다. (031)527-1956

신중일 기자

지도자급 스님, 특정후보 지지 논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 앞둔 가운데 불교계 지도자급 스님들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잇달아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태고종 전국보국회와 전국신도회는 11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박근혜 후보는 전륜성왕의 지혜와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갖춘 국가지도자”라며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면 불교관련 규제법령의 완화와 한국불교 전통문화유산의 세계화에 대한 발전적 정책대안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은 종단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총무부원장 청봉, 신촌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와 신도회 임원들이 이름을 올려 사실상 공식 지지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후보에 대한 지지는 군소종단들로도 이어졌다. 한국불교 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이사장 지산 스님 등 군소 종단 지도자 27명은 11월 29일 ‘범불교 지도자’ 명의로 지지를 선언했다. 대한불교종단진흥회(회장 혜인)도 1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족 통일을 이끌어 인물은 박 후보가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사)대한불교

태고종·군소종단 박근혜 지지
종단총연합회 문재인에 가세
헌법 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
신도들 의견 양분화 우려돼

종단총연합회 스님 150여 명이 11월 22일 민주통합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포교원 전법단장 계성스님은 지난 10월 공개적으로 박근혜 선거 캠프 지도 법사를 맡아 문제가 됐으며, 당시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캠프에 스님들이 참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선거 캠프에 참석한 모든 스님들은 공직에서 사퇴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불교 지도자를 자청하는 스님들의 잇달은 특정후보 지지를 지켜보는 불자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매번 종교 편향이 발생하면 정교분리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선거가 되면 헌법에 명시한 원칙을 불교 스스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서강대 교수)는 “종교인이 사석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옹호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공개적으로 그것도 시기적으로 민감할 때 특정인을 지지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며 “정교분리 원칙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수행자라면 양극단의 지지 선언이 아니라 후보들이 국민과 한국사회를 위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는 자칫 신도 간 분열도 불러올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도로명주소 반발한 천장사, 지명 찾다

서산시, ‘천장사길’로 변경

지난해부터 불교 및 문화시민사회단체들에 반발을 산 정부의 도로명주소에 대한 대안을 서산 천장사가 마련했다.

서산 천장사(주지 허정)는 11월 24일 “새로 바뀐 도로명주소가 어렵고, 지역 특색에도 맞지 않아 꾸준히 이의를 제기한 결과 ‘서산시 고북면 천장사길 100’으로 지적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경허 스님의 오도보림 도량이자 만공스님의 출가처인 천장사의 원래 주소는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 1번지’였으나 지난해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서산시 고북면 고요동 1길 93-98’로 변경됐다. 고유 지방색이 없어지고, 주소 또한 번거롭게 변하게 됐다.

이에 새로 부임한 주지 허정 스님은 주소 변경을 서산시에 청원했으며, 담당자와의 통화, 서산시청 방문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대해 허정 스님은 “천년 역사의 천장사에 사찰명이 들어가는 주소를 가지게 됐다. 아직도 새로운 주소명에 사찰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외우기 힘든 도로명주소를 가진 사찰이 많을 것”이라며 “천장사의 사례를 참조하면 모든 사찰들이 사찰명이 들어가는 주소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해넘이.해맞이 소원등 밝히기

“관봉 석조여래좌상(갓바위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드리면 누구나 한가지 소원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선본사에서는 12가지 큰 자비를 항상 행하시어 만 중생을 두루 구제하여
해탈케 하시는 갓바위 약사여래부처님전에서 해넘이.해맞이 소원등을 밝힙니다.
[약사경]에 이르기를 12가지대원 중 세번째가 “중생이 원하는 것을 얻게하는것”이라 하였습니다.
불자님들께서는 해넘이.해맞이 소원등 밝히기에 무루 동참하시어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십이상원약사여래불
●동참금 : 5만원

※ 소원성취등은 접수하신 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밝힙니다. 2013년 2월24일 (음력 1월 15일)

종각 및 범종불사

1인 1구좌 30만원
설판시주 100만원

※ 설판시주자는 범종에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동 지 기 도

입 재 : 불기2556(2012)년 12월 1일(토) 10:00시
회 향 : 불기2556(2012)년 12월 21일(금) 10:00시
동참금 : 3만원

※ 팥죽(팥, 찹쌀)공양 받습니다. ※ 달력 불사 받습니다.
※ 동짓날 2013년도 달력을 드립니다.

계좌번호 : 대구은행 179-04-060280-001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문의 : 053)851-1869, 853-9877, 851-1869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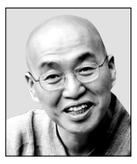
국민훈장 동백장 받아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조선왕실의궤 환수 공로로 12월 3일 외교통상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나를 찾는 용맹정진' 진행

조계종 신정동 국제선센터 주지 법정 스님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내 금차선원에서 '나를 찾는 용맹정진'을 진행했다.



법륜 스님 300강 회향

법륜 스님의 희망세상 만들기 300강이 11월 29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전당 강연을 끝으로 회향했다.



상담개발원 송년 감사의 날

불교상담개발원장 담교 스님은 11월 30일 서울 사진치료연구소에서 2012 송년 감사의 날을 개최했다.



불교문예 작품상 수상

제7회 불교문예작품상 수상 작품으로 시인 홍영철 씨의 〈파가니니를 위하여〉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7일 인사동 대성 한정식에서 진행된다.

"일반 어린이도 즐길 프로그램 개발"

대불어 회장 선출된 성행 스님

"어린이 포교에 대해 연구하는 많은 스님·지도자들과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련 산하 단체인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이하 대불어) 회장으로 성행 스님(청계사 주지·사진)이 취임했다.

성행 스님은 "20여 년간 어린이포교활동을 했는데 전임 회장인 심산 스님을 비롯해 어린이 포교에 헌신해 오신 스님들의 뜻을 이어 더욱 발전하는 대불어 회장이 되겠다"며 "특히 이번에 출범한 예그리나를 통해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위원장 송묵, 포교부장)와 동련(이사장 심산, 부산 홍법사 주지)은 11월 24~25일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제54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연꽃처럼 곱고 향기로운 어린이법회'라는 주제로 열린 연수회는 동련 산하 단체인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대한불교교사대학 △동련동화구연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좋은벗 풍경소리가 주관해 어린이 포교에 대한 지도자 자질함양과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새로 출범한 예그리나 통해 세계문화유산 체험 등 전개

이날 대불어 회장 심산 스님의 후임으로 취임한 성행 스님은 새로 출범한 사단법인 예그리나(이사장 심산) 상임이사직도 함께 맡아 어린이포교에 나선다.

성행 스님은 "동련이 종교단체다 보니 포교활동에서 많은 제약이 있었고 영역확대가 어려웠다"며 "이번에 예그리나를 아동청소년단체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았다. 대불어에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청소년 문화 사업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행 스님에 따르면 예그리나에서 실시하게 될 주요사업은 △청소년들을 위한 명상과 문화적 치유를 체험하는 '나를 찾는 학교'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동련이 자체 개발한 '배낭 메고 세계 문화유산을 찾아서' 등으로 일반 청소년들도 동참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또한 예그리나를 통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등 국가 청소년 정책을 반영하는 청소년 관련 인증 프로그램 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원봉사, 국제문화 교류, 환경 보전, 영·유아 시설 운영, 다문화 가족을 위한 센터 운영 등도 추진한다.

성행 스님은 "일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포교 사업이 타종교에 비하면 시작이 늦은 편이지만 앞으로 예그리나 각 지부를 설치해 지역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자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대불어는 매년 여름·겨울 지도자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가자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일"이라며 "하지만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관심을 갖는 지도자들 늘고 있다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종단과 신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죽음은 머물다 옮겨가는 것"

정목 스님, 웰다잉실천교육 심화과정 회향법문



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 음악' 진행자인 정목 스님은 "죽음을 상실과 아픔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세상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가 어느 순간 저쪽으로 간다"고 강조했다.

"죽음은 무엇이 끝났다거나, 막이 내렸다거나 이렇게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변화하는 한 형태일 뿐입니다."

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 음악' 진행자인 정목 스님은 아름다운 죽음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웰다잉운동본부는 9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한 웰다잉실천교육 심화과정 '아름다운 마침표, 그 마지막 성장과 하나됨: 행(行)할 수 있는 죽음준비교육'의 마지막 날 정목 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목 스님은 "죽음을 상실과 아픔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세상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가 어느 순간 저쪽으로 간다"며 "우주가 알아서 결합됐다가 해체되는 과정일뿐이다. 유기체인 인간 몸뚱이도 740조 개 세포가 있는데 강한 것도 있고 약한 세포도 있고 이 순간 죽어가도 새로 태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정목 스님은 인연법을 분명히 인식해야 웰다잉 운동을 잘 할 수 있다고 강조 했다.

스님은 "우리가 말하고 그 소리를 듣기까지 과정을 세세히 따져보면 조건과 원인이 모두 맞아 떨어져야 하나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하나라도 빠지면 결과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서양에서 말하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 식의 단순 논리로 인연법을 이해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죽은 뒤 옮겨갈 영혼이 있다는 힌두교식 발상을 지양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목 스님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거나 옮겨다니는 영혼 자체가 없다. 불교에서는 인연과 조건이 모두 맞아 떨어져 태어난다고 한다"며 "죽음은 양초에서 다른 양초로 불을 옮겨 붙이듯, 우유에서 버터와 치즈가 나오듯 각 개체가 다 다르면서도 또 같은 그런 현상과 같다. 즉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가 어느 순간 저쪽으로 간다"고 주장했다.

정목 스님은 명상에 대해 강조하며 "명상을 통해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과거와 미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기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잠들기 직전 생각이 내일 아침 첫 생각이 된다. 숨을 거둘 때의 생각이 다음 생의 생각으로 연결된다. 한 생각을 잘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천태종 원로원장 덕산 스님 입적

11월 30일 새벽 지병으로, 장례는 5일장



천태종 원로원장 덕산(德山) 스님이 11월 30일 오전 3시 46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입적했다. 법랍 41세, 세수 74세.

덕산 스님은 1939년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에서 태어났다.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스님은 동국대학교에 입학해 불교학을 공부했다. 졸업 후인 1960년 강원도 건봉사에서 원규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1972년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대조사에게 건당해 천태종단의 발전에 일조했다.

천태종 입문 후 총무원 교무부장과 사회부장을 거쳐 제1대 교화원장, 제1대 포교원장, 8~12대 천태종 종의회의장을 두루 역임했다. 2004년부터 천태종 원로원장을 맡아왔으며, 2005년 대종사(1급) 법계를 품수했다.

김주일 기자

"개인 역량 강화가 포교사의 힘"

권영구 국제포교사회 신임 회장

"국제포교사들이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50%가 채 안됩니다. 포교사 역량 확대와 관련단체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내실 다지기에 나서겠습니다."

국제포교사회 제8대 회장에 권영구 한림대 생사학연구소 웰다잉연구회 회장이 선출됐다. 11월 18일 정기 총회를 통해 선출된 권영구 신임회장은 400여 국제포교사들의 역량발휘에 나선다.

권 회장은 국제포교네트워크 강화, 협력체제 구축, 법인 설립 및 재원 마련 등에 앞서 국제포교사의 자질향상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권영구 신임회장은 "국제포교사회의 최우선 과제는 국제포교사들이 여법히 활동할 수 있는 일거리를 발굴하고 확보하는 일"이라며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국제포교사의 업무를 서비스업이라며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질과 역량 확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의지는 서비스업인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권 회장의 철학이 드러난 것. 권 회장은 1969년 산업은행에 입사해 2001년 퇴사할 때 까지 30여 년을 은행가로 살아왔다. 산업은행 불자회장, 북경한인불자회장 등을 맡으며 불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개인 역량 강화다.



권 회장은 "현장에서 품수를 받은 회원들은 실제상황 체험을 통한 자질향상과 역량발휘에는 개인적 여건에 따라 큰 편차를 지닌다"며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인 기회제공을 하는데 임기 목적을 두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어 "오늘날 리더쉽은 소통화합의를 통해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국제포교사 발전을 위해 국제포교사들의 힘을 모으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교구본사주지協 회장 성문 스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의 협의체인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신임 회장에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1월 23일 회의를 열고 금산사 원행 스님 후임에 성문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성문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1년 씩 맞는 순환 의장이지만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고견을 취합·정리하는 소임인 만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종단은 어느 때보다 쇄신을 요구 받고 있는 시점이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의견이 종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천천히, 느리게' 환경 살리는 지름길

아름다운 동행, 환경 토크… 강연·토론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 여유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휴대폰이 생기면 일아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지만, 업무는 더 많아졌고, 패스트 푸드는 먹거리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느리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환경 위기의 시대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대화마당이 열렸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은 11월 28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환경 토크- 자연과 아름다운 동행'을 개최했다.

이날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한국은 이제 '슬로우 라이프'를 선택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과정 없이 결과만이 있는 사회는 무자비한 효율의 세계이며 인간조차 결과를 위한 수단이 된다"며 "이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의 구성과 창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 문제는 이제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들은 이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계의 NGO들이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길 전 에코붓다 공동대표는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불교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유 위원은 "살림의 가치는 '모든 것은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망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며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작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루에 한 번씩 절이나 명상, 참선 등의 수행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사로잡힌 마음을 돌아봄으로써 자신이 수행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능한 적게 구입하고 소비하기, 천천히 먹고 천천히 걷기, 물과 세제 사용을 최소화하는 생활습관 갖기 등도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아름다운 동행은 11월 28일 '환경 토크'를 열고 기후온난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신중일 기자

나치 약탈 티베트 불상은 모조품?

아킴 바이어 교수 특강…12일 연세대 도서관서



아킴 바이어〈사진〉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12월 12일 오후 6시 연세대 도서관 7층에서 열리는 '2012 독일인의 밤'에서 '아시아의 신화,' 우주에서 온 부처의 신화'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지난 9월 나치 독일 친위 탐사대가 강탈한 티베트 사천왕상이 1000년 전 운석으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보도된 후 아킴 바이어 교수는 온라인 보고서를 통해 이를 반박했다.

이나은 기자

제1회 생명나눔상 이나은 기자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와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이강식)가 생명나눔운동 홍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제1회 생명나눔상을 개설 본지 이나은 기자〈사진〉를 첫 수상자로 선정했다.

생명나눔 측은 "이 상은 매년 생명나눔운동 확산에 기여한 불기협 회원 중 1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에 제1회 생명나눔상 수상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장기기증 보도로 불교계 생명나눔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현대불교신문 이나은 기자를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혜숙 기자

목정배 교수의 병상일기



"자리이타·십선계 수행자로 살아가세"

10월 21일 | 백원정사에 안거한지도 벌써 삼재가 되었네. 방 번호가 1316이라. 삼보일례 육바라밀행.

고집멸도 부처님의 갈파 바로 깨쳐 이고득락하여야한다. 즉 고집은 이고하고 멸도는 득락해야한다. 중생은 제 고집 우기지 말고 무자성법을 삶의 길을 삼아 기신·돈각·삼매발현해 자리이타 반야바라밀수행자로 십선계수행자로 살아가세. 어제는 억지 신심 끄집어내어 회암사지 순례함.

10월 22일 | 비몽사몽간에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 방송시간인데. 직방송하네. 건강도 챙기고 약도 챙기고 비몽사몽간에 양자 챙기니. 우당탕탕 방구방송 나간다.

10월 23일 | 깨쳐 알아있음이 알아맞힘으로 연결고리가 되어야 함인데 반하여 즉 무명과 연결됨으로 몸의 통증이 심하다. 병이란, 무명의 연속 지속을 단속시킴이다.

먼저 번에 다녀간 분이 많다고 하였지만, 일방적이지 내 쪽에선 부동적이었네. 이젠 내 방향이 있어야 자비의 쌍교통으로 향내음 나리라. 미천의 결심.

10월 24일 | 아직 새벽이다. 아픔은 있다해도 참을 수, 견딜 수, 기다릴 수도 있다. 부처님법 닦고 동산스님의 감·인·대가 심전일조하고 있는 듯 그래도 삶을 뿌리내리게 한다. 의지란 가까운 곳에서 사리즉견하여야 한다. 먼 길에서 방황 말고.

10월 28일 | 부처님 기신하옵고 발보리하옵나니, 섭수하여 주소서. 일어났습니다. 아침은 홀로 일어났으니, 참으로 신이한 일이네요. 오늘은 일요일 여보 남대문으로 가서 질그릇 하나 사게! 오래된 시가 생각나는 아침이네. 귀찮게 해서 모두에게 미안 미안해~~

10월 29일 | 부처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루나처럼 이차돈·사명·용성·동산·성철·청담스님을 따르고 한국불교를 재흥하고 싶은 열망에 뒤지지 않으려고, 나는 금정산 범어사에 달려갔다. 자랑은 아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실험이었다. 실험은 성공이었다. 육신의 고통을 견디고 수행을 참아 이기고 깨쳐 알아 행화를 기다릴 것이다.

10월 30일 | 병의 치유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화연돼야 한다. 건강·치유·간병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간병을 적극적으로 희생하는 간호자가 있어 보호가 절대적이다. 나는 행복타. 우리 보살 반야심의 정성 노력 그리고 문병 오는 환한 미소가 나를 더욱 힘돋게 한다.

병은 무명의 연속지속을 단속시키는 것 우리 보살 정성·'문병미소'에 힘 솟네 퇴원… "여러분 법사 보살 고마워요"

용성·동산·성철·미천은 어떻게 보면 한국불교의 정맥인 것이다!

나는 정말 분명하다. 감·인·대의 정신이 바로 삼취정계의 정신임을 절감하였다. 가르침 주신 동산 큰스님 감사합니다!

11월 3일 | 펄떡 팔딱 개구리처럼 다람쥐인양 날렵하게 일어났으니 더더욱 혼자 솟구쳐 앉았으니

아 그대는 초인이다. 니이체의 영광이다. 이기고 있다. 지금을.

11월 5일 | 오늘 오후 퇴원합니다. 잘 선택된 날 보조스님이 인지도자는 인지기라 하였습니다. 나는 법에 의하여 공부하였습니다.

11월 6일 | 미천산방에서 편한 숨을 쉰다. 35일동안 병원생활 조금 피곤했다. 집에 와서도 숙변을 보고나니 속이 상쾌하다. 몸과 맘이 치유되는 기별이라고 느껴진다! 여러분 법사 보살 고마뿌요?

11월 21일 | 내가 내가 이 강산에 태어나 물이런가 돌인가 흙으로 흐르며 밟혀 온 칠십아리랑고개를 넘으며 돌아서 간다. 오육십고개도 무척이나 어렵게 넘든 고개. 또 또 넘어넘어 간다. 그 고개를 넘으로 가네.









① 바람미로의 108광장
②미로 박물관 상설 전시
③ 인도네시아 자바 섬 보로부두르 종을 본떠 만든 성취의 종

성인 남자 키 높이로 제주 현무암을 하나하나 쌓은 뒤 붉은 돌인 제주송이를 올려 만든 돌하르방 미로 전경. 세계 최장 길이이며, 지난 8월에는 SBS예능프로 '런닝맨'이 촬영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인생의 미로, 팔정도로 헤쳐나가자

제주도 명소로 자리한 미로공원 메이즈랜드

"갈림길에서 바른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념이 필요합니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혀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삶을 살며 수없이 부딪히는 선택의 순간과 그 이후에 오는 수많은 번뇌에 해답을 제시한 부처님. 그 가르침을 미로로 표현한 곳이 있어 화제다. 바로 세계 최대 미로테마파크 제주 메이즈랜드다. 독실한 불자인 이동한 메이즈랜드 대표(62)가 불심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낸 곳, 메이즈랜드를 11월 25일 찾았다.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인 제주도에는 사설관광지가 많다.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한 박물관이며 테마파크 등이 최근 들어 많이 들어서고 있다. 이중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 2011년 4월 개장한 메이즈랜드는 불교철학을 바탕으로 돌, 바람, 여자가 많다는 삼다도(三多島)를 표현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8월에는 SBS 예능프로인 '런닝맨'에 방영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메이즈랜드에는 이동한 대표의 불교철학이 녹아 있다. 2세 때 소아마비를 겪고 3세 때 아버지를 여읜 이동한 대표에게 하루하루의 삶은 한치 앞도 모르는 생존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동한 대표는 "그야 말로 미로인생이었다"며 "인생의 힘든 고비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조성한 메이즈랜드의 세 가지 미로는 각각 36개의 갈림길이 있다. 모두 합하면 108개의 갈림길로 108번뇌를 상징한다.

가장 먼저 조성된 '바람미로'는 원형으로 바람을 표현했다. 서양측백나무로 구성된 울타리는 성인 남자의 목까지 차는 높이다. 바람미로의 원형 길은 총 8개로 팔정도를 상징한다. 바람이 상징하는 고난이 닥치더라도 불법에 따라 정법 수행을 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바람미로의 중앙에는 광장이 자리하고 있는데 '108광장'으로 이름 붙여져 있다. 여기에는 기도하는 여인의 손 모양을 상징하는 '나눔의 조각상'이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조각상은 선업을 짓는 것을 의미한다"며 "젊었을 때, 또는 살아있을 때의 모든 것들은 죽으면 지수화풍으로 없어지지만 유일하게 남는 것이 바로 선업을 베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8번뇌를 끊고 성불로 가는 첩경이 바로 자비로운 마음에서 우러나는 나눔"이라고 강조했다.

나눔의 마음으로 아집을 내려놓고 바람미로를 헤치고 나서면 여자 미로가 이어진다.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는 해녀의 모습을 한 이 미로에는 랠란디 나무와 동백나무가 식재돼 있다. 마치 부처님의 최후 선정을 방해한 마왕파순의 세 딸과 같이 동백꽃이 만개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붉은 동백꽃을 보다보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

바람미로와 여자미로를 합치면 제주도 바다에서 나는 소라모양이 된다. 바람미로는 소라의 몸통부분을, 해녀미로는 소라의 뚜껑부분을 상징한다.

두 미로를 빠져나오면 제주지역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돌하르방이 펼쳐진다. 제주도에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돌하르방이 존재한다. 이어진 돌하르방 미로는 말 그대로 돌담으로 된 미로 길이다. 성인 남자의 키 높이로 제주 현무암을 하나하나 쌓

108번뇌 상징하는 108 갈림길 등
공원 곳곳에 불교철학 녹아 있어
"빠른 길보다 바른 길 중요" 메세지

은 뒤 위에는 붉은 돌인 제주 송이를 올렸다. 이 대표는 이 미로를 만들기 위해 약 10년 동안 돌을 모았다고 한다.

미로에서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 길을 찾기 위해 뛰어다니는 것과 천천히 걷는 것 모두 헤매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옆을 빠르게 뛰어서 지나갔던 한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뛰어온다.

미로를 빠져나가는 길을 찾기 위한 방법을 묻자 이동한 대표는 차분히 마음을 먼저 가라앉히라고 조언했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자 사람들이 많이 걸었던 길의 발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이철행 전무이사는 "출입구가 남쪽에 언뜻 보여 본능적으로 빨리가기 위해 남쪽으로 향하는데 오히려 헤매는 길"이라며 "빠른 길인지 알고 욕심을 내면 오히려 더 헤매는 이치"라고 말했다.

미로 찾기가 끝나면 하늘길과 전망대가 나온다. 거기에 올라서면 그동안 헤매오던 모든 미로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마치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선 이가 세속에 아등바등대는 중생을 보듯 미로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보는 듯하다. 전망대에서 메이즈랜드 밖으로 눈을 돌리자 미로 속에서는 보지 못했던 주변 오름과 풍광이 병풍처럼 펼쳐진다.

전망대 한편에는 세계 3대 불교성지인 인도네시아 자바섬 보로부두르 불교사원의 종을 본떠 만든 성취의 종이 있다. 불교에서 종소리는 무명을 없애 우주의 모든 중생을 제도할 뿐만 아니라 지옥에 빠진 중생들도 구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성취의 종에 손을 대자 경주 에밀레종 소리가 은은히 울려 퍼진다. 그동안 미로에서 헤매며 느꼈던 모든 번뇌를 저 멀리 날려버리는 듯하다.

서울에서 온 김경희(36)씨는 "미로를 헤매다 막막해질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길을 찾았다"며 "살면서 고난에 부딪쳤을 때 급하게 생각하기보다 평정심을 갖고 사는 습관을 가져야겠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제주 · 글=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주위 돌보는 나눔정신으로 공원 조성

이동한 메이즈랜드 대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공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세 때 소아마비를 앓은 이동한 대표는 현재 자신과 같은 처지의 장애인을 위한 자비 나눔의 삶을 평생 동안 펼쳐오고 있다.

어려서 '절뚝발이'라고 놀림 받았던 이 대표는 그로 인해 더욱 더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도 보조기와 지팡이에 의지해야 걸을 수 있는 이 대표는 25년간 장애인 복지사업에도 헌신해 '제주도 장애인의 대부'로 통한다.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던 이 대표는 어려서부터 자립에 대한 의지를 키웠다. 뒤늦게 들어간 고등학교에서 제주도 1호 계량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수도계량기, 택시미터기 교체 일을 시작했다. 이어 조경사업과 양묘사업 등에 뛰어들어 1985년 제주공항 조경 사업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1987년 제주에서 처음으로 '춘강(春江)'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했다. '춘강'은 이 대표가 어릴 적 절에서 받은 법명에서 따온 것이다.

이 대표는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장애인 근로센터,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재활의료시설인 춘강의원 등을 세워 운영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 중이다.

독실한 불자인 이 대표는 불편한 몸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석예불을 올리고 있다. 매일 오전 6시면 집안에 마련된 불단에서 가족들과 예불을 올리며 이어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내 법당인 춘강정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예불을 올리며 무사안녕을 기원한다. 또 10년 동안 제주도 내 무연고 분묘의 영가를 위한 천도재도 봉행하고 있다.

메이즈랜드도 이러한 마음으로 만들었다. 관광시설이지만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가정 가족 등 소외계층을 위해 일자리를 배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들과 다문화가정 가족, 스님과 성직자들에게는 무료 이용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동한 대표는 이 같은 공로로 1997년 정부로부터 국민포장을 수상했고, 2000년에는 제주시민상, 2001년에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최근 이 대표는 '2012 호암 사회봉사상'을 수상해 상금 3억 원을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바라밀행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는 것은 다양하지만 그 근본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나보다 힘든 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봉 행

(사)호국불교조계종 가사불사 및 점안법회

가사를 조성하여 시주하면 천 가지 재앙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만 가지 복이 구름처럼 일어난다.
이런 연유로 가사불사는 으뜸가는 공덕이므로 (각 사암)으로 가사불사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대장경 수자함〉

종 정 운송 (청운사 055-375-0108)
중앙원로원장 대웅 (봉주암 051-895-6013)
중앙원로의원 혜원 (봉광사)
무진 (용수암 011-864-3369)
청수. 일파
중앙종회사무처장 용현 (극락정사 010-2531-1961)
중앙종회의원 수경 (백련암). 범주 (몽불사)
진우. 진여. 진설. 혜덕
고 문 허종범 변호사 (011-837-1144)
사 무 총 장 박몬비 (010-4566-4504)
중앙포교단장 덕인 박근호
포교단총무 법광 (무량사 010-9316-4438)

※ 종지 종풍 및 이념은 홈페이지 참조 (http://bbnr.or.kr)

중앙종회의장 일봉 (관음사 011-508-3100)
포 교 원 장 운암 (문황사 055-573-1745)
교 육 원 장 법기 (백림사 016-748-0048)
호 계 원 장 법정 (법정사 011-567-2626)
호 법 원 장 법산
중앙전통불교문화원장 무향 소현 (010-7757-5078)
중앙선거관리원장 관우 (약사사 010-8859-5312)

(社)護國佛敎曹溪宗 總務院長 유심 성도
공동봉행위원장 운암
공동봉행위원장 혜명 범우

비구니회회장 혜명 법우 (백광사 051-804-3806)
비구니회총무 범중 (법전사 011-9509-1560)
총 무 부 장 도일 정무 (청운암 010-4007-0057)
감 찰 부 장 서암 (약수사 010-6668-2017)
규 정 부 장 법승 (051-516-4494)
재 무 부 장 묘향 반야라마 (010-8620-4303)
문 화 부 장 청오 (홍주암 011-514-6310)
감 사 부 장 청타 (관음정사 018-403-1022)

■ 장소 : 부산역 앞 건너편 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 관음정사 (051-468-5657)
■ 일시 : 불기 2556년 12월 8일 (음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전국 각 교구 종무원장

부산교구원장 (총무원 직할)
서울교구원장 법안 (광복사 02-306-7988)
경남교구원장 운암 (문황사 017-551-5143)
천안교구원장 법산 (010-3011-0853)
대구교구원장 보현 (약사사 016-9884-0860)
사천교구원장 무무 현수 (연지암 010-4587-2163)
불무도교구원장 수연 법승 (천황사 010-8988-9672)
경주교구원장 무진 (용수암 011-864-3369)
포항교구원장 해광 (천왕사 010-4148-2402)

입종업체

신라불교미술관
● 불교문화재 기능보유자 제12-01-01호
● 2010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미술부문 수상
● 불상, 탱화, 개금, 벽화, 단청
● 조성장소 : 부산진구 초읍동 (무상 010-3557-6250)

수봉전자 (불교음향기기특수제작)
● 선거음향, cctv, 노래방, 야외앰프
● http://www.kukjeav.com
● 장소 : 부산 진구 부전동 29번지(부산전자종합시장 1F 7호문)
● 수봉 010-3832-8855

불교승복 원복사
● 가사, 장삼, 두루마기, 손누비, 모시깨끼, 승복일절
● http://www.wonboksa.co.kr
● 장소 :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276(구, 고속터미널 앞 미남로 약국 2층)
● 금봉 010-3572-4400

'변화의 중심' 전등사를 주목하라 – ③세계 속 문화도량을 꿈꾸다

'열강 침략' 역사의 아픔 韓-佛 교류행사로 치유한다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을 격퇴한 '양현수 장군 승전비(전등사 경내 위치)'〈사진 왼쪽〉와 전등사 대조루 초입 모습〈사진 오른쪽〉. 역사의 상처인 병인양요는 전등사를 통해 100여 년의 시간을 넘어 치유의 역사로 자리매김될 계획이다.

1866년 1월 흥선대원군의 척화정책으로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 9명와 한국인 천주교인이 학살된다. 프랑스는 이에 격분해 그해 10월 로즈 제독이 이끄는 함대 7척과 600명의 해병대를 파병해 강화 진해문 일대를 점거한다.

1개월간의 전투 끝에 프랑스 군인들도 다수가 사망했지만, 침략을 받은 강화도의 피해는 엄청났다. 프랑스군은 민가·군영할 것 없이 무차별로 포격을 가했으며 점거한 강화성을 철거하면서, 장녕전 등 모든 관아에 불을 지렀다. 또한 은금괴(당시 화폐 기준 3만 8000달러 상당)와 대량의 서적 ·무기 ·보물 등도 약탈했다. 강화도에 가장 아픈 역사로 기억되는 사건 중 하나가 '병인양요'다.

돌아오는 2016년 병인양요 발발 130주년을 맞아 강화 전등사(범우)가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나선다.

강화 전등사는 내년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간 경내 일원에서 한국- 프랑스 친선 문화교류행사를 개최한다. 병인양요 130주년을 앞두고 격전지였던 강화도 일원에서 이뤄지는 양국 간 교류 행사는 전쟁이라는 아픈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치유의 초점은 바로 '문화'다. 행사기간 중에는 한국과 프랑스의 전통등 전시회가 상시 운영되며 '사찰음식과 프랑스 요리 콜라보네이션'이라는 주제의 음식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음식체험 행사는 ▷사찰음식과 와인 그리고 카나페 ▷사찰음식과 프랑스 자연 식단 ▷사찰음식의 응용 및 이주민 초청 자국음식 전시 등 매일 소주제를 바뀌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와 함께

병인양요 130주년 맞아
내년 5월 친선행사 추진
사찰음식, 군악 연주회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져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등
세계 속 도량으로 발돋움

삼랑성 돌기, 위령재, 군악대 협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 중이다. 또한 전등사는 한국-프랑스 간의 교류 행사인만큼 주한프랑스기업, 주불한국기업, 국방부 관계자들도 대거 초청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주지 범우 스님은 "병인양요 현장이었던 전등사에서 한국, 프랑스 간 행사를 추진해 화합과 소통의 새 역사를 열겠다"며 "양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며 전등사를 중심으로 양국 간 문화네트워크 중심 도량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등사의 역사와 정족산 사고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고 공항권 내의 전등사가 한국문화 홍보에 중요한 관문임을 증명하는 행사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속 문화도량'으로서의 전등사의 위상은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개최되며, 지난 10월에는 인천 송도에 UN 산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유치됐기 때문이다.

전등사는 무엇보다 이 같은 국제 행사들을 통해 한국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포부도 가지고 있다. 특히 인천에 들어선 아시안게임 메인 경기장과 차로 20분 거리이고, 인천공항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것이다.

범우 스님은 "인천 아시안게임의 경우 현재 기획되고 있는 문화행사가 거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전등사는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아시안 게임 참가자와 관람객들이 불편없이 사찰을 찾을 수 있도록 도량을 정비하려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사찰 전체를 하나의 역사·문화 행사장으로 가꿀 계획"이라며 "특히 '전통등'을 주제로 한 등 문화 축제를 열어 숲과 성, 전각이 한데 아우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전용 교육관 개관…자기계발로 이웃 돕는다

불교여성개발원,
조계사 인근 전용교육장 마련



불교여성개발원은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여성불자들을 위한 전용 교육관을 개관하고 특별전시회를 열었다. 교육관에서는 불자여성을 위한 웰다잉교육, 다문화가정자원봉사교육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여성불자들의 교육과 수행을 전담하는 전용 교육관이 개관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의 (사)지혜로운여성은 창립 12주년을 맞아 지난 해부터 여성광장 건립모금을 시작, 1년 만에 7억 7000여 만원을 모아 서울 조계사 인근 수송빌딩 1층에 전용교육장을 마련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11월 27일 새 교육관에서 개관식을 봉행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지원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명우 스님(전국비구니회 회장), 정경연 불교여성개발원장, 김애주 불교여성개발원 전 원장, 이인자 승만경연구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애주 전 원장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불교여성개발원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여성단체로 발전했지만 교육과 수행 장소가 없어 늘 어려움을 겪었다"며 "여러 회원들의 뜻을 모아 2011년 5월 불교여성광장 건립 기금모금 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문을 연 교육관은 60명, 9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두 개와 사무실로 구성됐다. 김개천 국민대 교수가 실내 디자인을 맡았다.

교육관에서는 여성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들이 진행될 계획이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가족애착놀이강사 양성과 노인자살예방 강사를 양성하는 강좌 등이 대표적이며 수료생들은 복지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식문화와 고유 복식을 배우는 예절강좌와 명상프로그램 등을 개설할 예정이며, 기존에 진행해왔던 승만경연구회, 웰다잉운동본부, 사찰음식문화센터, 불교여성문화센터 등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센터 교육도 진행한다.

이날 불교여성개발원은 교육관 개관을 기념해 11월 27~29일 남상민 한국예절문화원 원장의 '자수팔상전-석가세존의 생애' 자선전시도 열었다. 전시회에는 남상민 한국예절문화원 원장이 5년간 직접 수놓은 91폭의 부처님의 생애가 전시됐다.

또한 같은 날 제7대 불교여성개발원장으로 선출된 정경연 원장의 취임식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봉행됐다.

정경연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내적 성장에 더욱 힘을 쏟아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튼튼한 불교여성개발원을 만들어가겠다"며 "오늘 개관하는 교육관을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한국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소외된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의 손길을 전하는 여성불자를 양성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 원장은 이어 "우바새들도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여성과 남성을 함께 아우르는 여성단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여성개발원은 여성불자의 지혜와 자비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2000년 창립된 이후 지난 12년 동안 교계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말없이 보살도를 실천해왔다"며 "정경연 7대 원장은 지금의 불교여성개발원을 한 차원 높게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단체로 변모시킬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 불교여성개발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포교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기구인 사찰음식문화센터는 12월 8~9일 목동 조계종 국제선센터에서 20·30대 청년 불자를 위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행사는 첫째 날 사찰음식 실습,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인 선재 스님의 강의에 이어 둘째날 참선, 행선, 108배염주만들기, 차담 등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참가희망자는 불교여성개발원에 문의하면 된다. (02)722-2101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대불 총동문회 2012 송년법회

15일 방배 열린법당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윤제철)는 12월 15일 서울 방배동 총동문회 열린법당에서 2012년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송년법회는 영상으로 '2012 대불련 총동문회 활동 현황'을 통해 한 해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편 총동문회는 지난 6일 개최된 대불이사회에서 총동문회회관으로 종로 르메이르 오피스텔로 결정했으며, 송년법회 후 사무실을 이전한다. (02)720-1963

이나은 기자

호흡수행·뇌과학 명상법 강좌 개설

선림원, 다양한 선 수행법 강연 개최

다양한 선 수행법과 명상을 배우는 자리가 열린다.

조계사 선림원은 12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9시 '건강한 수행자가 걷는 지혜로운길 시즌1·2'를 열고 호흡수행법과 뇌과학과 관련한 명상법을 제시한다.

강좌는 '실전 호흡수행' '명상과 행복, 뇌과학을 넘어서' 등 두 가지로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된다.

'실전 호흡수행'은 선(禪)의 다양한 수행법을 두루 살피고, 인연이 있는 이에게 깊이 있고 알맞은 수행법을 제시한다. 수강생들은 호흡수행법, 선체조, 건강기공, 걷기명상, 수행문화 등을 배우게 된다. 프로그램은 △호흡수행의 원리와 자세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두 길 △건강한 수행자의 모습 △중도(中道)를 실천하는 수행자 등을 주제로 구성됐다.

'명상과 행복, 뇌과학을 넘어서'에서는 현대 뇌 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마음의 문제와 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뇌를 넘어서 카르마를 바꾸고, 나와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명상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선체조, 앉기·서기·걷기 명상을 실시하며 △행복한 뇌지도 만들기 △공포는 실존이 아니다 △행복을 느끼는 뇌파 만들기 등의 강의를 진행한다. (02)732-2183

이나은 기자

출간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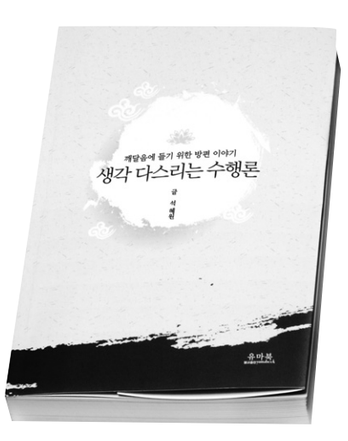
금강삼매경 출판기념법회 불교방송 3층법당 12월 29일 오후 2시 (참석인 책증정)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

생각다스리는 수행론에서 1,2,3,4 단계 이수 후 공(空)마저 놓는 수행으로 보살경지에 이르게 된다.

보살들이 중생의 궁금증을 대신 묻고 부처님이 답하는 형식이고, 고뇌가 일어날 때 공(空)에 굴에 두라고 하지만, 미혹한 중생은 경계에 빠지니, 방편을 제시하고 공(空)에 들게하고 공(空)마저 놓게 한다.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상구보리는 스스로 안다. 이제는 방편을 말하리라.

타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좋다, 싫다하는 차별 없는 것이 공(空)에 들어간 것이나 정진하여 공(空)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상승 법인 선(禪)이다. 간화선 수행이 생활의 일치 되도록 경전인용과 일상 가운데 증득을 바탕으로 서술 한 책이다.

1단계 : 들숨날숨 집중　　2단계 : 들숨날숨 관찰
3단계 : 화두참구 (견성)　　4단계 : 공(空)에 들어감

▶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 수강생 모집
- 1기 접수중　• 인원 : 50명　• 저자 혜원 직강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대상 : 생각다스리는 수행론 이수자. 단, 공(空)에 든 분은 예외

▶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수강생 모집
- 2기 접수중　• 저자 혜원 직강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대상 : 사부대중 (50명)

【 1기 수강 후 하시는 말씀 】
·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 가족관계가 부드러워졌어요.
· 몸이 건강하게 되었어요.　· 미래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졌어요.

무아선원 031)721-2148~9　◈ 첫 강의 입재
■ 날짜 : 2013년 1월 10일　■ 기간 : 1년
■ 교재 : 금강삼매경, 생각다스리는 수행론　■ 강사 : 혜원스님

도서구매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5
교보, 영풍 등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노화증세라 방심… 노인우울로 악화"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노인우울예방과 행복' 세미나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1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노인우울예방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들어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등으로 우울증을 겪는 노인들의 자살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1995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당 127.1(0.13%)명에서, 2005년에는 480.4(0.48%)명, 2009년에는 4.071(4.07%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 큰 부분은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노인 우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센터장 청원)는 1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노인우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보호요인과 복지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노년을 살아가는 힘 우울예방과 행복' 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안준희 교수(호서대 노인복지학과)가 '노인 우울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 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다.

안준희 교수는 "한국의 노인 우울증 질환자는 2004년에 8만9000여 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14만7000여 명으로 늘어나 5년 새 약 65.9%가 증가했고 진료비는 295억 원에서 659억 원이 소요돼 123.4%가 증가했다"며 "노인의 우울증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사안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 같이 노인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치료 서비스지원이 어려운 것은 노인 스스로와 주변인이 우울증을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 우울증의 증상은 가슴통증, 마비, 소화불량 등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 노인 스스로가 우울증으로 지각하기 어렵다"며 "가족 및 주변인들도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해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 교수는 "우리나라는 우울증 등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며 "노인전문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 노인 정신건강 관련 전문 인력의 부족도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우울 5년새 66% 증가
마비 등 신체증상 노화로 오인
명상 · 종교생활해야 우울 막아

안 교수는 노인 우울증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노인만을 특화한 정신보건센터를 더 확충해야 하며, 지역사회 내 장기적 우울예방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교수는 "지역사회에 발굴된 우울 사례를 정신보건센터 및 의료기관과 공유하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 우울예방과 자살예방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명희 서울노인복지센터 부관장이 '노인상실경험 극복을 통한 우울예방' 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명희 부관장은 서울노인복지센터 이용노인 453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이 부관장은 "조사를 통해 연령이 높고 주관적으로 경제상태가 낮고 건강상태가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으며, 관계와 소득, 그리고 역할을 상실한 경험이 클수록 우울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르신들에게 회고(회상)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삶에 대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자아통합감을 향상시키고 가족, 친척, 동년배 노인 등 사회적지지자를 통해 우울을 감소시켜야 한다"며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동년배 상담가를 통한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노인들의 자조모임을 활성화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 부관장은 상실경험극복을 위해서는 명상 · 종교프로그램 등 정서적 순화상태를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노인우울개선을 위해 진행 중인 복지관들의 프로그램 사례발표도 있었다.

박한욱 대리(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노인우울예방 집단상담프로그램' 을, 유승호 팀장(연세대 가양4종합복지관)이 '우울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을, 정현주 대리(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가 '독거노인의 노년기 우울관리를 위한 사례발표' 를 소개했다.

서울시어르신사담센터는 우울감호소 어르신을 위한 '자아 신뢰 감 싸안기 프로그램-자신감' 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신체에서 느껴지는 감각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변화를 수용하는 자기 인식 및 정서적 치유를 경험하는 '포커싱 체험심리치료' 가 주가 돼 진행된다.

연세대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우울증을 보이는 어르신들을 모아 자조모임을 만들어 집단프로그램과 영성프로그램 및 맞춤형 건강 컨설팅을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은 독거노인의 노년기 우울관리를 위한 '함께에 같이(가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우울증 발병위험이 높은 독거노인에게 미술치료와 개별 심리상담 및 캠프활동을 제공해 노인우울증 환자를 집중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나은 기자

조계종 복지재단, 자비나눔대축제

월도 스님, 안신권 소장 등 20명 수상


월도 스님


안신권 소장


윤기혁 부원장


고경환 실장


김종준 은행장


오욱환 회장

불교계 자비나눔 실천가들이 한 해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의 주관으로 12월 6일 오후 2시 AW 컨벤션센터에서 '제14회 불교사회복지대회-2012년 한국불교자비나눔대축제' 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자승 스님과 정 · 관계 인사 및 불교자원봉사자, 후원자, 불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 · 2 · 3부로 나누어진 행사는 불교사회복지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불교사회복지포럼과 자비나눔 실천가들을 발굴 · 포상하는 자비나눔 대법회 및 만찬으로 구성됐다.

1부 불교사회복지포럼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교사회복지의 역할' 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발제를 맡는다. 최경구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가 '사회적 양극화 실태: 주요 3가지 현황을 중심으로' 을, 이성기 교수(인제대 사회복지학과)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 을, 조기룡 조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교사회복지의 역할' 을 발표한다.

2부 자비나눔기념대법회에서는 자비나눔 유공자 시상과 조계종자원봉사단 찬불가동아리 '울림' 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불교사회복지실천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2부 자비나눔대법회에서는 한 해 동안의 불교계 자비나눔 현황을 공유하고, 불교사회복지발전을 위해 헌신한 불교사회복지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시상식이 열린다.

불교사회복지유공자시상에는 지난 10월 유공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20명의 유공자가 선정됐다. 2012년 불교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복지시설단체운영부문 4명, 불교사회복지발전공헌부문 4명, 자원봉사활동부문 4명, 공로상 3명이 총무원장상을 수상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상은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과 상락정 배산실버빌 윤기혁 부원장, 대한불교조계종자원봉사단 황옥순 자원봉사자가 수상하며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상은 천태종복지재단 사무총장 월도 스님,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팀인 수원 KRA Plaza가 수상한다.

특히 공로상에는 불교복지 발전을 위해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는 한편, 승려노후복지제도의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한 고경환 연구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통계 연구실)과, 지속적인 사회공헌 실천과 함께 불교사회복지 종합전산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김종준 은행장(하나은행), 2000년부터 현재까지 소년소녀가장 및 재감자 자녀에게 장학후원을 하며 미래의 인재양성에 힘써온 오욱환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이 선정돼 눈길을 끈다.

자승 스님은 "양극화의 위기 속에 사회통합과 중생구제의 기대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종단은 나눔결사 추진에 발맞추어 자비나눔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며 "자비나눔활동에 헌신해 온 불교복지실천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자비나눔대축제를 마련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법타 스님, 중림종합사회복지관서 강연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은 11월 28일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을 초청해 교양강좌를 진행했다.〈사진〉

법타 스님은 지역주민들에게 '당당하고 아름다운 Gold 인생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꿈과 희망을 잃어하는 이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측은 "두 번째 열린 강좌에는 130명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며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힐링 강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아름다운동행, '자비나눔 후원의 밤'

12월 5일,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첫 행사 열어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은 12월 5일 오후 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1회 자비나눔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각계에서 활동 중인 불교신자들의 친목 모임 '불교포럼' 과 함께 마련하는 이날 행사는 1, 2부로 나뉘어 아름다운동행 활동 동영상 시청과 나눔&동행 콘서트, 축하 공연으로 진행된다. 가수 최백호씨와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로 구성된 '레인보우코리아합창단' 이 무대에 오른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올겨울에도 후원자들이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선물을 전달하는 '선재의 선물 보내기 캠페인' 을 실시한다. (02)737-9595

이나은 기자

종로노인복지관,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방문

개관 5주년 기념, 현지 어린이에 후원품 전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개관 5주년을 기념해 캄보디아를 방문해 후원품을 전달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개관 5주년을 기념해 캄보디아 어린이에게 후원품을 전달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스님과 직원 20여 명은 캄보디아 '로터스월드' 를 방문해 후원금(약 100만원)과 아동복 60여벌, 칫솔 70개 등의 후원품을 지원했다.

개관 5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직원 해외연수는 3박 5일간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진행됐으며, 각 지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앙코르와트 등 문화유적도 살펴보며 견문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정관 스님은 "캄보디아의 아이들이 재난과 굶주림에 고통 받지 않길 바라며, 복지관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10 · 27 법난 재조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세미나



■ **취지**
10 · 27법난의 역사적 의미와 불교계가 입은 피해를 되돌아 보고, 현재 진행중인 10 · 27법난의 명예회복의 방안을 재점검하여 조속한 진상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의 방안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합니다. 더불어 10.27법난과 관련한 국가 법령의 개정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 **일시** : 2012년 12월 18일(화) 15시
■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 **주관** : 총무원 사회부,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 불교신문사

10 · 27 법난 재조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구 · 부산 법회

■ **취지**
전국의 불자들이 10 · 27법난의 역사적 의미와 10 · 27 법난으로 인하여 불교계가 받은 피해를 바르게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고,
10 · 27법난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과 뜻을 하나로 모으고자 합니다.

■ **대구법회** : 2012년 12월 14일(금) 17시 호텔인터불고 대구 컨벤션 홀
■ **부산법회** : 2012년 12월 16일(일) 17시 코모도 호텔 대연회장 그랜드볼룸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 **주관** : 총무원 사회부,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 불교신문사, 제9교구본사 동화사, 제14교구본사 범어사

대한불교조계종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02)2011-1824

‘모든 것은 변한다’ … 자각·정진해야 역사 전환

김상현 동국대 사학과 교수 고별강연

11월 30일, 주제 ‘불교의 역사관’

김상현 교수(동국대 사학과)의 퇴임 기념 강연회가 11월 30일 동국대 초허당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불교의 역사관’을 주제로 강연한 김 교수는 “과거의 역사적 행위는 버릇으로 오늘에 이른다. 역사라는 물의 흐름을 정당한 방향으로 바꾸려면 진실로 자각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연의 요지다.

정리=이나은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김상현 교수는 … 1981년 단국대 조교수로 교직생활을 시작, 한국교원대를 거쳐 동국대 사학과 교수로 32년간 재직했다. 김 교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장, 동국대 문과대학 학장을 역임했으며, 신라사상과 한국역사 및 불교사에 대해 120편의 학술논문을 저술했다. 또한 불이상, 명원차문화상, 뇌허불교학술상, 차문화학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역사로 읽는 원효〉〈신라화엄사상연구〉〈한국불교사 산책〉 등이 있다.

역사는 곧 연기…통합적 이해 필요
별업 · 공업 서로 영향주며 업 축적
습기 때문에 방향 전환 어려워
원효 “악업의 장애 참회로 제거”

수없는 세계와 중생 기초로 한 불교 역사관

불교의 역사관은 신을 중심으로 혹은 인간만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수없이 다양한 세계와 중생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 현상계에서 사건의 영속적인 고리들은 계속적으로 서로 뒤섞이고 쉬지 않고 앞으로 회전하며 거대한 거물을 만들고 있다.

인간이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이듯이, 우리의 행위도 별업(別業)과 공업(共業)을 동시에 이루어가고 있다. 개인의 업은 집단의 업에 영향 받고 공업 또한 별업의 영향을 받는다. 하나와 전체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란 중생들의 행위에 의해서 생겨난 것을 말한다. 개인의 행위는 그 사람 개인의 인격을 형성시키고, 개인의 일생 역사를 만들어 간다. 그러기에 불교에서는 사람은 선업에 의해 선인이 되며, 악업에 의해 악인이 된다고 했던 것이다. 이 가르침에 의하면, 집단의 역사도 그 집단의 공동적인 행위에 의해서만 향상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도 있고, 몰락의 역사가 존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역사란 사람들이 지어온 온갖 업들의 축적이다. 인간의 행위에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기에 역사에도 자랑스러운 것과 부끄러운 것이 함께 한다. 인류가 경험했던 수많은 과거사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장식(藏識), 혹은 종자식(種子識)이라고 한다. 그 종자들은 적당한 인연을 만나면 싹을 트고 꽃을 피울 것이며, 때로는 가시가 되기도 하고 혹처럼 불거지기도 할 것이다.

우리가 ‘역사 바로 세우기’ ‘과거청산’ 등의 용어를 쓰지만, 이미 일어난 과거로서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깨끗이 씻어 내거나 청산 할 수 없다.

과거사에 대한 오늘의 반성과 참회는 있을 수 있다. 바로 세우는 것은 과거의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가고 있는 역사적 발걸음을 반듯이 걸어가려는 노력이다. 이것도 또한 과거에 대한 참회며 반성이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과거를 없었던 것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 어렵고 그 짐을 벗어던지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우리들 행위를 의식적으로 행함으로써 새로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

역사는 제석천 그물처럼 얽힌 연기(緣起)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이것이 인연소기(因緣所起)이고, 연기(緣起)이다. 그러기에 역사는 곧 연기이기도 하다. 연기란 제석천의 그물처럼 수많은 인연들이 얽히고설키면서 전개되는 사건들이다. 따라서 그 어떤 역사 사건도 단순한 한두 원인으로 설명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역사란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기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화엄교학 중의 중요 테마인 육상(六相)의 이론이 있다. 즉, 총상(總相), 별상(別相), 동상(同相), 이상(異相), 성상(成相), 괴상(壞相)이다. 만유의 모든 법에는 낱낱이 육상이 있다는 것이다. 총상은 전체적인 모습을, 별상은 개별적인 모습을, 동상은 동질적인 양상을, 이상은 서로 다른 양상을, 성상은 이루어진 상태를, 괴상은 각각의 위치를 잃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전체와 부분은 즉(卽)과 중(中)의 관계로 설명된다. 하나가 곧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다. 즉 일과 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는 상즉상입(相卽相入)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 관계는 동질성과 이질성 사이에도 꼭 같이 적용되는 원리다.

인간은 수많은 개별적인 기관이 모여서 이룩한 하나의 전체다. 그러나 인류라는 집합체인 또 하나의 전체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의 개별이고 부분이다.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이다. 연기의 도리인 것이다. 신라의 원효와 의상, 그리고 고려시대의 의천과 지눌 선사들은 인간과 사회, 그리고 세계를 이와 같은 6상의 이론에 입각해서 이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보편적 진리는 불교의 이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어느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한 보편적인 도리이기에 역사 이해에 적용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불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한 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고 있다는 보편적 사실을 강조한다. 역사 또한 끝없는 변화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변화를 어떤 이는 발전이나 진보로 설명하려 한다. 과학 문명 등을 단순히 생각하면 역사는 마치 진보하는 듯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역사를 단순히 진보하는 것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역사란 어떤 인연이 쌓이면 발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퇴보할 수도 있다. 인생이란 온갖 가능성에 접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따라서 어떤 집단의 역사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성수대교 무너진 이유 파악보다 관행 그쳐야

우리는 과거에 지은 업보, 역사라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쏟아져 내린 물이 다시 흘러 더 많은 피해를 일으키기 전에, 그것을 단호히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효는 “악업의 장애는 참회로써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참회로 과거의 잘못된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날의 업력(業力)이 흘러 현재에까지 영향주지 못하도록 차단하려는 것이다. 그러기에 원효는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한다는 것은 종자의 왕성한 작용을 현재에까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오늘 우리들 삶을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무방비 상태로 맡겨둘 수는 없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과거 잘못에 대한 강한 비판과 참회가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발상의 전환이니 의식의 전환을 강조한다. 그러나 역사의 전환은 결코 생각이나 다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성수대교가 끊어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허술함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또 입방아들을 찧었지만, 그것은 말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관행을 그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인내하고 실천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정진 · 인욕 · 지혜가 필요하다.

왜 이다지도 전환이 어려운 것일까. 오랜 습관과 습기(習氣)로 인해서 과거의 잘못을 단호하게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들 인생도 변하고, 우리의 업도 변한다. 사실 이것이 곧 역사다. 착한 이가 나쁘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쁜 자로 지탄받던 자가 새롭게 착한 사람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것이 역사의 전환이다.

자각으로 오늘 살면 새 역사 개혁하는 길

역사는 냉엄한 현실이다. 삶에서 부딪히는 온갖 아픔도 현실이다. 고통은 실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관념적으로 논할 것이 아니다.

유식에서는 인간의 업장이 두텁고 과거의 습기가 많아서 삼 아승지 겁을 닦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화엄불교에서는 ‘초발심시변성정각(初發心時便成正覺)’이라고 했고, 선불교에서는 세수하다가 코를 만지듯 그렇게 불성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했다. 어두운 방에는 하나의 등불로 환해진다. 역사의 변화도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변화도 있고, 혁명적인 급격한 변화도 있다. 돌 한 덩이가 물길을 바꾼다.

우리는 과거에 매달리지도 않지만, 또한 미래에 끌려가지도 않는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결국은 오늘 우리들의 결단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좋고 해서는 안 되는지 등의 문제에 소홀하지 않기 위해 과거의 여러 경험을 통해 배운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각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다. 불교의 업설(業說)은 운명론이 아니다. 우리는 역사라는 과거의 짐을 짊어지면서도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가야만 한다.

역사의식이란 역사라는 물의 흐름을 살펴서 그 물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다. 어떻게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결을 정당한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진실로 자각 안에서 사는 것이다. 현재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을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부처님은 〈염처경〉에서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결연하게 현재에 행하고 있는 한 생각 한 행동에 대해서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 즉 숙업(宿業)의 업장을 단호하게 끊고 새로운 역사를 장초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업을 이루어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세상을 역사 속에 이룩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이고 자각적이며 단호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개인의 역사에도 또는 집단의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집단의 역사를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서는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모두가 함께 행하는 업, 즉 공업을 새롭게 일구어 나가야 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또한 부단히 정진해야 한다.



동국대 사학과 김상현 교수가 11월 30일 동국대에서 ‘불교의 역사관’을 주제로 퇴임 고별 강연을 했다. 이날 300여 학생과 교수가 참석해 김 교수의 강연을 경청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2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12월 중
◆ 개강일시 : 2012년 12월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2013
2013(불기 2557)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과	1학년	2년	불교입문, 부처님생애 대승불교, 불전개설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 18:30 ~ 19:50 · 2교시 : 20:10 ~ 21:30	· 입학원서1부 (5,000원) · 반명함판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20만원 (1년 10만원씩)
	2학년		천태불교학 중국불교, 법화경 Ⅰ · Ⅱ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선사상, 유식사상천수경, 정토사상 화엄경, 포교방법론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 18:00 ~ 19:20 · 2교시 : 19:30 ~ 20:50 · 3교시 : 21:00 ~ 22:20	· 지원서 1부 · 반명함판사진 2매 ·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25만원)

원서접수

원서교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평 택 법장사 : 031.655.9090			• 접수 : 2012년 11월 19일(월) ~ 2013년 2월 15일(금) 18시까지 • 면접 : 2013년 2월 16일(토) 오후 16시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2층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576.6401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 우면AP, 관문사에서 하차)
신 촌 성룡사 : 02.336.2052	수 원 용광사 : 031.255.4105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 리 금성사 : 031.563.9364				
구 로 명화사 : 02.854.0196	안 양 대안사 : 031.459.3666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안 산 월강사 : 031.419.5048				
성 남 화성사 : 031.745.1482	부 천 천화사 : 032.671.5353				
일 산 화성사 : 031.905.2912	군 포 상락사 : 031.392.0924				

서울金剛佛敎大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명상법과 간화선 융합 발전해야"

피터 스킬링 교수, 성철스님 기념 포럼서 기조강연

"불교는 세월이 지나며 다양한 명상 수행법이 발달해왔습니다. 수행법의 다양화는 불교를 넘어 종교 전반의 공통점입니다. 특정 명상법만이 최고라는 자세가 올바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남방 불교 전문가인 피터 스킬링(63) 프랑스 극동학원 교수는 11월 29일 동국대에서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이 '불교의 명상-고대 인도에서 현대 아시아까지'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킬링 교수는 기조발제 '불교의 명상 누가 독점하려 하는가'를 통해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은 불교수행의 핵심적인 방법"이라며 "어떤 학파 · 시대 · 나라 · 선사도 불교의 명상을 독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산스크리트어나 빠알리어로 된 경전을 살펴보면 부처님도 다양한 종류의 명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스킬링 교수는 "불교의 목표인 열반으로 가는 길은 많다"며 "부처님은 가르치는 상대방의 능력이나 경향, 척도에 따라 그 사람에게 적절한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명상법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스킬링 교수는 "불교교학은 고립돼 전개된 것이 아니라 브라마니즘 등 다른 종교 체계와 상호작용, 경쟁 속에서 발전 한 것"이라며 "명상 또한 특정 수행법의 독점이 아닌 다양한 수행법의 경쟁과 융합과정에서 발전이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킬링 교수는 최근 한국에서 인기를 끄는 남방 위빠사나 수행법이 남방불교의 전유물로 평가되고 이 수행법이 간화선보다 우위에 있다는 일각의 평가를 일축했다.

스킬링 교수는 "위빠사나 수행법의 호흡 수행법인 수식관은 남방불교의 대표적 논서인 〈청정도론〉에도 나오지만 북방불교의 〈유가사지론〉에도 설명된다"며 "수행법은 우리가 명확하게 주변을 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스킬링 교수는 "하나의 명상법만 최고라고 하기보다 다양한 명상을 두루 해보며 융합해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빠사나 유행은 쉬운데서 시작

학술포럼 이후 스킬링 교수는 간화선 세계화에 대해서는 영어와 현지어로 지도하는 여건이 미흡하며 이로 인해 해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면이 크다고 말했다.

스킬링 교수는 "명상센터 등을 세우고 외국어로 지도하는 스님들을 배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위빠사나가 단계별 검증을 통해 수행자의 단계를 진단할 수 있는 만큼 간화선도 다양한 지도법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스킬링 교수는 이번 학술심포지엄의 계기인 성철 스님에 대해서는 선교겸수의 롤모델이라고 평했다.

스킬링 교수는 "100일 법문 영역본을 통해 연기법 등 불교교리에 대한 설명을 접하고 굉장히 놀랐다"며 "선사임에도 불교의 역사와 교리에 정통한 점을 학자로서 본받고 싶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남방불교 전문가 피터 스킬링 교수는 명상 수행 전통의 발전을 위해 남방북교와 북방불교 수행법의 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흡수행 · 간화선 서로 인정 필요
'남방불교가 초기불교 계승' 허구
'괴로움 소멸법' 다양하게 발달
간화선은 동아시아 수행법

간화선, 선종 넘은 동아시아 명상 전통

2부에서 주제발제한 케이트 크로스비 런던대 교수도 "그동안 정통성 논란이 많았던 남방불교가 초기불교를 그대로 계승했다는 평가는 역사적 사실과 동떨어진 허구"라고 지적했다.

요하네스 브롱코스트 스위스 로잔대 명예교수는 "초기경전에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언급하지만 그 목표에 이르는 방법에 관해서는 서로 달라 명확하지 않다"며 다양한 수행법의 발달이 불교전반에서 진행됐음을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두 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로버트 버스웰 UCLA교수는 "간화선은 선종만의 산물이 아닌 동아시아 불교 수행의 산물"이라고 간화선의 의미를 확대했다.

버스웰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간화선이 선불교가 쇠퇴하자 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송대 선종에서 고안된 것이라 주장하지만 간화선은 동아시아 불교의 전반적인 수행풍토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 과감한 비판 없으면 발전 없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서

"불교학 연구는 현재 신앙과 학문연구의 혼동된 상태입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과거와 현재 문제에 대해 과감히 비판할 때 불교학이 발전하고 국가학문인 한국학으로서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이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국학으로서의 불교학'이란 주제로 한국불교와 동 · 서양 종교, 철학, 문학, 역사, 정치, 경제학과의 학제적 접근 모색이 이뤄졌다.

이날 '근대한국불교사학의 전통과 한국학'을 발표한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는 "근대 불교학은 훈고학적 자구의 주석을 위주로 전승됐을 뿐 문헌비판과 새로운 이해체계에 대한 근대학문으로는 확대발전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그 원인으로 문제의식 약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들었다.

최병헌 명예교수는 "1980년대 이후 한국불교 연구는 불교학, 역사학 외에 철학과 종교학 등 분야로 확대됐고 불교미술사 분야 연구가 활성화되며 양적 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평했다. 하지만 최 명예교수는 "한국학에서 국문학 등에 비해 질적 양적 측면에서 여전히 변방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명예교수는 한국불교 연구상황에 대해 "비판의식의 부족으로 인해 상당수 논문이 문제의식이 불분명하며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 또 불교신앙과 학문연구를 혼동하는 경향, 고승에 대한 선양사업과 학문연구의 미분화 등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명예교수는 "불교학 분야에서는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불교 사상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역사학 분야에서 불교철학의 이해가 필요한 반면 불교학에서는 사회과학 분야의 소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서윤길 동국대 명예교수의 '불교문화연구원 50년과 한국불교'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첫날인 11월 30일에는 △베르나르 포르 콜럼비아대 교수의 '서구불교학에서 본 한국불교' △판카즈 모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인도불교에서 본 한국불교' △리시롱 북경대 교수의 '중국불교에서 본 한국불교' △시모다 마사히로 도쿄대 교수의 '일본불교에서 본 한국불교' △조은수 서울대 교수의 '한국철학에서 본 한국불교' △이동철 용인대 교수의 '동양철학에서 본 한국불교' △김종욱 동국대 교수의 '서양철학에서 본 한국불교' 등 논문이 발표됐다.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

이튿날인 12월1일에는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의 '한국학에서 본 한국불교' 발표를 시작으로 △허남린 브리티쉬 콜롬비아대 교수의 '종교학에서 본 한국불교' △김용태 동국대 교수의 '역사학에서 본 한국불교' △김상일 동국대 교수의 '문학에서 본 한국불교' △안토네타 부르노 로마대 교수의 '민속학에서 본 한국불교' △하와이대 교수 성원 스님의 '정치학에서 본 한국불교' △박경준 동국대 교수의 '경제학에서 본 한국불교' 등 논문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제1회 전법상에 반야 스님, 함현준 법사

불광연구원, 11월 13일 전법학 학술논문상 발표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이 수여하는 제1회 전법학 학술논문상 전법상 부문에 청암사승가대 반야 스님과 육군 제3군단 함현준 법사가 선정됐다.

불광연구원은 11월 13일 공모된 6편의 제출논문을 심사한 결과 청암사승가대학학인 반야 스님의 '초기불교의 전법교화 전략과 현대적 응용'과 육군 제3군단 함현준 군종법사의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을 통한 군포교의 발전방안 연구'를 제1회 전법학학술상 전법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상금은 각각 300만원이며 대상인 바라밀상은 선정되지 않았다.

반야 스님의 논문은 전법교화에 대한 초기불교 내용을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 한국불교의 포교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한국불교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포교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과 참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야 스님



함현준 법사

함현준 법사의 논문은 '이미지'라는 현대적인 트렌드를 군포교와 접목시켜 '이미지 메이킹'의 관점에서 군포교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함 법사는 설문조사를 통한 현장분석을 실시해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학술상 시상식은 12월 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02)941-3537

노덕현 기자

종교와문화연구소, 12월 8일 심포지엄

한신대 종교와문화연구소는 과학사상연구회와 공동으로 12월 8일 오후 1시 국립중앙박물관 제1강의실에서 '과학, 종교, 그리고 합리성의 안팎'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과학의 탈신화와 종교의 탈과학화' △김윤성 한신대 교수 '기이한 믿음의 욕망구조: 혈액형성격유형론, 신종종말론, 과학적창조설의 경우' △김희수 한국사회문제연구소 소장 '한국개신교의 문자적 성서 해석과 적용의 비합리성' 등이 발표된다. (031)379-0455

노덕현 기자

태고종립 동방불교대, 30주년 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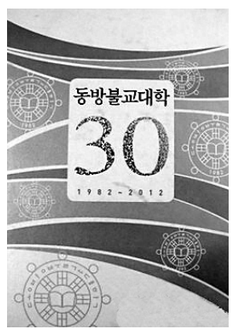
1500명 졸업생 배출, 〈동방 30년사〉 발간 봉정

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학장 영우)이 개교 30주년을 맞아 11월 2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비전30, 2012동방인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동방불교대학 이사장)과 중앙종회의장 도산 스님, 호법원장 운곡 스님 등 태고종 대표스님들과 전국교구종무원장, 각 단체장과 동방불교대학 졸업생 등이 대거 동참했다.

1982년 10월 서울시 중곡동에 2년제 '불교포교사전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동방불교대학은 출 · 재가불자를 아우르는 불교전문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왔다.

1983년에 現동방불교대학으로 개명한 이래 총 149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불교학과 단일학과로 시작한 이후 1990년에는 영산재 저변 확대와 계승을 목적으로 '범패과'가, 1991년에는 단청화맥 계승을 위해 '불교미술과'가 신설됐다. 2004년에는 '승가과', 2010년에는 '역경학과'를 개설해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동방30년사〉 표지 사진

동방불교대학 학장 영우 스님은 "교사(校舍) 등 기반시설 확충, 학사관리 보완, 교육재원 확보 등이 시급하다"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법어에서 "종립학교 30년 동안 힘으로 태고의 종풍이 사해(四海)에 떨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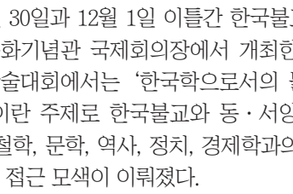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동방불교대학의 30년 역사를 담은 〈동방 30년사〉 발간 및 봉정식이 개최됐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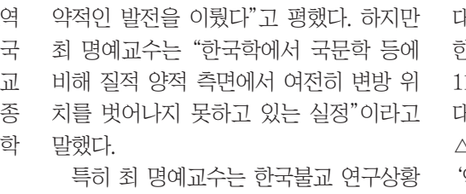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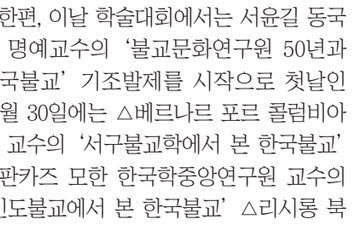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高性能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삐-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20





• 무선 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법자세교정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 특 전 :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9-517-1730

바른자세헬스케어진흥원
Strainght Posture Health Care P.A

국방부 반 강제 매입 사찰 땅 돌려 달라

완주 봉서사 주지 월해 스님, "옛 가람부지 재 매입하겠다"

전북 완주 태고종 봉서사(주지 월해)가 1979년 10·26 사태 후 계엄하에 '공시지가 강제 매입'으로 국방부에 반강제적으로 수용 당한 사찰 토지를 다시 매입하기 위해 나섰다.

이번에 봉서사가 국방부로부터 다시 매입하려는 옛 사찰부지는 약 25만평으로 2㎞에 이르는 사찰 진입로를 포함해 일주문터, 도솔암, 부도전 터, 남암 터, 동삼굴 터, 진묵장 터, 진감국사 사적비 터 등이 포함돼 있다.

봉서사 주지 월해 스님은 "국방부는 경내지 25만 평을 당시 공시지가인 평당 113원에 반 강제적으로 매입했다"며 "현재 이 부지는 향토사단인 35사단 충경부대의 유격 훈련장으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35사단이 전북 임실군으로의 이전계획이 확정됐으므로 이 부지는 원 소유주인 봉서사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 때마다 지자체장 입후보자들은 봉서사 땅을 되찾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답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봉서사를 가려면 군 유격 훈련장을 가로질러야 한다. 그동안 부대의 훈련이라도 있는 날이면 불자들이 절에 가기도 힘들 정도로 수행환경과 신행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천년 고찰인 봉서사 부지를 되찾아 옛 가람을 복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봉서사는 태고종 총무원을 통해 국방부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로 앞으로 사부대중의 의지를 담은 탄원서 제출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0·26때 25만평 공시지가로 후보자들 선거때마다 약속, 답 없어 군부대 훈련시 수행 활동 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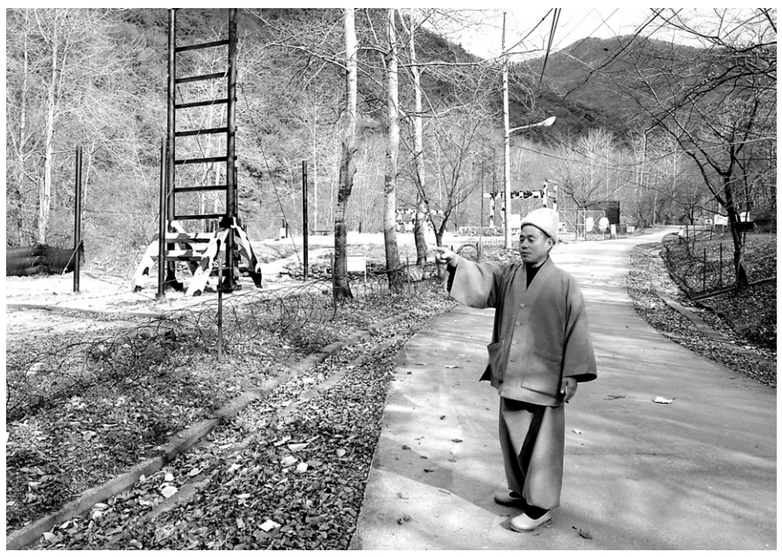
현재 국방부는 현재 토지 재매각의사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 부지를 재 매입하는 데는 공시지가로 약 7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봉서사는 이 사찰 토지를 재 매입해 진묵대사의 효행 사상을 담은 효행 문화체험관을 건립해 진묵대사의 효행사상을 지역 청소년들과 지역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봉서사는 신라 성덕왕 때 혜철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고려시대 보조 지눌, 나옹 혜근스님, 조선중기 진묵대사가 주석한 사찰이다.

한국전쟁 당시 소실된 것을 1960년대 일부 복원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문화재로는 진묵대사 부도(전북도지정문화재 제108호)가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봉서사가 국방부로부터 다시 매입하려는 옛 사찰부지는 약 25만평으로 2㎞에 이른다. 주지 월해 스님이 옛 사찰 부지를 둘러보며 설명하고 있다.

"중생 번뇌 위해 염불 수행법 제시"

민중위해 정토신앙 주창한 요세 스님 조명 세미나

고려 무신정권의 혼란 속에서 민중들의 삶을 위해 정토신앙을 주창했던 원묘국사 요세 스님(1163~1245)의 삶을 재조명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전남 강진 백련사(주지 여연)는 목포대 호남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24일 강진 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제2회 백련결사 학술세미나 '원묘국사의 재조명'을 개최했다.

행사를 주최한 여연 스님은 인사말에서 "백련사는 불교의 시대를 이끌던 8국사 스님들이 계셨던 곳으로, 국사스님들은 중생들과 불교가 위기에 빠질 때 이곳에서 결사를 시작하셨다"며 "이번 학술세미나는 조사스님들의 뜻을 오늘에 살펴 중생들의 가슴에 희망이라는 다리를 놓기 위해 마련했다"고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보선 스님은 축사를 통해 "바람 잘날 없는 우리시대에 결사는 우리를 지탱해주는 희망의 법등(法燈)이며, 혼돈의 시대를 살았던 국사들은 결사를 통해 불교계와 중생계를 정화했다"며 결사의미를 설명했다.

강연은 부산대 채상식 교수가 '원묘국사 요세의 생애와 역사적 위상'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으며 서울대 김정희 교수가 '원묘국사 요세와 백련결사 정토신앙의 재조명'을 주제로 발표했다.

채상식 교수는 "당시 많은 농민층들의 유리현상과 병행하여 나타난 지배세력에 대한 농민·천민 등의 항쟁은 단순한 민란의 차원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변의 양상을 주도한 것으로, 요세 스님이 신앙결사를 표방한 것은 당시 보수적인 불교계로서는 대단한 충격이었다"고 말하며, "요세 스님의 법화교관에 바탕한 참회행과 미타정토신앙을 실천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당시 불교계에 대한 자각과 반성을 촉구한 것일 뿐 아니라 피지배층 대상으로 하여 신앙적인 활로를 모색한 것이었으며, 정토신앙이 민중 속에 깊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고 밝혔다.



채상식 부산대 교수는 "요세 스님은 민중들에게 참회행과 미타정토신앙을 실천방향으로 제시해한 것은 신앙적 활로를 모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정희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요세 스님은 중생과 부처가 모두 자신의 마음에 근거하며,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함으로써, 중생들의 다양한 번뇌의 치료법으로 염불, 참회, 독송과 같은 다양한 수행법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지연 오지연 원각불교사상연구원 전임연구원의 '원묘국사 요세와 백련결사 참회수행의 재조명', 엄기표 단국대 교수의 '백련사 석조 유물의 종합적 검토를 통한 원묘국사 부도와 석비의 원형 추론' 발표가 이어졌다.

오지연 전임연구원은 "보현도량은 참회나 예불, 염불 등의 행법으로 그 바탕을 둔 법화경을 통해 정법수호의 결연한 의지로 수행하는 보살행을 강조했으며 그것을 구현한 도량이었다"고 정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복지·문화체험 통한 고창공동체 실현할 것"

고창군사회복지시설, 개관 5주년

선운사 복지재단(대표 법만)이 위탁 운영하는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도완)이 개관 다섯 돌을 맞았다.

'복된 만남 아름다운 인연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2007년 개관한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은 개관 5주년을 맞아 11월 29일 회원어르신들과 지역 주민을 초정해 개관 기념식과 축하공연,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 상임이사 법려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서권열 부군수, 박래환 군 의장, 김춘진 국회의원, 임동규 도의원 등 내빈과 500여 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후원 전달식, 우수 직원 표창과 2부 어르신 작품 발표회 및 전시회,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도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처음 가졌던 설렘과 감사한 마음을 되새기겠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고창군사회복지시설이 되겠다"고 말했다.

법만 스님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보살의 길을 경전속에서만 찾지 않겠다"며 "보은염 만드는 법을 지역민들에게 알려준 검단 스님을 비롯한 역대 조사스님들의 유지를 이어 받아 복지, 문화체험을 통한 고창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복지사업 증진을 위해 애써준 우수 직원 김용숙(49), 김규태(42)씨에 대한 시상과 영광원자력본부, 트로트 가수 미소라의 후원 전달식이 이어졌다.

문화교육 프로그램 발표회는 실버악단, 벨리댄스, 난타 등 '열정'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다채로운 시간으로 진행됐다.

그밖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한지공예, 서예, 반딧불교실, 문예교실, 동화구연 전시회와 트로트 가수 미소라의 무료축하공연이 열렸다.

고창종합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와 푸드마켓 등 4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 회원은 4000여 명이며 하루 50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군사회복지시설은 개관 5주년을 맞아 11월 29일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진우 스님(백양사 주지·사진 맨왼쪽), 종삼 스님(화엄사 주지·왼쪽에서 두번째), 김춘진 국회의원(오른쪽에서 다섯번째) 등 내빈 5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립광주박물관, 관람객 50만 명 돌파

"세계 100대 박물관 이름 올릴 것"

최근 중국의 1급 불교문화재가 포함된 '절강성 보물'전과 '외규장각 의궤' 특별 전시를 개최한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1978년 개관된 이래 34년 만인 올해 1년 관람객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 국립박물관 중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에 이어 세 번째다.

박물관 분야의 국제 권위지인 아트 뉴스페이퍼(The Art Newspaper)는 "'세계 100대 박물관'을 연간 방문객 수 50만 명 이상에서 선정 하는데 광주박물관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외규장각 의궤'와 중국 '절강성의 보물', '강진전' 등과 같은 타 지역에서 보기 힘든 굵직한 특별전시를 개최했다. 국제교류 전시인 절강성의 보물전은 9월 25일 개막하여 11월 25일까지 10만여 명이 다녀감으로써 막을 내렸다. 절강성박물관의 대표유물 200점을 엄선했으며 중국의 1급 유물 40점이 포함되어 국내 최대 규모의 중국 문물전으로 주목받은 전시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연 개발 경쟁 대상으로 생각 말아야"

유정길 前 대표 증심사서 강연

광주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불교환경 강좌가 개최됐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연광)는 11월 28일 '무등(無等)에서 길을 묻다-33선지식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명사초청법회에서 유정길 前 에코붓다 대표를 초청해 불교환경에 대한 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에서 유정길 前 대표는 "불교는 연기적 가치관을 통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인간과 자연이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임을 밝혀왔다"며, "환경은 깨끗한 생태를 보존하는데 멈추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간이 인위적으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직도 자연을 개발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일침했다.

증심사 명사초청법회는 33분의 한국불교의 선지식을 초대해, 무등산을 찾는 불자들과 일반인들에게 불교적 실천의 아름다움과 오늘날 인류 문제를 불교의 지혜로 해결하고자 하는 강의로, 지난 2011년 3월에 시작 2013년까지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무등산 증심사에서 11월 28일 개최된 명사초청법회에 유정길 前 에코붓다 대표가 초청돼 불교환경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통도사 화엄산림법회 봉행

12월 13일 ~ 내년 1월 11일 도암 스님 법문 시작으로 30일간 설법전서 진행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가 '화엄산림법회'을 실시한다. 통도사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0일간 '화엄산림법회'를 설법전서 봉행한다.

법회 첫날은 12월 13일 통도사 방장 원명스님의 입재법문을 송광사 강주 도암 스님이 '화엄경 현담'을 법문한다. 또한 1월 30일에는 주지 원산 스님이 회향법문으로 법회를 마무리 한다.

화엄산림의 '화엄'은 경전의 제명을 줄인 것이고, '산림'은 '摧折人我山 長養功德林'(나다 너다 하는 아만심을 꺾어 없애고 공덕의 숲을 키워 나가는 것)에서 따온 말로써 화엄경을 설하는 법회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화엄법회는 신라시대부터 있어왔으나, 현재의 화엄산림법회는 경봉 스님이 1927년 12월 8일~1928년 1월 3일(21일간) 통도사 극락암에서 출·재가자를 대상으로 연 것이 최초다.

통도사는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모아 禪, 敎, 律 의 큰 스승들을 모시고 30일간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 그리고 선재동자의 금강과 같은 구법의 마음을 배우고자 마련된 법회다. 이 공덕으로 일체 유정과 무정들이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2012년 화엄산림법회 일정표

법문하실품	요일	양력	음력	법사	비고
입재법문 화엄경 현담	목	12/13	11/1	방장 스님 도암 스님	입재법문 송광사 강주
세주 묘엄품	금	14	2	해월 스님	해인사 강주
여래현상품 보현삼매품	토	15	3	혜거 스님	탄허문화재단 이사장
세계 성취품	일	16	4	종범 스님	전 승가대 총장
화장세계품	월	17	5	설정 스님	수덕사 방장
비로자나품	화	18	6	덕진 스님	울산 정토사 주지
여래명호품 사성제품	수	19	7	혜남 스님	통도사 전계사
광명각품 보살문명품	목	20	8	법산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정행품 현수품	금	21	9	원철 스님	전 불학연구소 소장
승수미정상품 수미정상게찬품	토	22	10	지안 스님	고시위원장
오전 월하스님다례 십주품	일	23	11	무여 스님	축서사 회주
범행품	월	24	12	오심 스님	월봉사 주지
발심공덕품 명법품	화	25	13	도일 스님	송광사 율원장
불승야마천궁품 야마천궁게찬품	수	26	14	법인 스님	교육부장
십행품 십장품	목	27	15	수불 스님	범어사 주지
불승도솔천궁품 도솔천궁게찬품	금	28	16	중선 스님	수도암 감원
십회향품1-5	토	29	17	각성 스님	화엄사 회주
십회향품 6-10	일	30	18	무비 스님	전 교육원장
십지품	월	31	19	덕문 스님	통도사 율원장
십정품	화	2013/1/1	20	수진 스님	해인정사 주지
십통품, 십인품	수	2	21	성림 스님	통도사 선덕
아승지품 여래수량품	목	3	22	반산 스님	원각사 주지
제보살주처품 불부사의법품	금	4	23	용학 스님	범어사 강주
여래십신상해품 여래수호광명공덕품	토	5	24	현진 스님	통도사 강주
보현행품	일	6	25	월파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여래출현품	월	7	26	우진 스님	서축암 감원
이세간품	화	8	27	정묵 스님	통도사 승가대 교수사
입법계품	수	9	28	심산 스님	부산홍법사 주지
입법계품	목	10	29	지현 스님	송광사 율주
회향 법문	금	11	30	원산 스님	통도사 주지

사찰음식 요리법, 스마트폰서 배운다

다양한 사찰 음식과 요리법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볼 수 있는 전자책이 출간됐다. 종합 출판그룹인 ㈜북21사와 전자책 유통 플랫폼인 '카드북 닷컴'은 달성군이 펴낸 '자연의 맛, 웰빙 사찰 음식 30선'을 전자 출판물로 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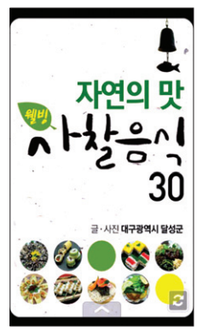
전자책자는 밥, 반찬, 별미의 한상 차림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밥 메뉴는 곰취 쌈밥과 두부 샐러드, 깻잎밥말이 등 6개 품목, 반찬 메뉴는 두릅 산나물로 만든 표고버섯찜·매화전·연근 깻잎김치 등 10개 품목, 별미음식으로는 단호박 식혜와 사과 라비올라 튀김'두릅 리조또'흑임자 죽 등 14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책은 카드북(www.cardbook.com)을 통해 검색 및 구입할 수 있다. 달성군 관계자는 "전자출판물을 통해 저작권 사용료와 배타적 발행권 등 판매 수량의 10%를 수익으로 얻게 된다"며 "앞으로 소책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달성군 사찰

대구 달성군 전자책 출간

〈웰빙 사찰 음식 30선〉

밥·반찬·한상 차림 등 실어



다양한 사찰 음식과 요리법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만나볼 수 있다. 달성군이 펴낸 사찰음식 서적이 전자책으로 간행돼 눈길을 끈다.

음식의 상업화'대중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지난해 대구음식관광박람회에서 사찰 음식을 선보여 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국 사찰음식 품평회'를 열었다. 이후 사찰 음식의 전문가 대안 스님이 추천한 30가지에 대해 표준 조리법과 효능을 널리 알리는 책자를 발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팔공산 용주암 세계 다문화축제 개최

극락보전 봉안 2주년 기념 행사

팔공산 갓바위 용주암(주지 성학 스님)은 11월 25일 세계다문화축제 및 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인류평화기원과 용주암 극락보전 및 지장보살 명부시왕 봉안 2주년기념으로 마련됐다.

이날 법회는 前 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을 법사로 초대했으며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자광 스님은 "자신의 성불까지 포기하시고 악도와 지옥에 떨어져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한 보살중에 보살님이 지장 보살님이다. 이곳 용주암에 지장보살님을 모시게 돼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주지 성학 스님은 "대원본존 지장보살님, 극락보존 아미타불 그리고 명부시왕 등을 봉안한지 2주년을 맞아 이렇게 법회를 마련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축제인 만큼 화려한 볼거리도 이어졌다. 중국 기예단, 일본 예술단, 필리핀 가극단 등이 출연해 무대를 펼쳤다.

용주암 측은 "우리 사찰은 국제문화교류가 특별해 세계 각국의 공연단을 초청했다. 봉안 2주년을 기념한 행사인 만큼 대중들의 호응도 매우 컸다"라고 전했다.



용주암은 11월 25일 세계 다문화 축제를 개최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생태 해치는 불사는 환경훼손 주범

오래된 절에 가보면 그 사찰이 들어서기에 꼭 맞는 터를 잡은 다음 그 터에 어울리도록 건물을 배치하고 마당을 조성하여 터가 가진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불사가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야말로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현대로 오면서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사찰이 직면한 다양한 요구 가운데에서 해결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신도들이 원하는 기능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달리 방법이 없으니 사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숙명처럼 지켜온 사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불사는 사찰 내·외부의 자연환경을 파괴하여 건강하지 않은 사찰환경을 만드는 문제점을 낳고야만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세를 과시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사역을 수평적으로 늘리는 사찰도 부지기수이다. 물론 이렇게 사역을 늘리기 위해 토목공사를 하고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겠으나 그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전통사찰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환경은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게 되고 사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엄청난 수준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예전의 스님들은 자연을 잘 이해하였고, 자연이 가진 생태적 질서를 잘 파악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공환경을 도입하는 지혜가 있었다. 사찰을 짓기 위해 터를 조성하면서도 절토보다는 성토위주의 불사를 하였던 것이 바로 스님들의 이러한 지혜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의 옛 사찰들은 아직까지도 자연과 상생의 조화를 이루며 무탈하게 법등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불교계에서 주도하고 있는 환경운동은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환경적 재앙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전개된 생명존중운동이다. 그러나 정작 사찰이 주체가 되어 일으키는 환경훼손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제부터라도 불교계는 솔선수범하여 지금까지 잘 지켜온 우리의 사찰환경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건물지을 터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실시한 토목공사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일으키게 되며, 산사태와 같은 환경문제의 원인이 된다. 경상북도 ㅂ사찰







1000년 세월의 풍상을 보여주는 인떼인 파고다, 천년의 세월을 넘게 견뎌온 흔적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신비감마저 느끼게 한다.

안분지족의 마음으로 호수에서 사는 이들



파웅도우 파고다에서 불상에 금을 입히는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파웅도우 파고다의 다섯 불상



파웅도우 파고다는 배를 타고 가야한다.



배를 타고 유적지 인근을 지나 등교하는 미얀마 학생들



인레호수의 아름다운 석양과 고기잡이 배의 모습



인레호수 인근의 소수민족 전통복장

④ 인레 호수 - 파웅도우 · 인떼인 파고다

미얀마에는 주요 민족인 버마 족 외에도 160개 이상의 민족이 살고 있다. 특히 미얀마 북동쪽 해발 880m에 위치한 인레 호수 주변에는 샨 · 인따 · 따웅뚜 족 등 소수민족 7만여 명이 살고 있다.

만달레이에서 비행기로 40여 분을 이동해 헤호에 도착하면 다른 미얀마 도시와는 달리 서늘한 날씨를 느낄 수 있다. 도시 자체가 고원 지대이기 때문이다. 헤호에서 다시 차를 타고 1시간 가량 이동하면 인레 호수 낭쉐선착장에 도착한다.

산정호수인 인레호수는 길이 22km, 폭 11km로 긴 고구마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이 호수에는 '호수의 아들'로 불리는 인따족들이 산다. 이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상에서 생활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는 이들은 어릴 때부터 노 젓기와 수영을 배우게 된다. 호수에는 여러 개의 마을이 있으며 한 마을에는 100~150가구 정도가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농사짓는 법은 특이하다. 수경재배가 아니라 물위에 '농사를 짓기 위한 농토'를 만들어 거기에서 농작물을 재배한다.

굵은 대나무를 반으로 갈라 뗏목처럼 연결하고 그 위에 흙을 얹은 뒤, 호수바닥이 깊지 않은 곳에 박은 여러 개의 대나무 기둥에 고정해 놓으면 그것이 농경지가 된다. 여기에서는 감자를 재배한다. 토마토나 고추 같은 농산물은 수경재배해 자급자족하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또 호수의 연에서 나오는 연실을 이용해 만든 천은 미얀마 각지에서 거래될 만큼 유명하다.

이들의 가장 큰 생계의 수단은 어업으로 카누처럼 생긴 배를 타고 한 발로 노를 젓고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외발로 노 젓기'의 묘기와 같은 모습으로 배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있는 뱃사공의 모습이 이색적이다.

영험한 불상이 있는 파웅도우 파고다

인레 호수에도 파고다들이 있다. 호수 남쪽에는 파웅도우 파고다가 있다. 파고다가 지어진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파웅도우에 봉안된 불상들은 12세기 알라웅시투(Alaungsithu)왕이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파고다 중앙에는 불상 다섯 구가 모셔져 있는데 3개는 부처의 상이며 2개는 승려상이라고 한다. 파웅도우 파고다의 불상은 저 모습이 불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공처럼 둥근 형태를 갖추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며 금을 붙였기 때문이다.

미얀마 사람들은 금을 매우 성스럽게 생각하며 개금을 하고 남은 빨간 천조각을 자동차와 자전거 등에 메달면 사고를 예방해준다고 믿고 있다. 얇디 얇은 금박으로 지금의 불상이 됐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지 짐작케 한다. 이 곳 역시 여성들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인레호수에서 가장 큰 축제인 파웅도우 축제는 바로 이 파웅도우 파고다를 기점으로 열린다. 축제 때에는 마을사람들이 배에 5개 불상 중에 4개를 싣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축복을 빌어 준다.

이 때 가장 작은 불상 한 개는 파웅도우 파고다에 남아서 파고다를 지키게 되는데 이 불상이 남아 있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다. 어느 해 축제 기간 중 사고가 나 불상을 싣고 가던 배가 전복됐는데 그 중 불상 4개는 건졌지만 한 개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 밤 늦게야 파웅도우 파고다에 돌아와 보니 없어진 1개의 불상이 수초를 뒤집어 쓴 채 제 자리에 있는 것이었다.

그 후로는 축제 기간에는 반드시 이 불상을 남겨 사원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사원의 한 구석에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온 불교 신자들과 관광객들이 시주하고 간 돈을 전시하고 있다.

세월 무상함이 드러나는 인떼인 파고다

인레 호수에는 새로 개방된 불교문화 유적지 인떼인 파고다가 있다. 보수를 하지 않아 세월의 풍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1500여 개의 불탑이 있는 곳이다.

호수 오가며 쌓은 수많은 불탑 방치된 모습에서 세월 무상 느껴

한 시간 반 정도 수로를 따라 보트를 타고 물살을 거슬러 오르면 허물어진 파고다 군을 만난다. 천년 세월의 무상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은 거의 보수를 하지 않아 허물어진 채로 정글에 파묻혀 자연의 일부로 남아있다.

그중 중앙의 파고다로 가는 길에는 덮개가 있는 오솔길을 지나게 된다. 샨족이 조성한 인떼인 파고다는 바간왕조 시대 이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호수 가운데 어떻게 이런 길을 만들었을까는 신비로움이 솟아난다.

인떼인 파고다 인근에는 응아삐 짜웅이라는 고양이 사원도 있는데 1800년경에 세워진 신생사원이다. 20년 전부터 인레 호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양이 점프 묘기를 보여주는 특이한 사원이다.

인떼인 파고다를 돌아보고 보트를 타고 정글 사이 좁은 수레를 지나는 길에 평화로이 물고기를 잡는 인따족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삶의 여유로움과 평화가 묻어나온다.

욕심 없이 사는 미얀마 사람들의 깨끗한 마음 같은 맑은 인레호수를 보고 있노라면 세상 근심은 어느새 호수를 지나는 배들이 일으키는 물살에 실려 저 멀리 사라진다.

인레호수=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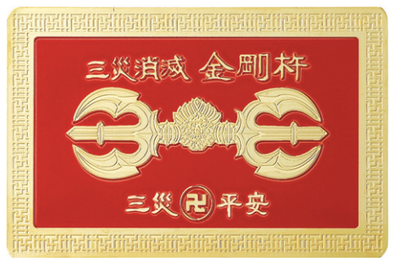
남성용 여성용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3년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묵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전 화 : (02)741- 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생태사회와 불교

남성의 '직선노동'과 여성의 '순환노동'

비정규 노동자 공동체 돌봄시스템 절실





전국 여성 노동조합〈사진 왼쪽〉과 민노총 도시철도 노동조합의 시위 모습〈사진 오른쪽〉. 직선적이고 위계적인 남성적 노동대신 여성성을 기반으로 한 순환적 노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성성의 일 '직선적 노동'…생태위기
여성성의 노동은 생명살리는 순환적 노동
돈 받지 않는 무불노동 우리사회 기반 돼
여성의 집안일은 곧 '사람 살리는 일'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

보통 남편을 부를 때, '바깥양반'이라고 말한다. 부인은 내자(內子)로 표현하기도 하고 '안사람'이라고 풀어 말하기도 한다. 남자의 일은 주로 집바깥 일을 하고, 여자는 대체로 집안의 일을 하기 때문에 불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요즘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졌고 남녀의 일의 구분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 과거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에서는 육체노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남성의 사회적 주도성이 높았고 그로 인해 가부장적 사회가 수천년간 이어져 그것이 성에 따른 역할분담을 고착되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는 근육(Muscle)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노동력의 차별이 없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가부장사회의 관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남자의 일은 주로 돈을 버는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돈을 버는 일을 경제활동이라고 하고 이러한 경제활동은 결국 자신의 노동을 팔아서 자원이나 원료 등을 가공하는 일이거나 서비스업이다. 그런데 이러한 남자의 노동은 노력할수록 돈으로 쌓이거나 성과로 남거나 사회적 명성을 얻게된다. 남자들의 일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지향한다. 무한히 많이 돈벌기를, 무한히 많은 명예를, 무한히 많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는다. 그 지향과 방향에는 끝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직선적 노동'이라고 표현해보자.

그런데 여성의 일은 이와 다르다. 여성의 일은 고생 고생하지만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은 안하면 금새 표시가 난다는 점이다. 육아, 청소, 요리, 집안정리 등 모든 가사노동이 바로 그렇다. 일을 하면 돈이되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노동은 돈이 안된다. 이러한 노동은 성과도 없고, 축적도 없기 때문에 반복적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남성의 '직선적 노동'에 비견하여 '순환적 노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공양간에서 깨달은 순환사회노동

필자는 2001년 약 일년여 보직순환의 원칙에 따라 정토회에서 공양주를 한적이 있었다. 공양주를 하면 마음공부도 되고, 공덕도 더 쌓을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당시 초기에는 밥을 짓기 위해 새벽 공양간의 문을 열때마다 "어제 했던 밥을 또 해야하는 구나,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되는구나" 하며 한숨진 적이 있었다. 그때 느꼈던 나는 깨닫게 되었다. 오늘날 자연을 파괴하면서 환경재앙, 생명의 죽임, 생태 위기를 초래한 것은 결국 남성성의 일이었다는 점이다. 남성성의 일이 곧 '직선적인 노동'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은 노동 그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노동이다. 이러한 노동은 특히 산업사회에서 자연속에서 생산되는 무수한 열매와 과실들(이자)만이 아닌 자연의 자원(원금)까지 고갈시키고 있는 행위가 되어왔다.

남성성의 노동은 자신의 노동력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학벌과 용모, 능력과 자격증을 갖추어 상품성을 높인다.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치열한 사교육열풍 학원과 과외경쟁은 결국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학벌을 얻으려는 것이며, 이는 자신의 상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을 익히거나 자격증을 얻으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유수의 대학도 이제는 성에 안차서 유학을 다녀와서 더 많은 정보력과 전문성, 화려한 경력을 포장하여 자신을 값비싸게 팔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공부, 학력은 가만히 따져보면 학문 자체에 대한 사명감, 인류와 세상, 남을 위한 학문이라기 보다는 결국 그 능력을 이용하거나 팔아서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사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여성성의 노동, '순환적인 노동'은 결국 생명을 다루고, 생명을 포태하고, 생명을 키우며 생명을 살리는 노동인 것이다. 남성의 노동은 엔트로피를 증대시키는(무질서도를 높이는) 방향의 일이라면 여성의 일은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질서를 높이는)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지프스의 노동과 그림자 노동

시지프스는 죽은 뒤 신들을 기만한 죄로, 높은 산에 큰 돌맹이를 겨우겨우 올려놓으면 다시 굴러 떨어져 다음 날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을 영원히 반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벌을 받았다. 이것을 시지프스의 노동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여성들의 가사노동은 바로 시지프스의 노동이다. 이 노동은 자본주의 임금노동이 아닌 비자본주의적인 노동이다.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노동은 돈과 명예, 경력이 축적이 일어나는 직선적 노동이지만, 순환적인 노동은 그렇지 않다. 우리사회에 이러한 순환노동이 없다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사회를 임금노동만으로 움직일수 있을까? 모든 노동을 돈을 받고 하게 된다면 우리사회는 어떻게 될까? 아이를 낳아주는일, 길러주는 일, 밥해주는 일, 아침 도시락 챙겨주고, 웃어주고, 용기를 북돋고 격려해주며, 가족의 갈등있을 때 화해해주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공부를 가르치고, 이웃과 사귀고, 취미활동을 하며, 컴퓨터 동호회에 글을 쓰고 댓글을 달아주며 서로격려하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 동네 마당을 쓸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모든 일에 돈을 지급한다고 생각해보자. 절에서 공양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남을 돕는 모든 일이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면 과연 우리사회는 과연 유지될수 있을까. 아니 반대로 이렇게 돈을 받지 않는 노동이 없어진다면, 우리사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돈을 받지 않는 무불(無拂)노동, 반복적인 노동, 순환적인 노동 때문이다. 이것을 이반일리치는 '그림자 노동(Shadow work)'이라고 표현했다. 빙산은 전체부피 중에 단 10%만이 바다위에 떠있고 나머지 90%는 바다밑에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의 그림자노동은 바닷물에 밑에 있는 빙산처럼 우리사회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역할을 하며 우리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살림살이는 죽임살이의 반대

주부가 집에서 하는 일을 영어로는 'house keeping', 일본어로는 가사(家事)라고 한다. 모두 집안일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것을 ' 살림살이 '라는 말을 쓴다. '살린다'는 말의 반대는 ' 죽인다 '이다. 살린다의 명사형이 ' 살림 '이고 죽인다의 명사형은 ' 죽임 '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는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란 뜻이다. 여성이 집안 일을 하는 것은 곧 ' 살리는 일 '이 라는 지혜가 묻어 있는 아름다운 말이다.

우리사회의 90%기반이되는 무불노동, 비임금노동, 그림자노동을 전통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살림살이노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노동은 하면 할수록 사람끼리의 정이 만들어지고, 따뜻한 관계가 형성된다. 돌보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노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은 돈은 안되지만 없어서는 안될 노동이다. 만일 임금노동만이 의미있다고 무불노동을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록 사회는 삭막해지고 사람관계는 살벌해 진다. 그러나 이렇게 돈이 안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 그러한 일이 의미있다고 격려되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인 것이다. 그러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곧 아름다운 미래사회인 것이다.

우리사회가 임금노동자로 채워진 사회 즉 완전고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좋은 사회일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생태사회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무불노동의 사람들이 살수 있는 협력과 공동체적 돌봄시스템을 갖춘 사회를 만든 것이 생태사회에서는 중요하다. 무불노동을 노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회적 노동이며 공동체노동이다. 이러한 노동은 당연히 비정규직이지만, 그들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게 살수 있게 하는 나누는 사회가 되는 것, 이것이 생태적사회가 지향해야할 목표일 것이다.

모든 여성이 곧 여성성 갖고 있는 것 아니다

남성이 곧 남성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거나, 여성이 곧 여성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남성성의 사회는 직선적, 위계적, 목표지향적 사회를 표현한 것이며 이것은 오늘날 여성이든 남성 모두에게 크든 작든 갖고 있는 성격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성을 깊이 체화한 남성도 있고, 오히려 여성임에도 목표과 효율지향의 남성성의 가치로 똘똘 뭉친 사람도 있다. 단지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림자노동, 순환의 노동이 곧 여성성의 가치와 맞닿아있다는 점이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경전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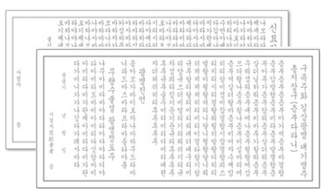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크 기 : 220㎜×310㎜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츰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여러종류의 사경책 · 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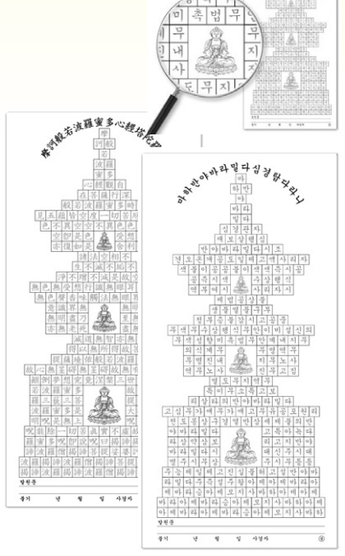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크 기 : 435㎜×300㎜

사경지

반야심경 탑사경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종 류 : 한문,한글





한지입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 / 9×14㎝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2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경면한지 불설삼재풀이
할인가 1,000원(200개 이상)
정 가 1,2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200개 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금강경탑다라니
할인가 180원(600개 이상)
정 가 25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인견한지]금강경탑다라니
할인가 400원(450개 이상)
정 가 6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2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121068-56-042256 ◆우체국:612416-02-031008 [예금주:강태규]

이발사에서 왕자들의 사형으로… 불법엔 '신분' 없어

⑨ 지계제일(持戒第一) 우바리 존자

〈상〉출가인연

천민 출신으로 출가하여 인도와 부처님 교단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제자가 있다. 부처님 법을 통해 힘들었던 삶의 인연을 끊고,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된 그는 누구보다 부처님 말씀을 소중히 했다. 부처님의 평등성을 몸소 증명하게 된 그는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특히 수행자의 목숨과도 같은 계율을 지키는데 원력을 세운다. '지계제일'로 불리는 우바리 존자 이야기다.



그림 · 김홍인

왕자들 따라 갔다 출가해
부처님 배려가 '지계제일' 낳아

아란야에서 수행 못했지만
진정한 수행자의 길 걸어

부처님이 고향을 다녀가면서 왕자들을 비롯한 석가족의 출가가 이어졌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인도를 중심을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했다. 부처님이 고향을 떠나신 직후였다. 부처님의 사촌인 데바닷다 왕자가 중심되어 여러 왕자들이 출가를 결심하고, 왕사성으로 떠난 부처님을 뒤따라간다. 그 일행속에 우바리가 동행하게 되고, 우바리의 출가는 왕자들의 출가에서 비롯된다.

왕자들의 출가

부처님은 기원정사로 가는 길에 아누삐야의 망고숲에 머물고 있었다. 출가를 결심한 데바닷다 아나율 밧디야 아난다 바구 낌빌라 우빠난다 일곱 왕자들은 출가를 허락하지 않는 부모들을 속이기 위해 시종들과 함께 소풍을 가장해 궁을 나선다. 왕자들 일행이 국경에 다다랐을 때였다.

"우바리야, 너는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이 정도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모든 시종들을 모두 돌려보낸 왕자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이발사 우바리를 따로 불러 그들이 몸에 지녔던 보석과 장신구들을 전해주며 궁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다른 시종들과는 달리 평소 왕자들의 신임이 남달랐던 우바리에게 왕자들은 살 길을 열어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은 왕자들이 처음부터 우바리를 비롯한 시종들의 출가는 생각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바리와 시종들을 돌려보낸 왕자들은 서둘러 길을 떠났고, 홀로 남은 우바리는 생각했다. "이 많은 보석을 가지고 돌아간들 나의 신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천민인 내가 이 보석들로 삶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부처님 당시 인도는 정해진 신분에 따라 살아가는 철저한 계급사회였다. 우바리는 다시 생각했다. "왕자로 태어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의 길을 택한 것은 보다 값진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얻는 바가 있다면 나도 얻는 바가 있으리라." 우바리는 왕자들에게서 받은 보화를 숲에 두고 왕자들의 뒤를 쫓는다.

사형(師兄) 우바리

망고숲. "왜 고향으로 가지 않았느냐?" 왕자들이 막 망고숲에 도착했을 때였다. 돌아온 우바리를 보고 왕자들이 놀라며 말했다. "저도 출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우바리가 돌아온 이유와 출가의 뜻을 말하자 왕자들은 우바리의 뜻을 받아들여 함께 부처님을 뵙기로 한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바른 법과 율을 닦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을 만난 왕자들과 우바리는 부처님께 귀의를 원하고 계를 청했다. 부처님 곁에 자리한 상수제자 사리불 존자가 말한다. "계를 받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부처님 제자의 서열은 출가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그 순서는 부처님께서 이름을 부르는 순서로 정해진다." 왕자들과 우바리가 부처님께 귀의할 것을 발원하자 부처님께서 계를 내리며 이름을 불렀다. "우바리!" 부처님이 제일 먼저 부른 이름은 우바리였다. 왕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들의 이발사였던 우바리가 그들의 사형이 된 것이다. 부처님 교단에 '신분'은 없었다. 비구의 출가 전 신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부처님이 우바리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불러 계를 주고 그들의 사형이 되게 한 것은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부처님의 의도였다. 부처님이 이어서 왕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새롭게 출가한 우바리와 왕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법은 바다와 같다. 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며, 바다의 물맛은 늘 하나다. 우리 승가도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며, 평등한 그들에게 올바른 법과 율이라는 한 가지 맛이 있을 뿐이다. 명심하라. 계를 받은 순서 역시 예를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신분과 귀천은 없다. 인연에 따라 사대(四大)가 합해져 몸이라 부르지만 이 몸은 무상하고 텅 비어 '나'라고 고집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다. 진실하고 성스러운 법과 율을 따르고 절대 교만하지 말라."

전생

우바리의 출가는 여러 모로 의미하는 바가 컸다. 비구들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우바리는 무슨 업으로 궁중의 이발사로 왔다가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대중은 우바리의 과거세가 궁금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본행집경〉 '우바리 인연품'에서 전한다. "우바리는 과거세에 존자 벽지불을 이발해 주고 나서 소원을 세우기를 '원컨대 세세생생에 만약 사람의 몸을 얻으면 항상 이발사의 집에서 태어나겠다,' 하였고, 또 그 때 원하기를 '원컨대 악도 가운데 나지 않겠노라.' 고 했던 발원의 과보력으로 악도에 나지 않고, 그 때부터 천상과 인간에 유전하면서 또 소원을 세우기를 '원컨대 나는 미래세에 항상 이런 스승이나 혹은 이보다 나은 분을 만나고, 만약 그 스승의 설법을 들으면 빨리 증득하고 알게 하소서.' 라고 했던 업보로 인하여 금세에도 이발사 집에 태어났고, 나 세존을 만나 스승을 삼고, 법을 어기지 않고 그 계행을 따르니 계행을 갖춘 제자 가운데 으뜸이 될 것을 수기하는 것이다."

지계 원력

궁중의 이발사로 살아온 우바리에게 그동안 배움의 길이란 남의 머리를 잘라주는 것밖엔 없었다. 학문이나 기예를 닦을 기회란 그에게 없었다. '공부'에 대한 발심을 하게 된 우바리가 하루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저도 아란야(阿蘭若 · 한가롭고 적정한 처소로, 당시 홀로 수행하기 좋은 숲 등을 말함)에 들어가 수행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부처님은 우바리가 아란야에서 수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바리야, 아란야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아직 정심(定心)을 얻지 못한 비구가 홀로 자신을 점검하고 돌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바리 너는 아직 그곳에 머물지 말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우바리는 왜 다른 수행자들에게는 허락된 일이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는지 의아했다. 의아해 하고 있는 우바리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잘 듣거라. 연못에서 코끼리가 즐겁게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귀를 씻기도 하고, 등에 물을 뿌리기도 하면서 참으로 기분 좋게 놀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토끼도 목욕을 하고 싶어져서 코끼리가 떠난 뒤 연못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토끼는 곧 연못에서 뛰쳐나왔다. 그 연못은 토끼에게 너무 깊었기 때문이다. 발이 땅에 닿지 않자 토끼는 겁이 났던 것이다. 우바리야, 너에게 아란야는 너무 깊은 연못이다."

부처님의 생각은 그랬다. 각자 근기에 맞는 수행과 수행처를 찾아야 한다고.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우바리야 너는 대중과 함께 하거라. 대중 속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먼저인 일이다." 부처님은 우바리가 대중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바리는 그런 부처님의 뜻을 받들었고, 대중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계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우바리는 부처님이 율을 제정할 때마다 철저하게 받들고 실천한다. 〈장로게〉에서 전하는 우바리의 게송이다. "신앙에 의해 세속으로부터 떠나 새롭게 출가한 신참의 수행승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청정한 생활을 하는 좋은 친구들과 사귀어야 한다네. 신앙에 의해 세속으로부터 떠나 새롭게 출가한 신참의 수행승은 승가 안에 살면서 총명하게 계율을 배워야 한다네. 신앙에 의해 세속으로부터 떠나 새롭게 출가한 신참의 수행승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마음에 새겨 마음이 산란해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네." 부처님이 우바리에게 대중 속에 머물도록 한 것은 그의 근기를 살핀 것이다.

'천민' 이라는 무거운 신분의 짐을 부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려놓을 수 있었던 우바리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고마운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드는 일을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했다.

계율이란

부처님 십대제자 가운데 우바리 존자만큼 계율에 원력을 세운 제자는 없었다.

계율이란 몸과 입 뜻으로 말미암은 모든 악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에 귀의한 사람이 지켜야 할 행위규범으로, 계(戒)와 율(律)의 복합어다. 원래 범어에서는 계와 율을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하여 왔다. 계는 습관, 관습, 경향 등의 뜻이 있어서 좋은 습관이나 도덕적 행위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인간의 몸과 마음을 조정하는 종교적, 도덕적인 규범을 일컫는다. 곧 불자라면 출가, 재가의 구별 없이 지켜야 할 행위규범인 것이다.

이에 대해 율은 제거, 훈련, 조복 등을 뜻하는 말로, 모든 그릇됨을 여의고 이상적인 세계로 선도해야 할 출가 교단을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규범이다. 따라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출가자를 통제하는 규범으로써 재가자 보다는 출가자를 위한 통제 규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율이란 용어는 수행자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의 측면인 계와 교단 통제를 위한 규범인 율이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율적 규정과 타율적 규정이라는 두 가지 면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초기 교단에서의 계율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 오계(五戒)가 전부였다. 하지만 승단이 커짐으로 인해 계율의 수는 점점 늘어갔다. 새로운 계율이 필요했다는 것은 그 만큼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 둘 새롭게 만들어진 계율은 지금의 비구 250계, 비구니 338계가 됐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바리는 부처님 곁에 늘 머물면서 새로운 계율의 조항을 빠짐없이 기억해 두었던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우바리 존자는

부처님 십대제자의 한 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계율을 철저히 지켜 지계제일로 칭송된다. 산스크리트어 우팔리의 음역으로, 우바리(優婆離) · 우발리(優跋利) · 우파리(優波梨) 등으로도 쓴다. 천민(수드라) 계급에 속했으며 궁중에서 왕족의 이발사였던 그는 석가족 왕자들이 출가할 때 그들을 따라가 출가하게 된다. 당시 철저한 계급으로 신분을 규정하던 인도에서 그는 불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몸소 증명한다. 가르침이나 깨달음을 앞세우기보다는 몸소 실천하는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는 계율을 지키는 일에 원력을 세워, 받들고 지켰다. 부처님 열반 후 결집에서 율을 송출하고 확정하는 큰 역할을 한다.

(그림은 조향숙씨의 석굴암 우바리 판화)

WORLD BUDDHISM LEADER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과 연방승가회의
지원 아래 고승 및 원로 수행 일정을 종교성내
불교대학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께서
역시 그 분이라면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500인 선정 발기 협의회 / 1차 108인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선정
(종사, 대종사 급만 동참 가능)

법하께서도 추진위원회 발기인으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모든 스님 누구나 동참 자격이 있습니다.

심사 후 우선 세계불교와 한국 불교 승가 정화 차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출가 의식을 초발심의
행자로 돌아가 1주일간 종단불문, 법납, 속납 까지 불문하여 남방불교의 연방승가회 스님들의
지도하에 종교성의 불교대학에 입소하여 단기수행을 완료한 스님 중에
우선 108명의 고승 및 원로 큰스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보십시오.
한 평생 부처님의 은덕으로 수행해 온 큰스님들께서 앞장서 후학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신다면 한국 불교사에 새로운 역사와 기운이 샘솟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만이 추대위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성 장관과 불교 수호 지도자협회 우킨쉐이의 박수와 격려속에 구족계 및 품수식도 함께 봉행합니다.
108분의 고승 및 중진 스님들께서 500인 추대위원을 심사 위촉하게 됩니다.

구족계 자격자
1. 구족계 자격 : 한국의 모든 종단소속 비구 스님.
2. 법납이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출가승에 한함.
3. 30명 한정 선착순 접수

종사 대종사 품수식
1. 법납 25년 이상 : 종사
2. 법납 30년 이상 : 대종사
* 1차 서류 심사후 면접 2차 : 심의의원회 최종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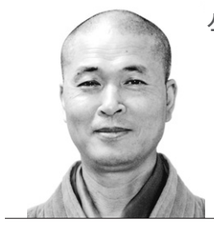
최종 추대되신 큰스님 명단을 불교계 신문에 사진과 함께 공고합니다. (추대 의식 봉행일 추후 발표)

신청기간 : 2012년 12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
출발일시 : 2013년 2월 28일 (음력 정월 19일) 6박 7일간 소승불교 체험 수련 정진

법납, 속납 일체 평등하고 대우 및 예우 일체 없음

구족계 수계자 전원 종교성 불교대학에 입소 구족계 봉행
남방불교 전통의 불명수여. 수행 결사 (위빠사나, 발우공양 예불의식) 체험
일 시 : 2013년 2월 28일 ~ 3월 7일까지 (1주일간) 봉행 행사 이후 한국에서 재 추대행사 계획

미얀마 연방 승가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 鐸 - 慧 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팩스 02)733-5671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오동나무+줄=소리

조주 스님이 신참학승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학승이 말했다. "설봉(雪峰)에서 왔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설봉은 어떤 말로 수행자에게 보이는가?"
학승이 말했다. "화상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전 우주는 사문(沙門:我)의 일척안(一隻眼)이다 자네들은 어디에 똥을 누는가?' 라고."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가 만일 돌아가거든 괭이 한 자루를 가져다주게."

師問新到 離什麽處 云離雪峰 師云 雪峰有什麽言句示人 云和尚尋常道 盡十方世界 是沙門一隻眼 你等諸人向什麽處屙 師云 闍黎若迴 寄箇鍬子去

괭이를 보낸 뜻은 '똥 치우는 자' 라는 뜻이다. 나 또한 조주 스님에게 돌아가는 자가 있으면 빗자루 한 개를 보내겠다.

조주 스님이 옷을 대중에게 순서대로 나누어주었을 때 한 학승이 물었다.
"화상께서 그렇게 모두 나누어주시면 무엇으로 쓰시겠습니까?"
스님이 "호주자(湖州子)야" 하고 불렀다.
학승이 "네"하고 대답하고 스님이 말했다. "무엇으로 쓰는가?"

師因捨衣俵大衆次 僧便問 和尚總捨卻了 用箇什麽去 師召云 湖州子 僧應諾 師云 用箇什麽

기막힌 가르침, 다시 무엇을 더 보탤 것인가. 사람마다 재보를 두는 창고가 있는데 들여다보면 텅 비었으나 써도 써도 끝이 없다.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보였다.
"아직 세계가 없을 때 이미 이 물건이 있었다. 세계가 괴멸될 때도 이 물건은 괴멸되지 않는다."
학승이 물었다. "이 물건이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5온(五蘊)과 4대(四大)이다."
학승이 말했다.
"그것 또한 괴멸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이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4대와 5온이다."

師示衆云 未有世界早有此性 世界壞時此性不壞 僧問如何是此性 師云 五蘊四大 云此猶是壞 如何是此性 師云 四大五蘊

5온은 마음이고 4대는 육체이다. 줄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구멍 뚫린 오동나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동나무 통에 줄을 가지런히 매놓고 퉁기면 소리가 난다. 원래 소리는 있었다. 오동나무와 줄이 만나 그 소리가 났을 뿐이다. 그러면 그 소리는 무엇인가? 오동나무와 줄이다. 혹은 줄과 오동나무이다. 이것이 없으면 소리도 없다.

정주(定州)에 어떤 좌주(座主:강사)가 있었는데 조주 선원으로 찾아왔다. 조주 스님이 물었다. "어떤 학업을 참구하고 계시는지."
좌주가 말했다. "경율론 삼장에 대한 것이라면 남에게 듣지 않더라도 곧 강의할 수 있습니다."
조주 스님은 손을 들어 올려 보이고 물었다.
"이것을 강의할 수 있습니까?"
좌주는 망연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가령 당신이 남에게 듣지 않고 강의할 수 있을 정도라 해도 하나의 경(經)이나 논(論)을 강의(講義)하는 사람 밖에 안돼요. 그렇게 해서는 불법에 들어가지 못해요."
좌주가 말했다. "지금 화상의 말씀이 곧 불법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가령 당신이 물을 수도 있고 대답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경이나 논에 속하는 것이오. 불법에 있는 것이 아니오."
좌주는 말이 없었다.

定州有一座主到 師問 習何業 云經律論不聽便講 師擧手示之 還講得者箇麽 座主茫然不知 師云 直饒你不聽便講得也 只是箇講經論漢 若是佛法未在 云和尚即今語話莫便是佛法否 師云 直饒你問得答得 總屬經論 佛法未在主無語

불법은 경과 논 속에 없다. 그 속에 있다면 조주 선사가 손을 들은 뜻을 알았을 것이다. 좌주는 경론 속에 들어갔을 뿐 불법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 〈42〉

번뇌-⑥ 수번뇌(隨煩惱)

여섯가지 근본 번뇌에 종속된 '번뇌'

번뇌에는 탐(貪)·진(瞋)·치(癡)·만(慢)·의(疑)·악견(惡見)의 여섯 가지 근본번뇌와 그 근본번뇌를 따라 일어나는 수번뇌(隨煩惱)가 있다. 수번뇌의 번뇌를 혹(惑)자로 대체해 수혹(隨惑)이라고도 하고 근본번뇌에 종속된 부수적인 번뇌라는 의미로 지말혹(枝末惑) 또는 지말번뇌(枝末煩惱)라고도 한다. 한편으로는 근본번뇌를 세분화한 마음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번뇌를 일컫기도 한다. 이러한 수번뇌는 초기불교에 이어 불교를 교학적으로 연구한 시대인 아비달마 시대에 이르러 대번뇌지법(大煩惱地法) 다섯 가지와 대불선지법(大不善地法) 두 가지 그리고 소번뇌지법(小煩惱地法) 열 가지와 부정지법(不定地法) 두 가지의 열아홉 가지로 나뉘었다가 아비달마의 교학불교를 철학적으로 해석한 학파의 하나인 유식불교에 이르러 다시 스무 가지로 재분류된다.

유식학파는 이 스무 가지의 수번뇌를 번뇌의 정도에 따라 크게 대수번뇌(大隨煩惱)와 중수번뇌(中隨煩惱) 그리고 소수번뇌(小隨煩惱)로 구분했다. 이중에 대수번뇌는 청정하지 않고 더러워진 마음 중에 선하지 않은 마음[不善]과 업에 의해 나쁘게 물들어 있는 마음[有覆] 이 항상 있는 번뇌를 말한다. 중수번뇌는 올바르지도 청정하지도 않으며 진리를 따르지 않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을 말하고 소수번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 일어나는 번뇌를 말한다.

대수번뇌에는 방일(放逸)·해태(懈怠)·불신(不信)·혼침(昏沈)·도거(掉擧)·실념(失念)·산란(散亂)·부정지(不正知)의 여덟 가지가 있다. 이 중에 방일은 제멋대로의 마음으로 계율이나 바른 질서를 지키지 않고 방종한 것을 말한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는 선근(善根)을 닦지 않아 더러움을 막지 못하고 청정함을 지키지 못한다.

해태(懈怠)는 정진(精進)의 반대말로 일종의 게으름을 말한다. 악(惡)은 막고 선(善)은 행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열심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게으름은 무상을 자각함으로써 치유할 수 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는 것이야 말로 미래를 선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불신(不信)은 진리에 대해 믿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여 불·법·승 삼보(三寶)를 하찮게 여기고 부처님의 깨달음과 자신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진리를 듣고 사유하고 수행함에 따라 점점 더 확고해 질 수 있다.

혼침(昏沈)은 마음이 가라앉아 우울한 상태를 말한다. 어둡고 침울한 이 상태는 대상을 명확하게 변별하지 못한다. 예컨대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 방안에 무엇이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밝고 평온한 마음으로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

도거(掉擧)는 혼침과 반대로 마음이 들떠서 침착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고요하고 평온하지 못한 이 상태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선정에 장애가 된다. 우울증과 같은 혼침과 더불어 조증과 같은 도거는 모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실념(失念)은 바른 법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바른 법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다기 보다는 주의집중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팔정도의 정념(正念)과 반대되는 의미를 갖는다.

산란(散亂)은 대상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말한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여 어지럽기 때문에 깊은 정신통일의 수행을 의미하는 팔정도의 정정(正定)을 닦는데 방해가 된다.

부정지(不正知)는 중도에 기반 해 사성제를 바로 아는 바른 견해와 반대되는 의미로 대상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身口意三業]가 바르지 못함으로써 그로 인해 파생된 잘못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㊼

나는 왕위같은 것으로 만족하고 싶지 않다 나는 1만세계를 울리는 부처가 될 것이다

〈인연이야기(니다나 카타)〉

끝없이 갈라지는 앞길. 한길(一路)은 얼마나 될까? 한길이다 싶으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갈림길(岐路). 우린 늘 이 갈라지는 길 앞에서 방황한다. 동시에 그 두 길을 다 가고 싶지만, 그것은 욕심이다. 그럴 수 없다.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분은 언제나 선택 앞에서 당당했다. 인정사정 볼 것도 없었다. 언제나 한결같이, 일호(一毫)의 머뭇거림도 없다. 단칼에 베고 만다. 가히 선적(禪的) 기백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본다면, 1만 세계를 울리는 부처보다도 왕위를 선택할 사람이 적지 않을 터인데…. 그분은 일도양단(一刀兩斷), 부처를 선택했다.

우리가 늘 갈림길을 앞에 두고 멈추어 서듯이, 그분 역시 언제나 왕의 길과 부처의 길을 앞에 두고서 멈추어 섰다. 아니, "멈춰, 그리고 선택해"라는 말을 듣는다. 이 두 길은 늘 함께 따라다녔다. 그가 처음 태어났을 때, "세속에 있으면 왕이 될 것이고, 출가하면 부처가 될 것이라"했다.

8만명의 친척들이 모여서 하는 말 역시 그랬다.

"그 분이 부처가 되시거나 혹은 왕이 되시거나 우리들 아이 한 명씩을 바치기로 하자."(이미령 옮김, 〈붓다의 과거세 이야기〉, 민족사, p.125쪽).

열반에 즈음해서, 부처님께서도 친히 "전륜성왕(轉輪聖王)의 예법에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언제나 부처와 전륜성왕은 함께 이야기됐다.

지금도 그렇다. 선택지는 둘이다. 하나는 왕의 길, 그것도 이상적인 왕으로 추앙받는 전륜성왕이 되는 길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상황이다. 막, 출가하려는 순간이다. 누군가 그를 막아선다.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이다.

"젊은이여! 나가서는 안 되오. 그대에게는 지금부터 7일째 되는 날에 윤보(輪寶)가 나타날 것이오. 그리되면 그대는 2천 군도에 둘러싸인 4대륙의 왕이 될 것이오. 젊은이여! 돌아가시오."

윤보는 전륜성왕이 지니고 있어야 할 무기이다. 그러니까 곧 전륜성왕이 될 터이니, 출가를 단념하고 돌아가라는 말이다. 그 어르신은 도대체 누군데, 감히 이런 말을 하고 나서는 것일까? "악마 중에서도 가장 힘있는 자 마왕(魔王)이라" 되어 있다. 불교문학에서는 '악마'의 정체를 부처님 마음 속 갈등의 상징으로 이해한다. 그렇게 본다면, 부처님 역시 막상 출가하는 그 순간 갈등이 없지도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갈등상황을 재빨리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이 출가이다.

그런데 이렇게 언제나 왕의 길(rāja-dharma)과 부처의 길, 즉 해탈의 길(mokṣa-dharma)을 함께 제시하는 것은 바로 바라문교 전통이었다. 바라문교(뒷날의 힌두교)에서는 이 두 길을 다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왕으로 태어났다면(즉 크샤트리아 계급이라면) 당연히 먼저 왕으로서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일을 다한 뒤에, 말년에 은퇴하여서 해탈을 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아예



그림 · 박구원

법전이 있다. 그러니까 왕의 길을 가면서 왕의 의무를 다하는 기간이 가주기(家住期, gṛhastha)인 것이다.

가주기의 의무를 다하고 난 뒤에 숲속으로 들어가서 해탈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바라문교의 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의 출가는, 바로 그렇게 왕의 길을 가야 하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가주기를 건너뛰었음을 알 수 있다. 출가, 그것은 집(house)이나 가정(home)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주기를 건너뛰는 것을 말한다. 아니,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회체제를 거부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불교의 출가는 반체제(反體制)였으며, 스님들은 다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로부터, 중국에서는 유교로부터 불교가 억압을 받게 된 까닭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불자님들 스스로, 가정에서 건강 지키기 위한
전통 뜸,침술,한약 대특강

『동양의학방송국』이사장이신 덕운스님께서 중생구제를 위한 일환으로 불자님들에게 건강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동양의학을 처음 접하는 분이나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에게 동양의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2년 12월 19일 (3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 장 소 : 동양의학방송국 대강당(서울 서초구 방배 2동 467-3호 2층)
▣ 강의일정
▶오후 2시 ~ 4시 : 한방약초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한약차 및 한약재 강의)
▶오후 4시 ~ 6시 : 불가에서 내려오는 응급 상용 침술법
(중풍, 두통, 체기, 위장장애 등등)
▣ 접수인원 : 선착순 20명(수강인원 초과시 조기 마감)
▣ 회 비 : 각 과목당 월 15만원(불교인 30%할인)
▣ 문 의 : 02)3487-2311

강사약력
• 덕운 스님 법계 : 대덕 / 중국 한의사
• 박정아 한약사
한의학 석사. 의과학 박사 / (사)대한한약사회 여한약사회장 / 저서 한방차 다이어트

불교전문강원 학인 모집

각 종단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불교강원을 개설합니다.

경전과목
◆ 사집반
◆ 초발심자경문 (원효스님 발심장 부문)
◆ 치문, 도서, 선요
※ 특강 : 선문 촬요, 금강경

대 상 각종 종교단체 스님 또는 스님이 되고자 하는 분으로 성별에 제한없이 누구나 수강 가능

강 사 도열스님
(통도사 강원, 월정사 강원, 마곡사 강원, 강주 역임. 범어사 중강 역임)

불교의식 예불, 대령관욕, 관음시식, 다비식 등

강의시간 매주 화, 목, 일에 강의

※스님이 되셨으나 한문으로 된 불교경전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스님들을 위하여 종단을 초월한 교육원으로써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 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금정산 금륜사 불교전문 강원
문의 055)383-5830, 055)383-7009 / 011-556-5830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1036-1번지

설법 · 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종 합 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연수안내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8시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강사소개
[설법연수원 회장 우불 김 철 회 박사]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최면시술사
40년 노하우를 지닌 우불 김철회 박사 특별지도
[설법연수원 원장 처 명(선광)]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동방불교대학 졸업
서울 남부구치소 교정(종교)위원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한 국 설 법 연 수 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서방 정토가 여기인줄 모르고…"

추사가 초의 스님에게 보낸 짧은 편지 글에는 그들이 나눈 진솔한 우정 이외에도 초의와 관련된 직간접 정보를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여초의(與草衣)〉4신(信)이 바로 그런 편지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초의가 지리산 칠불암에서 금담스님(1765~1848)에게 서상수계를 받은 후, 추사에게 '칠불(七佛)' 이란 현판 글씨를 부탁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 추사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截然阻久 禪味世趣較長爭短 未知何居 但是心事白雲而已 無有念及於江上臭塵歟 俗人每不能斷送舊日想 其牽纏可惡 亦不得不如是耳 頃託七佛扁書 尚未入量 祖師像本 才擬移拳拳完當付 送而如大隱躬來取去則 又有他件件好事 試使圖之也 師輩心心念念在西天 竟不知西天之在此 旁求外覓 南鶖北走 良可嘆可咄 二扇寄去 病枕艱草 不式



〈여초의(與草衣)〉4신(信)

확연히 갈라놓은 듯, 소식이 막힌 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선미와 세상맛의 길고 짧음을 비교하면 어느 곳이 나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속이 백운처럼 자유로울 뿐이니 (스님의) 생각은 江上의 티끌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인가요. 나는 매양 옛날 보냈던 마음을 끊을 수 없으니 그 끌리고 얽힘이 싫어지기도 합니다만 또한 이와 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七佛' 현판 글씨를 부탁했는데 아직 어찌해야할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조사의 상은 겨우 성의를 다해 본을 떠 다 그리면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은 스님이 친히 와서 가져간다면 또한 다른 것도 좋을 일이니 도모해 보십시오. 그대들은 마음과 생각이 서방정토에 있으면서도 마침내 서방정토가 여기인 줄도 모르고, 결에서 구하고 밖에서 찾으니 남쪽의 오리가 북쪽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로 탄식할 만하고 애석합니다. 부채 두 자루를 보냅니다. 병으로 간신히 적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초의 '七佛' 현판 글씨 부탁
조사상 그림 진표율사 아닐까

추사의 이 편지는 대략 1828년 이후에 초의에게 보내진 것으로, 부채 두 자루를 보낸다는 사실을 통해 5월 단오를 전 후해 쓴 것이라 추정되는데 초의는 왜 추사에게 '칠불(七佛)' 이란 현판 글씨와 조사의 상까지 그려달라고 청했던 것일까. 추사가 말했듯이 '옛날 보냈던 마음을 끊을 수 없었던' 사이가 이들의 우정이었다. 초의의 걸림이 없는 마음이야 '백운처럼 자유로울 뿐이니 강상에 사는 나(추사)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인가' 라는 투정어린 해학은 무봉(無縫)의 유쾌함이 묻어난다. '칠불' 현판 글씨를 부탁했는데, 아직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 는 추사의 뜻은 조심스럽게 부탁한 초의의 마음이나 추사의 진중함이 함께 드러나는 대목이라 하겠다.

특히 초의에게 서상수계를 이어 준 대은 스님(1780~1841)에 대한 추사의 언급이 주목된다. 대은은 도갑사 스님으로, 1826년 7월 15일 해제 후, 스승 금담과 칠불암 아자방에서 서원수계를 하고, 7일간 기도하던 중, 그의 정수리로 상서로운 빛이 쏟아졌던 인물, 스승 금담장로는 이를 목격한 후, 그를 전법사로 삼아 보살계와 비구계를 받는 용단을 내린다. 이로부터 환성 스님(1664~1729)이후 끊어진 율맥은 대은-금담-초의로 이어졌다. 실제 초의가 칠불암에 간 사실은 〈다신전〉 후발에 '무자(1828)년 곡우절, 방장산칠불아원에 스승을 따라갔다가' 라고 한 사실을 통해 확인된다. 당시 그는 이곳에서 〈만보전서〉를 등초하여 차의 이론을 정립하는 초석을 다졌다. 후일 그가 '초의차' 의 완성이나 〈동다송〉의 이론적 배경은 이로부터 구축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율학의 조사 상을 추사에게 부탁한 것이 눈에 띈다. 한국 불교의 자서수계 전통이 진표율사에 의해 확산되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초의가 부탁한 조사상이란 진표율사를 이르는 것은 아닐까. 더구나 추사는 대은 스님이 직접 와 조사 상 초본을 가져가길 원하는 한편 다른 일도 좋을 것이란다. 진정 좋을 일이란 무엇이었을까.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www.msjy.co.kr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1사찰 1어린이집 불교미래 바꿉니다"

새싹들의 벗 30년 자용 스님(평창 극락사 주지)

"어린이 포교는 우리 불교의 미래입니다. 출가자들이 감소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장기적인 어린이 포교를 통해서 불자를 양성하고 또 이들이 불교계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단기적인 것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포교는 관심 밖의 사안이 돼 버렸는지 모르죠. 진정 불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1사찰 1어린이집 · 유치원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11월 28일 마포에서 평창 극락사 주지 자용 스님을 만났다. 극락사 연화 유치원, 중앙승가대 부설 보육교사교육원장, BBS '룸비니 동산' MC 등을 맡으며 어린이 포교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자용 스님. 30년 동안 어린이 포교를 통해 새싹 불자를 길러내고 있는 스님은 불교계 불모지라 불리는 어린이 포교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어린이 법회를 만나다

선방 수행자로 살겠다며 출가한 스님의 진로가 바뀐 것은 83년 서울 관음사 어린이 법회를 우연히 맡고 나서부터다. "당시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즈음 前 총무원장이셨던 석주 스님께서 우리 불교도 인재 양성을 위해 어린이 포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실 때라 한창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붐을 일으킬 때였죠. 저는 우연히 대타로 어린이 법회를 지도하게 됐는데 반응이 컸어요. 저도 아이들의 순수하고 맑은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조계사, 약수암, 관음사, 수국사, 청수암 등 어린이 법회 지도법사를 맡게 됐어요. 특히 수국사 어린이 법회는 150명 정도가 모일 정도로 호응이 대단했죠"

이런 스님의 포교 능력이 꽃을 피운 것은 여수여천 불교포교원에서 어린이법회를 창립하면서부터다. 스님은 어린이법회 창단을 제안 받고 여수로 내려가게 된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애들이 많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법요집을 150권 정도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400명의 아이들이 모인 겨예요. 그렇게 매 주마다 500여 명의 아이들이 법회에 참여하면서 성황을 이루었죠"

스님은 이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이들이 법회에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 특히 매주 포교상을 선정, 친구를 데리고 오면 문화상품권 등 상을 주니 아이들은 법회오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매주 500 명의 학생들이 법회로 몰려들었고 자용 스님의 어린이 · 청소년 법회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계기가 된다.

이후 스님은 법회를 나온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해 주목을 받았다.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면 중고등학생들이 독서실로 와요. 그러면 간식을 먹이고 새벽 2시까지 공부를 시키고 5시에서 깨워 집에가서 옷갈아 입고 학교에 가도록했어요. 평균 30~40명이 독서실에 항상 입주할 수 있도록 했죠. 이렇게 하니 법회를 나오는 학생들이 1천 여명에 이를 정도로 호응이 컸어요. 3년을 애들과 동고동락했어요. 딱 3년을 그렇게 애들을 돌봐주고 고3들이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는 날 그곳을 떠났죠"

이후 스님은 전주에서 전북 불교 회관 상임 지도 법사 소임을 맡게 된다. 그렇게 그곳에서 2년 여 시간을 보내고 92년 경 월정사 말사인 평창 극락사 연화유치원의 운영을 제안 받게 된다. 전라도에서 강원도까지 멀고도 먼 길을 찾아간 스님은 극락사에 당도하고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작은 공간에 11명의 원생들이 전부인 유치원은 낡은 시설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연화유치원의 기적

"한국전쟁 이후에나 세워졌을 법한 낡은 건물이었어요. 특히 재래식 화장실에 아이 하나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어 교회나 천주교로 아이들이 다 흩어진 상태였죠.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포교가 가능할까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양을 했지요. 하지만 월정사 쪽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했어요. 두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했죠. 애들 한 명이 백명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가르치자고 결심을 했죠. 이 모두가 수행이라 생각하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스님은 불사를 새롭게 시작했다. 잠잘 곳이 없어 절 아래 마을에 방을 하나 얻어 유치원 건물을 뜯어 고치고 원생을 모집했다. 그렇게 처음으로 34명의 원생을 받았고 1년 동안 식단 개선, 교사 교육 등을 통해 연화유치원은 새롭게 태어난다.

이렇게 첫 졸업생을 배출시키자 다음 해 원아 모집에서 80명 정원을 모두 채우게 되는 것은 물론 대기자까지 생기기 시작했다. 공사를 했지만 좁은 건물에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겠다는 발원이 생긴 것이다.

"도저히 유치원을 다시 설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가설계를 해보니 8억 정도의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어 2층 짜리 건물을 짓게 돼었요. 그리고 100여명의 정원을 받게 됐죠. 여기에 원생들이 모이면서 대기자가 생기게 되고 30 명의 원생을 더 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됐어요"

스님의 포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유치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다시 초중고 법회로 이어지면서 연화유치원이 있는 극락사는 아이들로 북적이게 된다. 그래서 지금도 극락사는 학생들이 목탁치고 피아노치고 천수경 독송하며 자체 법회를 운영할 수 있는 사찰이 되었다. 스님은 졸업생들의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지역 인재를 키워내는 요람이 바로 연화 유치원이라고

83년부터 어린이법회 법사로 활약
여수 여천포교원 어린이법회 창립
독서실 운영 등 1천여명 학생 지도

평창 극락사 연화 유치원 운영 맡아
11명 원생에서 대기자 생길 정도
"지역인재 키우는 요람… 뿌듯해요"

BBS '룸비니동산' MC 20년 활동
불교 어린이합창단 창단이 새 서원

스님은 말한다.

"평창에서 태어나 연화 유치원을 나온 학생들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지역 평창고등학교를 거쳐 명문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연화 유치원은 인재를 양성하는 유치원이라는 평이 날 정도로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 연화 유치원은 지역에서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유치원이 됐고 자연스럽게 젊은 학부형들이 절에 오면서 새롭게 신도층을 형성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스님은 이 모두가 장시간 투자를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교육료가 싸다는 이유로 병설 유치원을 보내려고 해요. 저희는 조금 어렵더라도 병설 유치원 수준에 맞춰교육료를 책정했어요. 또한 졸업 이후에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같은 조건이면 부모들이 저희 유치원에 원생들을 보내려고 해요"

어린이 포교는 미래다

스님은 불교방송 어린이 프로그램 '룸비니 동산' MC로도 유명하다. 매일 오후 5시 40분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해주는 스님의 방송은 불교방송의 대표 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년 진행기간 동안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2회 한국프로듀서상 라디오진행상 등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영광 뒤에는 아픈 추억도 하나 있



1989년 5월 수국사 부처님오신날 청소년 법회 어린이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자용 스님은 … 1986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중앙승가대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했다. 현재 평창 극락사 주지 및 관인부설 연화유치원 원장, 중앙승가대 부설 보육교사 교육원 원장, BBS 룸비니 동산 MC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은 11월 28일 BBS '룸비니 동산'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다. 바로 스님의 방송이 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제작비 등의 문제로 방송이 중단되기도 했죠. 출연료를 안 받고 출연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아요. 이후 6개월 만에 방송 성격을 바꿔서 다시 복귀를 했죠. 현재 방송이 20분 밖에 안 나가요. 제 소원은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을 단 10분이라도 더 늘려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좀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불교 어린이합창단을 만드는 것이 원이라고 말하는 스님은 BBS 찬불동요제를 개최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직접 창작곡을 가지고 동요제를 하는 곳이 불교계 내에서는 흔치 않잖아요. 처음에는 큰 호응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올해로 3회째를 맞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죠. 앞으로 어린이합창단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에요. 이웃 종교는 어린이 합창단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린이합창단이 생기면 아이들의 자부심도 커지고 또 이것이 포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님이 가장 보람될 때는 자신이 가르친 아이들이 성장해 찾아올 때라고 말한다. 또 우연히 불교 행사에서 자신의 제자와 마주칠 때면 그보다 더 보람될 때가 없다고 말한다.

"보통 우리네 스님들이 어린이 · 청소년 포교를 꺼리는 이유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어린이 포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불자로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 그것만큼 뿌듯한 때가 없어요. 한 예로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하고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애기를 업고 저희 절 여름불교학교 지도자로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이죠. 그런 제자들을 볼 때마다 그저 뿌듯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의 어린이포교 현실은 점점 어두워지고만 있다. 불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그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불자들의 관심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서울 내에 불교 유치원이 10개가 안 됩니다. 또 25개 교구본사 중에 유치원을 운영하는 교구본사도 10곳이 안돼요. 이처럼 어린이 포교는 모두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죠. 국가에서 교육 관련 예산이 있지만 대부분이 이웃 종교 교육시설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교육시설이 생긴다면 그만큼 불자들의 교육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는건데 우리는 이를 모두 놓치고 있어요. 무엇보다 불교 유치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불교적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우울한 현실은 스님이 현재 교육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승가대 부설 보육교사 교육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시설은 불교계 유일의 전문 보육교사 시설이에요. 그런데 1년에 5000만원 예산 책정이 되어 있지만 이게 제대로 지급이 안 돼요. 중앙에 아무리 호소를 해도 운영이 안 되면 문을 닫으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하지만 절대로 문을 닫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문을 닫는다면 더 이상 불교계 보육교사 전문 기관은 생기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곳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제 의지입니다"

스님은 줄가자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매진해 미래불자를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젊은 불자가 없는데 출가자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인 1사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생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찰 유치원을 다닌다면 이 아이들이 불교를 이끌 인재가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스님은 가끔씩 로또 복권을 산다고 한다. 수행자인 스님이 왜 로또를 살까? 그것은 바로 어린이 포교를 위해 써야 할 곳이 많기 때문이다. 스님은 "늘 해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어린이 청소년 포교예요. 이를 통해 길러진 아이들이 공무원도 되고 선생님도 되면 이것이 또 불교 발전으로 이어지는 길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스님인 제가 로또 사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당첨만 되면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위해 우리 불교를 위해 쓰는 일이니까요"

진정한 포교는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스님은 오늘도 새싹 포교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무명 시절부터 극락사 학생들을 무료로 지도해 왔던 개그맨 이수근 씨는 지금도 평창 극락사의 신도로 활동하고 있다.

전법일기

스님은 여자를 너무 모르세요

진 보살의 쓴소리

수덕사에 출가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도량에서 울력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함께 온 젊은 보살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어왔다. "저~ 혹시 대불련(대학생불교연합회)활동을 하지 않으셨나요?" "아~ 네, 그런데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보살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얼굴이었다. 자신도 대전에서 대불련 활동을 했는데 전국연합수련회 때 본 기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렇게 잠시 인사를 나누고 초심출가자로서의 형편도 그렇고 어머니와 함께 온 그 보살님의 여건도 그렇고 해서 간략하게 대화를 정리하였다.

지역은 다르지만 대학시절 같이 불교활동을 했다는 것이 인연이 되어 수덕사 인근인 홍성이 고향이었던 진 보살은 그렇게 나와의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였다.

대학시절에 열성적으로 불교활동을 하던 대부분의 법우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불교와의 인연이 멀어지곤 했다. 거의가 동문모임을 만들어 옛 시절을 추억하며 인간관계를 유지할 뿐 사찰에 신도로 등록해서 신행활동을 하거나 법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런 상황을 익히 아는 내게 신도로서 어머니와 함께 절에 꾸준하게 다니는 진 보살은 매우 특별한 느낌을 주었다.

대불련 이후에도 당당하고 성실한 불자로서 법회와 기도에 참석하는 모범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이후 내가 해인사 승가대학에 갔을 때와 진 보살의 남편이 지방에 멀리 직장을 얻었을 때 등 수년씩 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10여 년 전 부석사 주지소임을 맡으면서 다시 가까운 인연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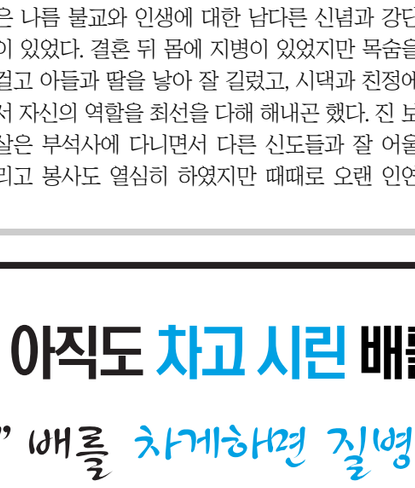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대불련 시절 도반 인연 지속돼

여성신도 마음 몰라준다며 충고

女心 알아주는 스님 되고자 노력

작은 체구에 두드러지지 않는 외모의 진 보살은 나름 불교와 인생에 대한 남다른 신념과 강단이 있었다. 결혼 뒤 몸에 지병이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아들과 딸을 낳아 잘 길렀고, 시댁과 친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해내곤 했다. 진 보살은 부석사에 다니면서 다른 신도들과 잘 어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였지만 때때로 오랜 인연을 가진 주지를 향한 쓴 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어느 날 진 보살이 불만스러운 말을 쏟아 놓았다. "스님은 여자를 너무 몰라요. 그렇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뜬금없이 무슨 말이예요?" "아니~ 주지를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 여자인 신도들의 마음을 너무 모르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신도들의 마음을 모르나요?" "아니, 여자의 마음을 모른다니까요!"

사연인즉, 신도들의 다양한 요구와 불만을 잘 알아주지 않는 주지의 무심한 태도를 흉보다가 자신이 대표로 말을 전하러 온 것이었다. "아이구, 그렇습니까. 제가 앞으로는 여성들, 신도님들 마음을 잘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좋은 주지가 되려고 여성과 신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잘 맞춰보려고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스님은 여자를 모른다.'는 불만을 쉽게 떨칠 수가 없었다.

요즘은 가끔 신도들로부터 "우리 스님은 결혼도 안 해봤는데, 어쩜 그렇게 여자들 속을 잘 아신대요"라는 말을 듣곤 한다. 진보살의 충고가 이제야 효과를 보는 듯하다.

때로는 학창시절의 좋은 법우였고, 때로는 기도와 불사에 흔연히 참여하는 신심 깊은 신도였으며, 한 번씩 가슴이 서늘한 충고도 마다하지 않던 진 보살은 초임주지의 어려움을 도와준 진정한 호법보살이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주지)

건강백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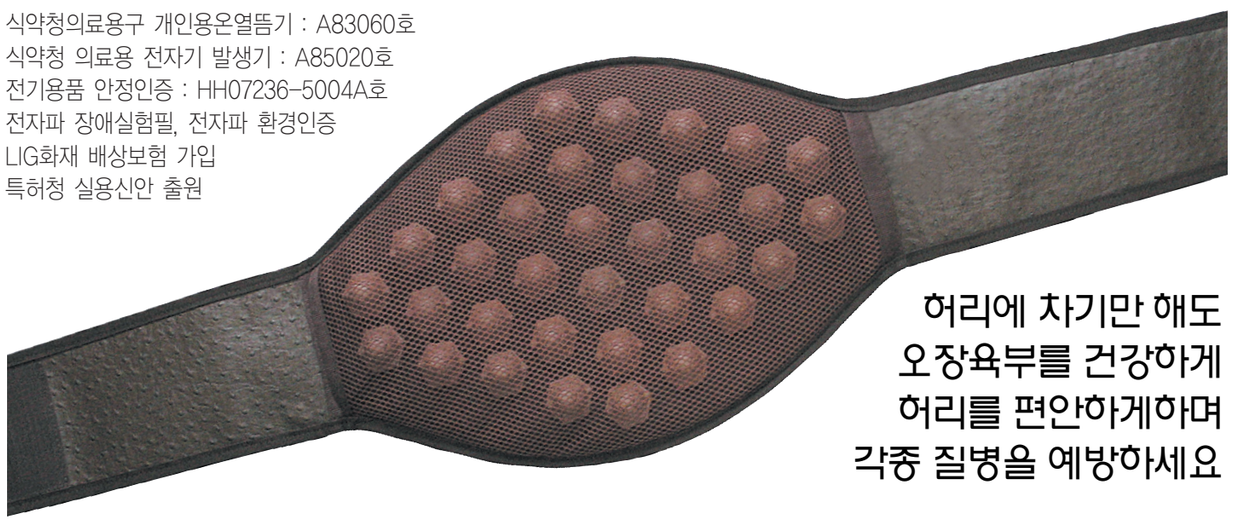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KFDA 의료용구제조업 허가번호 제1099호 | KETI 전기용품안전인증 | EMI 참여 | LIG 화재 배상보험가입 | 실용신안등록 특허청 | ISO 9001 획득 HQC-2115호 한국생산성본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라다크, 불교와 이슬람교 갈등 골 깊어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저술 〈오래된 미래(Ancient Futures: Learning from Ladakh)〉로 세상에 소개된 라다크. '작은 티베트(Little Tibet)' '마지막 낙원'으로 주목받던 이곳에서 불교와 이슬람교 간의 불협화음이 심상치 않다.

인도 영자 매체 '더 파이어니어(The Pioneer)' 지는 11월 23일 "지난달 잔스칼(Zanskar) 시에서 불교도 28명이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과정에서, 양측 종교인들의 물리적 마찰이 빚어진 것을 비롯해 라다크 지역 도시에서 불교와 이슬람교 간의 대립각이 날카롭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불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은 5개의 웅장한 이슬람교 사원이 세워진 레(Leh) 시장 거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곳의 불교도 수는 이슬람교도 수보다 많지만, 사원의 규모는 이슬람교 사원이 불교 사원보도 더욱 크다.

이에 대해 "마치 과시를 하는 듯하다"고 반감을 드러낸 티서링 남갈(65 · 교사) 불자는 "라다크 지역에서 초기 이슬람교 사원은 소규모에 외형도 불교 사원과 흡사했는데, 최근 10년 사이 이슬람 양식 특유의 돔과 뾰쪽한 탑으로 단장되기 시작했다"며 "최근 개축한 자미아(Jamia) 사원은 전형적인 이슬람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 시장 거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린첸(Rinchen · 불교도) 씨는 "이곳에서 10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칼길(Kargil) 시장 거리에서는 나자브(Najaf)를 앞세운 상점 입간판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이슬람교도 지역 주민들이 이 곳을 '이슬람 세계'로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목했다.





라다크의 레(Leh)에서 열린 달라이라마 법회에 많은 불자들이 모였다.(사진 왼쪽) 레 거리 풍경. 불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은 5개의 이슬람교 사원이 세워진 레(Leh) 시장 거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곳의 불교도 수는 이슬람교도 수보다 많지만, 사원의 규모는 이슬람교 사원이 불교 사원보도 더욱 크다.

40년간 불교도 7.96% 줄어
라다크佛연합, 라다크 독립 주장

'나자브'는 이라크의 성도(聖都) 'Najaf'에서 따온 것이다.

히말라야 산악 지역은 본래 티베트 불교의 영향권이었다. 그런데 14세기 무렵 이슬람 상인들이 유입되고 티베트인과 혈연관계를 맺으면서 이슬람교가 싹트기 시작했다. 또한 5대 달라이 라마 '아왕 롭상 갸쵸'(1617-1682)가 이슬람교를 인정하면서,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1959년 전후로 라다크 지역에는 약 3000여 명의 티베트계 이슬람교도가 살고 있었고, 양측 종교 기념일을 경건하게 보내는 등 양측 종교계는 조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러나 '더 파이어니어(The Pioneer)' 지에 따르면,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양측의 신성을 모독해 유혈 사태를 빚는 가하면, 정부군이 개입하고서야 대립각이 잦아드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이에 대해 쿠마르(B. B. Kumar) 교수(Institute of Central Asia and Tibet)는 "파키스탄, 중국, 인도 간의 영토 분쟁이 불거진 지금, 라다크에서 불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평가하고, "라다크불교연합(Ladakh Buddhist Association, 이하 LBA)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마르 교수는 1960년대 후반 레(Leh)에서 143킬로미터 떨어진 쿡쇼(Kuksho)를 방문했던 때의 조사 결과와 지금의 조사 결과를 비교한 최근 논문에서 "1967년 이 곳에는 45가구가 살고 있었다. 이중 7가구가 불교도였고, 이슬람교는 1가구에 불과했다. 나머지 37가구는 두 종교가 혼재했고, 이들 가구의 남성은 라임 트서링(Rahim Tsering), 알리 타쉬(Ali Tashi), 남갈 무사(Namgyal Musa) 등과 같이 불교와 이슬람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여성은 불교식 이름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서 혼재된 가구는 찾을 수 없고, 그 비율도 불교 24가구이슬람교 20가구로 조사됐다. 상대방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쿠마르 교수는 논문에서 "최근 라다크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40년 전과 비교해 불교 인구는 7.96%가 줄었다"고 전제하고, "이는 이슬람 원리주의인 와하비즘(Wahhabism)이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LBA는 히말라야 북부 산악 지역에서 종교적, 정치적으로 불교계를 대변하고 있는 단체로, 이들은 라다크 지역의 도시들이 잠무카슈미르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전투에 지친 영국군…불교서 편안함 찾아

구르카 용병들에 불교 인기, 영국인은 불교로 개종도

영국군의 선두에서 용맹을 떨쳐온 구르카 용병들에게 불교가 특별한 인기를 끌고 있다.

스리랑카 언론인 더 선데이 타임즈(The Sunday Times)는 최근 "불교수행을 하는 구르카 용병은 여군을 포함해 2005년 200명에서 최근 3800명까지 늘었다. 2800명은 불교신자인 네팔의 구르카(Gurkha) 부족이며 1000명은 영국인"이라고 보도했다.

구르카 용병은 1815년 영국이 네팔을 점령할 때 가장 맹렬하게 맞서 싸운 구르카 부족 전사들 중 일부 포로를 동인도회사의 사병으로 채용한 것이 시초다.

이후 구르카 용병은 홍콩 · 말레이시아 · 키프로스 · 코소보 등 주요 전장에서 영국군으로 싸웠으며, 2차 세계대전 때는 20만 명이 참전해 4만 3000명이 전사하기도 했다. 지금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3500여 명이 복무중이다. 전통 무기인 쿠크리 단검을 사용하는 이들의 용맹함은 정평이 나 있다. "비겁한 겁쟁이가 되느니 죽는 게 낫다"는 게 구르카 부대의 좌우명이다.

선데이타임즈는 영국인이 구르카용병에 입대한 후 불교로 개종한 이유에 주목하고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불교가 군생활에서 느끼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수닐 카리야카라와나(Sunil Kariyakarawana) 군법사는 "병사들은 전쟁터로 나가 싸워야 한다. 이것이 군대가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된 곳임을 뜻한다"며 "사람들은 정신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들 만의 방식으로 불교수행을 해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수닐 법사는 "불교는 사물들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는다. 2500년 전 부처님은 '종종 최악의 상황일 경우 전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무력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구르카 용병들 사이에서 불교가 활성화 된 까닭은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자원한 이유도 있다.

부대 내에서 다양한 군대문화를 조율하는 피터 스트레딩(Peter Straddings) 중령은 "25년간 군복무를 하며 지켜본 결과 오늘날 영국군대의 25%는 더 이상 앵글로색슨족도, 백인도, 개신교신자도 아니다"며 "월드컵과 올림픽에 다문화인종이 출전해 선전 하는 것처럼 구르카 용병들도 영국 육 · 해 · 공군을 통틀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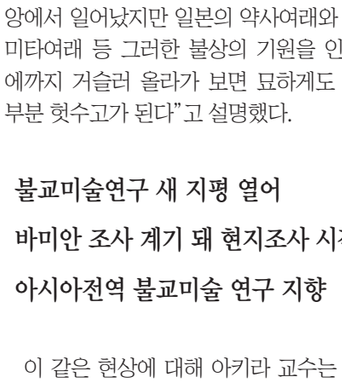
구르카 용병의 장교로 복무한 영국의 해리왕자(가운데)와 구르카 병사들

보도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최근 군대를 지원하는 소수민족이 늘어나면서 2005년 불교와 힌두교 무슬림교 및 시크교 법사들을 처음으로 군부대에 임명했다. **이나은 기자**

현지조사 바탕으로 불교미술연구

세계의 불교학자(42)

미야지 아키라 日 용곡대 교수



미야지 아키라(宮治昭) 일본 용곡대 불교학과 교수는 철저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불교 · 역사 · 철학 · 민속 · 건축학 등 인접학문을 끌어들여 미술사 연구에 새 지평을 연 세계적 권위자로 꼽힌다.

아키라 교수는 인도 및 중앙아시아를 주 무대로 철저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해왔다. 특히 작품과 그것을 둘러싼 역사적 · 사회적 · 사상적 · 풍토적 환경을 이해하면서 작품의 특질과 작품세계를 밝혀내려고 한다.

아키라 교수는 1945년 시즈오카현 누마즈시에서 태어났다. 1968년 나고야대학 문학부(미학미술사전공)를 졸업하고, 1972년 동대학원에서 인도철학을 전공했다.

그는 대학원생 때 처음으로 파괴로 유명해진 아프가니스탄 바미안의 조사에 참가하게 됐다. 그때 그는 일본의 절이나 불상에는 없는 바미안의 유적과 대불(大佛)의 거대한 스케일에 감탄하고 이후 파키스탄의 간다라 유적이나 인도의 불적을 열심히 돌아다니게 된다. 이를 계기로 1969년부터 1979년까지 바미안의 불교석굴 조사를 시작으로 거의 매년 인도, 중앙아시아, 중국 지역의 불교미술에 대한 철저한 현지조사연구와 자료수집을 해왔다. 그 결과 아키라 교수가 구한 수 만점이 넘는 사진자료 중에는 인위적 · 자연적으로 파괴되고 소실된 것들도 포함돼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야지 아키라 교수는 철저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예술작품에 내포된 역사 · 문화적 생명력을 발견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같은 노력은 그의 대표저서인 〈인도미술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아키라 교수는 〈인도미술사〉를 통해 인더스 문명부터 이슬람시대까지 무한한 시간대를 미술사를 기준으로 삼아 개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술했다. 그는 책에서 인도미술사를 관통하는 특질을 염두에 두면서도 인도미술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는가를 역사적으로 탐구했다.

책에서 그는 자신이 발견한 인도미술의 세계를 "일본인들은 지금까지 인도 세계를 불교, 그것도 일본의 불교를 통해서 보아왔다. 그러나 일단 인도미술의 도판을 열어보면 풍요로운 생명의 다채로운 모습과 일본 불교미술과의 차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된다"며 "인도미술에서 현세와 피안의 이원론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는 현세와 피안이 혼연히 일체화되어, 현세 속에서 끊임없이 피안을 바라보는 위대한 시선이 있다"고 설명한다.

아키라 교수는 불교미술을 중심으로 한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다루면서 아시아 전역으로 범위를 넓혀 불교미술연구를 추구한다.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실크로드를 통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으로 전해졌다. 또 바닷길을 통해 인도에서 동남아시아로, 카일라스 설산을 넘어 티베트로 전파됐다. 이 과정에서 불교는 여러 민족의 고유신앙과 습합(習合)했고, 그들과 역사를 같이 하며 크게 변모됐다.

아키라 교수는 "불교미술의 재밌는 점은 인도에서 흥한 불교미술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지나 중국과 한국, 일본에 전파되는 사이 여러 가지 문화와 교류하고 변화해 각각의 토지와 민족에 뿌리내려 전개를 이루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불교 미술이 석가에 대한 신앙에서 일어났지만 일본의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 등 그러한 불상의 기원을 인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묘하게도 대부분 헛수고가 된다"고 설명했다.

불교미술연구 새 지평 열어
바미안 조사 계기 돼 현지조사 시작
아시아전역 불교미술 연구 지향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아키라 교수는 대승불교의 기원이 이유라고 설명한다.

그는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인도 쿠샨왕조(1세기~3세기 중엽)시대, 굽타왕조(4~6세기) 불교미술을 보면 석가불의 상(像)은 본생도와 석가의 설화도가 주요 테마이기 때문에 아미타여래, 약사여래, 관음보살 등 대승의 불상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키라 교수는 이러한 양상을 양식사 및 도상학의 관점으로 접근, 아시아 불교문화의 동질성과 독자성을 밝히고자 시도했다. 그는 이런 관점을 〈불교미술의 도상학 - 인도에서 일본가지〉라는 책에서 드러낸다.

또한 아키라 교수는 상징성 · 우의성(寓意性) · 속성 등 어떤 의미를 갖는 도상을 비교하고 분류하는 도상학적 연구에 관심이 많다.

그는 이런 방법론을 토대로 인도 · 중앙아시아의 불탑, 불전도, 보살상, 정토도 등을 다룬 〈열반과 미륵의 도상학-인도에서 중앙아시아로〉를 펴냈다. 책에서 그는 도상학적 접근으로 불교가 민속 · 역사학과 연계될 때 불교미술이 어떻게 변용되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했다. **이나은 기자**

승광불교미술원



⦿ 불상 : 원형조각, 전문 동불 특수불 각종불상
⦿ 개금 : 벗겨지지 않는 순금개금 개발
⦿ 개채 : 석채 및 유미라이트, 각종안료, 개채
⦿ 탱화 : 다양한 방법으로 조성, 선택 (먹탱화, 홍탱화, 채색)
⦿ 현재 : 종종사 이사. 범종불사
⦿ 불사 상담 ⦿ 불교용품점 운영

전 화 02)491-5336 02)494-7478
공 방 031)595-6558 031)591-7478
원 장 011-226-5336 공방장 010-3179-6561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한방문헌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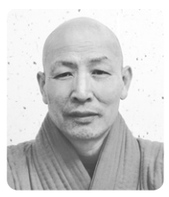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제 조 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 온라인통장(농협) : 227027-51-090791 · 예 금 주 : 남궁성균



사라져 가는 팔공산 범음 범패 염불소리를 살리고자 (동현)소승이 교육원을 개원하고
제1기 수강생 을 모집합니다

교육과목
● 초급반 : 초발심자경문, 사미율법, 바루공양법, 요령목탁사용법, 천수경, 반야심경, 새벽도량석염불, 종성염불, 각단예불, 각축원편, 사시불공, 관음시식
● 중급반 : 49제의식, 사다리, 다비편(매장, 화장)염불, 방생편, 각종고사, 각점안염불, 구병시식, 생전예수재의문

특별의식 작법
● 천수바라, 복청게, 시다리니바라, 도량게(나비춤), 오공양작법, 사물타법, 화청

교육과정
초급반
● 일반 : 6개월 (주1회 2시간) 매주 :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 속성 : 3개월 (주1회 3시간) 매주 :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급반
● 일반 : 12개월 (주1회 2시간) 매주(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 속성 : 6개월 (주1회 3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 작법(6개월)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까지

모집인원
● 35명 (선착순) ※ 개강 이후 1기 졸업시까지는 중간에 수강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모집기간
2012년 12월 1일 - 2013년 2월 28일까지 마감
※ 신청하실분은 본원에 직접 나오셔서 접수하시고 교육일정 시간표를 꼭 받아가십시요. 그리고 수강신청 접수하시고자 본원에 오실때는 필히 명함판 사진 2매를 가지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수강일
2013년 1월 22일 오후 3시(초급반 일반부)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교육원 원장스님과 직접 상담하여 주십시요.

▶교육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TEL 053)781-4200, 851-2666 / H·P 010-3424-0108

대구불교의식 범음 범패 교육원 원장 동현 합장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 요금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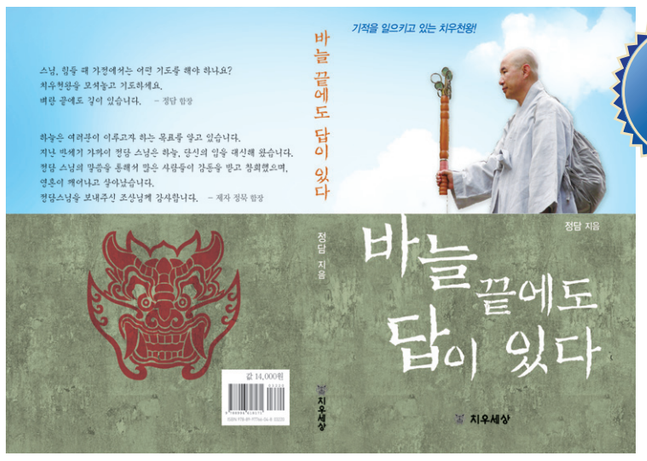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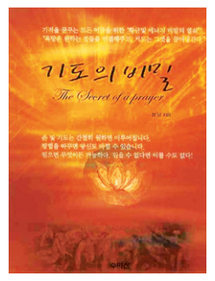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눈"만 보면 압니다!

한번의 인연으로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신간 출판



1. 이것 저것, 어느 곳에 점을 봐도 신통치 않을 때
2. 이사, 매매, 부부, 자식문제 궁금한 분
3. 사업성공, 주식, 선물옵션 대박비법
4.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되는 사람은 되는길이 있습니다.



치우기도상 출시

스님!
가정에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되나요?

이제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다.

약 력
- 대한불교 조계종 백양사 출가
- 서울 중앙 승가대학교 졸업
- 현 대한불교 종단총무원장
- 주요저서 : 기도의비밀, 불교척척박사

055)932-4103, 010-9537-0034
Daum 카페 주소창에 합천용문사 검색 를 쳐보세요!

용문사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산18-1번지
(영상테마파크와 합천댐중간지점)



사자산, 사자암은

일 시 : 2012년 12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산146
인연 대덕스님을 모시고 개원법회 봉행합니다

사자암에서는

매월 음력 1일 ~ 3일 : 화엄기도
매월 음력 8일 ~ 14일 : 약사7불진언 주력
매월 음력 15일 : 재수(건강)불공
매월 음력 24일 : 재수(사업)불공

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사자암 암주 장원 합장
☎ 011-677-8525

稀潭石 희담석 www.jawonet.com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전자파 걱정 없는 희담석 온열매트로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희담석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온열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
- 1인용 : 58만원
- 2인용 : 85만원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볼 (희담석 60% + 제오라이트 40%)
- 열 선 : 실리콘 테프론 무자계 열선
  (전자기장으로부터 안전한 열선으로 고가의 침대에서만 사용하는 열선)
- 크기
  1인용 : 100㎝ × 200㎝
  2인용 : 150㎝ × 200㎝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희담석 방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고급신형
-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450mm)
  ※ 오래 앉아 있어도 밤이 차지 않습니다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의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정 가 66,000원
↓
할인가 56,000원

합장주 35,000원 → 할인가 30,400원
염주목걸이+합장주 SET → 84,000원

숙면으로 이끄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사용방법
베개 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려 놓은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합니다.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등



- 25,000원 (황토색)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 3, 5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

성지순례는 미암사로, 방생은 백마강으로

세계최대 와불, 의자왕 출가한 곳, 소원성취 쌀바위, 진신사리증과, 인체에 효험약수 (점심공양, 입장료 무료, 단체 및 개인 성지순례 불자님을 환영합니다)

미암사의 연혁

미암사는 부여에서 서쪽 보령 방향으로 16km쯤 되는데, 부여에서 15분쯤 가다가 구룡천을 따라 40번 국도로 4km정도 올라가면 왼쪽으로 금북정맥 계향산이라는 아름다운 명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백제시대 침류왕때 쌀바위에 유씨 부인이 공을 들여 쌀도 나오고, 자손도얻어 소원도 성취했다 하여 큰 영험이 있으므로 쌀바위(충남도지방 문화재 제371호) 이름을 따서 무왕께서 쌀미(米), 바위암(岩), 미암사(米岩寺)라 하였다. 사촌마을을 미암부락이라고 했다.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응용 평가센터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원적외선이 92.1% 방출 됨으로 노화방지, 성인병 제거, 중금속제거, 곰팡이 번식방지, 신진대사 촉진,혈액순환 등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미암사 만청스님은 그 후 몇차례 전소되어 일부 복원 하고 있으며, 지금은 다시 전통사찰 양식으로 고증받아 복원 불사 중에 있다. 또한 1998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던 바, 2004년 납월 친견당시 자연적으로 3과로 자리를 옮겨 증과된 신비한 기적을 일으켰으며 2010년 9월 10일 진신사리 1과를 부여 백제 재현단지 능사에 기증 하였다.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백제권 불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부동정심의 대원력을 세워 국운융창, 국민화합을 위한 대자대비하신 삼계의 도사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부처님 세계최대열반상을 2005년 4월 17일 미암사 도량에 전국사부대중의 동참으로 원만성취 조성을 회향하게 되어 점안식을 봉행하게되었다.
소원성취기도도량 불교성지 미암사에 오셔서 악업은 소멸하고, 무량공덕 쌓으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요. 적멸보궁 세계최대열반상 불교성지 미암사는 성지순례코스로 가장 적당하며, 찾아오시는 불자님들께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암사 TV. 라디오방영 사례

mbc 드라마계백 / kbs2 전설의고향 / mbc 라디오 전설따라삼천리 / sbs 생방송투데이 / kbs1 쾌지나칭칭 / kbs2 생생정보통 / mbc 공감특별한세상 / kbs, vj특공대 / mbc TV특종놀라운세상 / sbs 출발모닝와이드 / kbs2 굿모닝 대한민국 / kbs2 생생정보통 / 불교tv / cmb생방송뉴스 / 실버TV만청문화행사 / tjb 특집프로


▷ 와불국화축제


▷ 진신사리 증과


▷ 만사형통 문수동자


▷ 쌀바위(운수대통)


▷ 장엄노천불 공원


▷ 10년만의 자손득남


▷ 효험 산신불


▷ 33층 석탑 진신사리 점안식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 / 팩스 041)832-1187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그는 티베트 불교 수호자였다

청신사 리차드 기어 거사

처음 리차드 기어의 사진을 본 곳은 중부 유럽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의 크렘즈라는 교육도시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가 세계적으로 대 히트를 치고 있을 당시라 리차드 기어 거사와 줄리아 로버츠가 함께 찍은 포스터가 여기 저기 붙어 있었다.

그리고 출가해서 승가대학에 재학 중일 때 달라이 라마의 대법회에 참석해서 티벳불교를 한 번 보려고 인도의 보드가야에 갔을 때이다. 그 곳 식당에 저녁공양을 하러 갔는데, 내가 앉은 자리에 리차드 기어 거사가 다가와 앉았다.

기어 거사에게 한국에 와 본 적이 있는가를 묻고, 티베트 승려들과 같은 짙은 갈색의 양복을 입었길래 양복이 멋있다고 칭찬을 하자 기어 거사는 똑같은 모양과 색깔의 양복을 일곱 벌 가지고 와서 매일 갈아입고 있노라고 대답했다.

10년 전 티베트에서 첫 만남
집 기부할 정도의 신심 돋보여
재가불자 역할 잊지 말아야

그 다음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본납은 황급히 밖으로 나갔고 그것이 기어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 후론 쭉 잊고 지내다가 작년에 리차드 기어가 처음 한국으로 와서 '순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자신과 친구들이 찍은 사진전시회를 갖는다는 것을 알았다.

불과 4박5일의 일정으로 조계사도 가고, 불국사도 가고, 또 본납이 거주하던 동화사도 온다고 해서 떠들썩한 분위기가 신문과 방송에 연일 나오고 있었다. 그러다 동화사 일정은 취소하고 기어와 그 부인과 아들이 출국했다는 소식을 인터넷으로 접했다.

10여년 전에 볼 때 보다 흰머리가 머리를 뒤덮은 리차드 거사의 모습은 좀 더 편안해 보이고 넉넉해 보였다. 어쨌든 작년에는 종정예하께서 미국에 처음으로 가서 법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기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당시는 동화사 주지 제 9교구 본사 교구장 성문 스님을 모시고 포교국장 소임을 살고 있었을 때였다. 스님을 모시고 미국 뉴욕에 먼저 들어가서 종정 스님 법회 예정 장소인 리버사이드 교회를 방문하고, 사전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 미국 갈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에 갔다.


리차드 기어의 티베트 성지순례 장면

공항 게이트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서있는데 리차드 거사가 서있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했더니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비행기에 타서 조종석 바로 뒤 1등석에 앉아있던 리차드 거사와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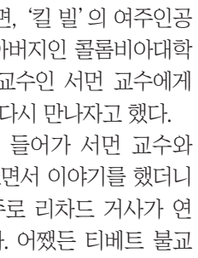
10년 전에 보드가야 식당에서 만났던 것을 기억하느냐 했더니 웃으면서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나중에 뉴욕에서 자기에게 연락하려면, '킬 빌'의 여주인공인 우마 서먼의 아버지인 콜롬비아대학 티베느불교학과 교수인 서먼 교수에게 연락하면 된다고 다시 만나자고 했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 서먼 교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를 통해서 주로 리차드 거사가 연락을 받는다 했다. 어쨌든 티베트 불교 신자들인 이 양반들은 서로 티베트 불교의 발전과 보호를 위해 신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다가 10여년전에 리차드 거사가 왜 티베트 스님들과 똑같은 색깔의 양복을 7벌이나 준비해서 매일 갈아입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유명한 배우인 리차드 거사는 자신이 스님들보다 더 돋보여서 눈에 띄거나 스님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사부대중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맑은 믿음을 지닌 선비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리차드 거사는 최근 자신의 집을 팔아 티베트 불교 교단에 바치고 요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다시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불교에도 많은 리차드 거사와 같은 많은 청신사들이 있어서 대한불교조계종을 지켜 나가고 있다. 비구와 비구니만으로는 사부대중을 이룰 수 없다. 부디 많은 청신사 청신녀들이 맑은 믿음으로 우리 불교를 지켜주시기를 기원한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병속에 담긴 연꽃은 꿈과 희망 전해

홍미림의 '세상 밖으로…'展

향수병 · 화장품병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이다. 이런 병 속에 연꽃이 하늘 거리며 인간의 꿈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전시가 있어 눈길을 끈다.

동양화가 홍미림 작가의 '세상 밖으로 희망을 내뿜다'전이 12월 5일~11일 종로구 인사동 선화랑에서 열린다. 홍 씨는 그림을 통해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자 했다. 그래서 잠시나마 복잡한 인간사를 잊고 이상향으로 향하는 마음을 화폭에 담아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연꽃과 동백 해달 구름 십장생 등 자연적인 소재를 현대적 감각의 채색으로 그려냈다. "우리는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긍정적 생각보다는 부정적 생각을 많이 하기 마련이죠. 잠시나마 제 그림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제 전시의 목적입니다"

대중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것이 목적인만큼 작가는 밝은 색상을 통해 긍정성을 강조했다.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든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고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체념과 부정적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삶에 대한 이유와 의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모두가 꿈을 가지길 원한다는 뜻에서 좀더 밝은 색채를 표현해봤습니다"

그래서 홍 씨의 그림은 형형색색 원색적인 색감과 리드미컬한 화면구성에 밝고 생동감 넘치는 기운이 느껴진다. 여기에 민화적 기법에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광고 이미지를 차용해 세련감 넘치는 작품을 펼쳐낸다. 또 한국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먹채색을 기본으로 다채로운 색상을 표현하고 대상을 섬세하게 묘사해 새로운 한국화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향수병 안에 연꽃이 들어 있는 '꿈의 향기'는 눈길을 끈다. "광고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차용해 민화적 회화법을 도입한 작품이에요. 여기서 연꽃은 희망의 결정체로 병 안에서 희망의 액체를 공급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하학적인 무늬를 이용해 주변을 장식하고 분홍색 끈은 소망이 술술 풀려나간다는 환상적이고 몽환적 느낌을 표현했어요. 이렇게 긍정적 기운을 담은 연꽃 병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연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맑고 깨끗하고 청아한 느낌의 꽃은 청정함 그 자체다. 그래서 첫 전시 때부터 연꽃은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어져 왔다. 그녀에게 연꽃은 꿈과 희망은 물론 우리네 인생사를 표현하는 훌륭한 매개체임에 분명했다. "왠지 연꽃에 끌렸어요. 여름이면 꽃을 피우고 겨울이면 져서 호수 위 연밥이 되어 떠 있는 그 모습은 생멸하는 우리네 삶을 보여주는 듯하잖아요. 그래서 연기저기 연꽃을 찾아다녔어요. 특히 시흥의 관곡지를 주로 많이 찾아가서 스케치를 했어요. 또 아는 언니를 따라서 충남아산에 위치한 인취사에서 연꽃도 구경하고 스님과 얘기도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죠."

밝고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로
긍정적 에너지 전달해 주고자
12월 5일~11일까지 선화랑서


홍미림 작가의 '세상 밖으로 희망을 내뿜다'전이 12월 5일~11일 종로구 인사동 선화랑에서 열린다. 홍 씨는 연꽃을 통해 세상의 희망과 꿈을 그려냈다.

이렇게 홍 씨는 연꽃을 스케치하는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한다. 연꽃에 묻혀 작업을 하다보면 연꽃과 내가 하나가 되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듯한 물아일체의 경지를 맛본다고 한다. 그렇게 그녀는 연꽃 속에서 인간의 꿈과 이상을 화폭으로 그려낸다. 그것은 실제의 묘사이기도 하고 도형적 이미지이기도 하며 빈공간을 장식하기도 한다. 그 모양과 크기와 배치가 어떻든 간에 그녀의 연꽃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해줄 것임에 분명하다.

앞으로도 꾸준히 연꽃을 그림 속에 그려넣을 것이라고 말하는 홍미림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 동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 · 내외 개인전을 11회 가졌으며 제29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 2010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 최우수상, 제6회 평화예술제 대한민국 평화예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다. (02) 734-045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월불 스님 달마도 초대전

수익금 전액 도서기금 희사
8일까지 동국대 중앙도서관서

달마대사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월불 스님의 달마도 초대전이 12월 8일까지 동국대 중앙도서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스님은 전시의 수익금을 동국대 중앙도서관 도서기금으로 전액 기부해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회는 달마도 전시를 통해 불교문화 전파와 선수행의 대중적 확산 등을 위해 기획됐다. 동국대 측은 "전시회 작품 판매 수익금이 전액 동국대 중앙도서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서기금으로 기부된다. 동국대 중앙도서관은 불교종립대학으로서 국내 최대의 불교학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런 만큼 스님의 기부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은 "수익금을 모두 동국대 중앙도서관 도서기금으로 희사해주시기로 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깨달음의 순간을 일필휘지로 그려내고 있는 월불 큰스님의 달마도 초대전에서 많은 분들이 원력 높은 구도자의 정신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월불 스님은 1952년 오대산 월정사 수도원에서 김지월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1955 경남 금정산 범어사 강원에서 하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경남 해인사 강원 수료, 경북 경산 선본사(팔공산 갓바위) 주지, 경남 양산 통도사 극락암 선원 등에서 수행 정진했다. 1983 고승선서화전 초대 출품했고 2012 조계종 조계사 어린이 청소년 포교기금 마련 불화초대전을 개최한 바 있다.

정혜숙 기자


월불 스님의 달마도

문화재제자리찾기 일본 탐방

청소년 · 대학생 대상
12월 20일 접수마감

문화재제자리찾기가 일본 내 우리 문화재 탐방을 위한 청소년 대학생을 모집한다. 기간은 2013년 1월 10일~15일 5박6일 동안이며 일본 교토, 오사카, 나라 등의 문화유산을 탐방한다.

참가자들은 교토국립박물관,나라국립박물관,법륭사,동대사정창원,백제신사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또한 일본 국회의원 특강, 현지 대학교수 해설 등도 같이 열린다. 참가 인원은 30명 이상이며 12월 2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 비용은 1인당 112만원이며 추후 기업 후원 등을 통해 참가비 50%는 반환 예정이다.

문화재제자리찾기 측은 "청소년들이 문화재들을 직접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전했다. (02)722-0914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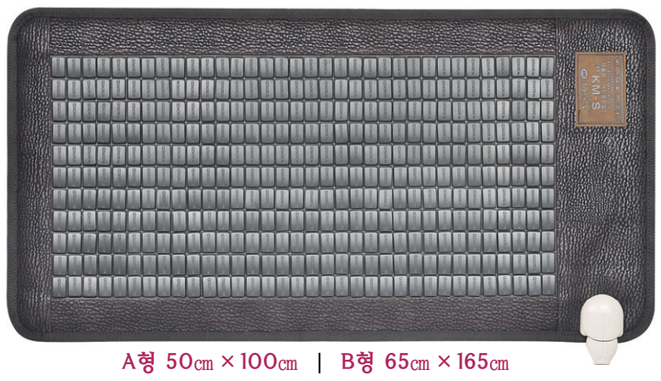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 09-651입니다.

인간의 기본 체온은 36.5℃인데 1℃ 떨어지면
저체온(冷氣)이 되어 면역력이 30%↓ 된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 두한족열(頭寒足熱) :
머리는 차갑게 (귀사문석 베게)
발은 뜻하게 (귀사문석 온열매트)
※ 낮에는 의자나 쇼파에,
밤에는 침대나 요 위에 놓고 하루 24시간 찜질을!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 × 100㎝ | B형 65㎝ × 165㎝

■ 제 조 원 : (주)국민메티컬 / 경기 양주시 율정동 115번지
■ 문의전화 : 02)2681-8122 선재생활건강(주)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305-50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 차단)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피부속 50㎜까지 침투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줍니다.

온열매트의 의학적 효과
건강한 사람의 평균 체온은 섭씨 36.5℃이다. 그런데 1℃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즉 냉증 또는 저체온이 되면, 자율신경중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줄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체온이 35℃로 내려가면 암세포가 증가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에선 매일 3천개-1만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면역력 덕분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 냉증(冷症) 즉 저체온이 되면, 그 증상으로 손과 발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다.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로 고생도 한다. 또한 당분, 지방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지구를 세바퀴나 돌 수 있는 9만km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적혈구가 엉기는 현상은 저체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세포 안에 충분히 열이 전달되도록 하면 적혈구의 엉김현상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실제로 원적외선을 이용해 신체 내부까지 골고루 열을 가하면 즉시 엉켜 있던 적혈구들이 원상회복 된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위안부 할머니들의 꿈 말하고 싶었죠”

전액기부 창작실험음악극 ‘그림 속으로 들어간 소녀’



‘그림속으로 들어간 소녀’ 공연 포스터


윤주희 씨(사진 왼쪽)가 연출하는 창작 실험 음악극 ‘그림 속으로 들어간 소녀’가 12월 12일 저녁 8시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열린다. 윤 씨는 친할머니와 조카를 배우로 등장 시켜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린 시절 꿈과 그들의 현재를 작품 속에 담아보고자 했다.

12일 세종문화회관서 공연
해금연주가 윤주희 씨
나눔의집 봉사활동 하며
위안부 진실알리고자 결심
사비 털어 공연 제작비 마련

고등학교 시절 위안부 할머니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소녀는 역사적 사실에 너무나 화가 났다. 대학생이 된 소녀는 위안부 할머니를 꼭 찾아 뵙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하는 수요집회를 찾게 됐고 이후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나눔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

처음에 그녀는 막연히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간식을 준비해가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해금 연주를 하며 작은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그들도 자신과 똑같은 어린 시절이 있었음을 알게 됐고 그들의 꿈을 엿보게 됐다. 이제 소녀는 마음 속에 작은 계획을 세우게 된다. 우리나라에 정신대 할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그런 계획 말이다. 그가 바로 해금연주가 윤주희다.

윤주희 씨(해금 연주가)가 연출하는 창작 실험 음악극 ‘그림 속으로 들어간 소녀’가 12월 12일 저녁 8시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열린다. 그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린시절 꿈과 그들의 현재를 작품 속에 담아보고 싶었다고 한다.

“위안부라는 단어가 대중들에게 주는 중압감과 편견들을 없애보자는 취지에서 열리는 공연이에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대적 환경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공연은 위안부 자체의 피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당신들의 어린 시절 꿈과 소녀적 감성을 다뤘습니다”

이번 공연은 올 초 데뷔 음반 ‘소우주(micorocosm)’를 발표한 해금 연주가 윤주희 씨를 중심으로 영화감독 이종필, 포토그래퍼 구송이 등 젊은 예술가들이 의기투합했다. “2009년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젊은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공연 팀을 구성했어요. 총 11곡이 연주되는 이번 공연은 음악과 무용, 영상이 접목된 하이브리드 형식의 무대로 꾸몄죠. 공연 수익금은 전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기부될 예정입니다”

윤 씨는 혼자서 이번 공연을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쓰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혼자서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 의미 있는 서른을 맞고 싶어서라고 말한다. “제 나이가 올해 스물아홉인데 서른 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받는 창작지원금 1천만원을 여기에 투자를 했지요. 그 돈을 제 개인 공연에 쓸 수도 있었지만 이번 공연을 완성하는데 하기로 했습니다. 또 텀벌벅(http://www.tumblbug.com/yoonjoohee)이라는 창작 기금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도 제작비를 모으고 있죠”

하지만 혼자서 공연비를 충당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임에 분명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들이 그녀를 응원해주었다. 어머니가 제작비의 일부를 후원해주는 것은 물론 친할머니와 조카가 영상에 직접 출연하는 등 가족들 모두가 그녀의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다.

“김순덕 할머니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그녀의 어린시절부터 현재의 모습을 담아내고자했죠. 어머니께서는 제작비를 빌려주시기도 하셨죠. 걱정도 하셨지만 흔쾌히 모두가 동참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공연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 씨는 나눔의집 할머니들을 볼 때면 새롭게 힘을 얻는다고 한다. “아무도 할머니를 알아주지 않고 진실조차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할머니들은 이를 알리기 위해 꿋꿋이 노력하시잖아요. 저도 그들을 통해 정신적 힘을 얻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추후 보완작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연을 알리는데 앞장 설 것이라는 윤 씨. 그녀는 오늘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림 속으로 들어간 소녀’를 완성해가고 있었다. 1544-155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충만한 삶은 소멸에서 온다

박노해 ‘남김없이 피고 지고’展

“나는 이 지상에 잠시 천막을 친 자/초원의 꽃처럼 남김없이 피고 지고/ 자신을 다 사르며 온전히 살아가기를”

80년대 〈노동의 새벽〉으로 세상을 뒤흔들었던 시인 박노해는 신자유주의 시대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산문으로 대중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리고 시인은 이제 순수의 땅 티베트를 카메라에 담아 또다시 대중의 곁을 찾아왔다. 박노해 티베트 사진전 ‘남김없이 피고 지고’展이 2013년 2월 27일 종로구 부암동 라 카페 갤러리에서 열린다.

그동안 파키스탄 사진전 〈구름이 머무는 마을〉展, 버마 사진전 〈노래하는 호수〉展 으로 대중들을 찾았던 시인은 바람과 유랑의 땅 티베트를 흑백 필름에 담아 보여준다.

걷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해발 3500미터 고원의 자동차가 질주하는 도로 위에서 오체투지를 바치는 티베트 청년은 이렇게 말을 걸어온다. “돈은 빛나도 내 영혼이 어둠이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렇게 오체투지 순례를 하다 보면 나를 괴롭혀온 탐욕과 미움과 그 모든 찌꺼기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 텅 빈 몸과 마음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물질의 결핍 속에서도 매일의 기도와 순례로 자신을 완전히 소멸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충만한 삶이란 ‘축적’이 아닌 ‘소멸’에서 온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보여준다. 하루하루를 선물 받았다는 마음으로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티베트인의 생의 화두가 시인의 사진 속에 고스란히 느껴져 온다.

이번 전시에서는 보리를 베는 여인들의 노래 소리, 초원을 유유히 걸어가는 양떼들의 평화로운 한때, 유목민 여인의 수줍은 미소, 바람이 경전을 읽어준다는 오색의 타르초, 가장 낮은 자세로 오체투지를 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승려들의 모습 등 흑백 사진 22점을 만나볼 수 있다.

티베트 풍경 흑백사진 22점 전시
2월 27일까지 라 카페 갤러리

내 안에 어둠이 밀려온다면 ‘남김없이 피고 지는’ 티베트의 저 찬란한 초원의 꽃들을 보라. 그곳에는 온몸을 살라 진정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생의 신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02)379-1975

정혜숙 기자


박노해 티베트 사진전 ‘남김없이 피고 지고’展이 2013년 2월 27일까지 종로구 부암동 라 카페 갤러리에서 열린다.

천진불의 겨울이야기… 풍경소리 35집 발매



좋은벗풍경소리 35집 앨범 표지

겨울 불교학교 교재용 8곡 실어

“눈부시게 빛나는 송이송이 눈송이 소복소복 쌓이면 걸음 걸음 뽀드득/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지요/ 엄마 닮은 눈사람 아빠 닮은 눈사람 추운 줄도 모르고 마냥 웃고 있는데 다정하신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요” **덕신 스님 작사 · 이종만 작곡 ‘겨울이야기’**

좋은벗풍경소리가 찬불동요 창작곡 ‘풍경소리 35집’을 발표했다. 이번 앨범에는 ‘가을과 겨울’ ‘겨울이야기’ ‘눈이 내립니다’ 등의 찬불가 8곡이 실렸다.

좋은벗풍경소리 이종만 기획실장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35집 앨범을 내게 되었다. 35집과 함께 겨울불교학교를 찾는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주고자 한다”며 새 앨범을 내는 소감을 밝혔다.

풍경소리는 1994년 1집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두 장씩 여름 · 겨울 불교학교 학생들을 위해 발표된 작품집이다. 이 앨범은 전국 단위 연수회 및 강습회의 교재로 활용 되며, 또한 일선의 어린이법회와 불교학교에서 찬불가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정혜숙 기자

제5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실시

문화사업단, 내년 1월 28일~ 2월 2일 접수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제5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불교문화상품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육성하고 내외국인들의 템플스테이 및 한국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공모부분은 템플스테이 및 불교문화를 주제로 한 기념품 혹은 상품 디자인으로 소재에 대한 제한은 없다. 접수는 2013년 1월 28일~2월 2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불교 및 템플스테이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수상작은 2013년 2월 15일에 발표되며, 2월 28일 시상식에서 대상 500만원(1명), 우수상 200만원(2명),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특별상 200만원(1명), 장려상 100만원(5명), 특선 50만원(10명) 등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작품은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전시된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참여 기회도 선물한다. **신중일 기자**



제 5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포스터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불성의 광명과 긍정의 힘
계발하는 ‘천수다라니’ 수행지침서



불교TV 방송강의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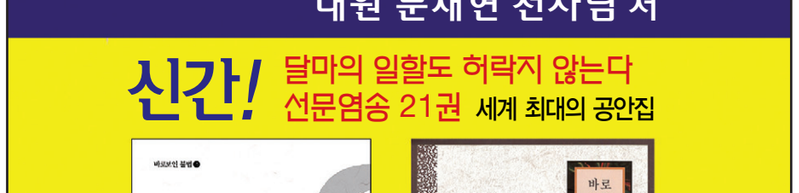
《다라니의 힘》
수지심시신통장
受持心是神通藏

일산법상 지음
신국판 | 부분컬러 | 448쪽 | 15,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참 행복을 위한 ‘무한능력’ 일깨우는 신묘장구대다라니
법상스님 수행일기 · 법문 담은 ‘마음의 힘’ 사용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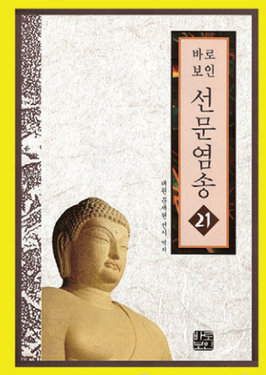
덕양선원장 일산(一山) 법상스님이 당신의 수행일기와 법문을 통해 자성(自性)을 깨닫는 다라니수행의 길을 체험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광명의 깃발이자 신통의 보물창고’로 불리우는 대비주를 통한 집중수행으로 불성의 무한능력을 일깨우는 불교적인 자기계발서이자 다라니수행 안내서가 되도록 편집했다.

일산 덕양선원 031-907-7172, 다음카페(cafe.daum.net/zeol)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선문염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031-534-3373

“사람 노릇 바로 하려면 불교 알아야 합니다”



다석 전기
-류영모와 그의 시대
박영호 지음
교양인 펴냄
3만원

“류영모가 태어난 1890년에 톨스토이는 62살이었고 간디는 21살이었다. 류영모는 톨스토이와 20년 동안, 간디와는 58년 동안 같은 해와 달 아래서 숨 쉬며 살았다.” 한국을 대표하는 철학자 중 하나인 다석(多夕) 류영모(柳永模)의 전기다. 1985년 출간된 초판의 세 번째 개정판이다.

2008년 7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 ‘세계철학대회’에서 함석헌과 함께 한국을대표하는 철학자로 소개된 다석(多石) 류영모는 동서 사상과 천문지리에 능통한 대석학이었고, 우리 말과 글로 철학을 한 최초의 사상가였으며, 평생동안 진리를 좇아 큰 깨달음에 이른 대자유인이다. 젊어서 스님에게 〈화엄경〉을 배우고 훗날 〈반야심경〉을 때마다 독송할 정도로 불교의 가르침에 심취했고, 어려서 〈맹자〉를 읽고 각성한 뒤로 유학과 노장을 깊이 탐구하여 동양 사상의 대가로 통했다. 특히 〈중용〉을 좋아하여 우리말로 옮기고 후학들에게 강의했고, 성경도 늘 가까이 했다. 그는 동양과 서양의 사상을 회통시켜 대통합을 이룬 구경각의 대사상가다.

“스승 류영모가 1981년에 돌아갔으니 올해(2012)로 31년째가 된다. 한 세대가 지나갔으니, 그 말을 들을 때 30살이 못되던 필자도 죽을 나이가 되었다. 아니 넘겼다. 스승의 그 목소리, 그 모습이 그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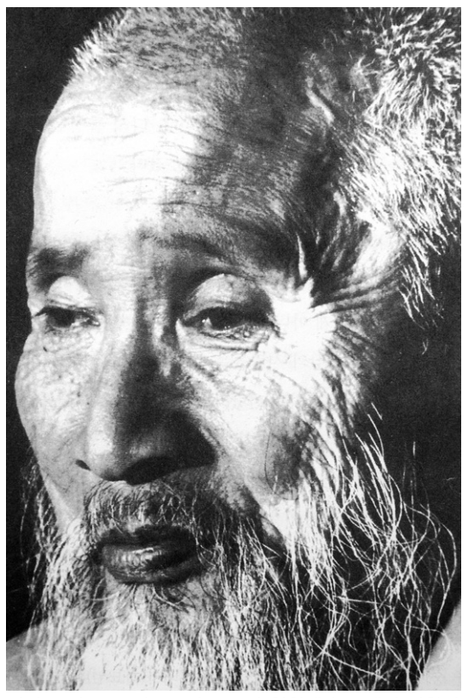
〈다석전기〉는 류영모의 직제자인 박영호가 스승의 생전에 구술을 받고, 스승이 남긴 ‘다석 일지’를 필사하고, 여러 지인을 만나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다.

류영모는 예수를 잘 알려면 석가도 알아야 하고, 석가를 잘 알려면 예수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난 것부터가 괴롬(苦)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닌 진리의 본성(다르마)은 불생불멸한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불교를 믿지 않으면 모릅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인 불성(다르마)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로고스(말씀)와 다르마(法)인데 둘 모두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그 이상 더 없으니 이를 믿습니다. 하느님이 진리의 근원

동 · 서양의 철학 · 사상 아우른 다석 류영모의 생애 정리

이라는 것을 알면 삶의 맛을 참으로 알고, 삶의 맛을 참으로 알면 진리의 생명인 얼나로 영생합니다. ‘우리가 좀더 오래 살 수 없는가’ 하는 문제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정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 , 석가, 노자는 정신적으로 영생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들의 말을 듣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이는 누구보다도 석가, 예수, 톨스토이, 간디 등입니다. 석가의 사상을 두고 무신론이라거나 유리론(唯理論)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하느님 사상과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959년 9월 17일에 류영모는 중국 당나라의 현당



다석 류영모. 도서고금의 종교와 철학에 능통했던 석학이자, 평생 진리를 좇아 구경각에 이른 우리나라의 큰 사상가. 우리말로 철학을 한 최초의 사상가였다.

이 한역한 〈반야바라밀다심경〉을 우리말로 옮긴 후 그것을 가지고 ‘반야심경’ 강의를 하였다. 그 때 류영모는 〈반야심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만 가지고 성경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반야바라밀다심경〉을 자세히 알면 불교 일반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불교는 2500년에 이르는 역사적인 사상이요, 동 · 서양 할 것 없이 온 세계에 알려진 세계적인 사상입니다. 우리가 사람 노릇을 바로 하려면 불교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모르고는 이 세상을 바로 살 수 없습니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는 말은 불경에 많이 쓰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불성(다르마)을 꼬 잡는 것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입니다.”

1890년 3월 13일에 태어난 류영모는 어려서부터 서당에서 사서삼경을 배웠다. 15살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며, 20살 때 남강 이승훈의 초빙을 받아 평안북도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의 교사로 재직했다. 이 때 기독교를 전파하여 일제강점기에 오산학교가 기독교 운동의 중요한 인물들을 길러내는 계기를 이루었으나 정작 류영모는 이무렵 톨스토이를 읽으며 정통 기독교 신앙에 의심을 품었다. 또한 불경과 〈노자〉를 접하면서 성경만을 진리로 받들고 예수를 절대화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예수, 석가, 공자, 노자 등 여러 성인을 두루 받아들인다. 총 5부로 구성된 책은 그의 중요한 생전 육성을 그대로 전해준다. 단순하고 소박한 금욕의 삶을 살고자 했던 류영모는 50세 무렵부터 하루 한 끼만 먹고, 하루를 일생으로 여기며 살았다. 항상 무릎을 꿇고 앉았으며, 얇은 잣나무판 위에서 생활하고 잠도 그 위에서 잤다. 새벽 3시면 일어나 명상을 하고 일기를 썼다. 그 일기를 모은 〈다석일지〉는 그가 쓴 유일한 저술로 남았다. 평생 무명이나 베로 지은 한복에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 늘 “농사짓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다.”라고 말했으며, 45세 때 북한산 밑으로 이사하여 직접 농사지어 먹고 살았다. 나이를 햇수로 세지 않고 날수로 하루하루 세었는데, 33,200일을 살았다. 다석 류영모의 삶과 철학, 모두 만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1~11/27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만현	현지궁현지사
2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4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5	발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로 걷지 마라	덕일	작은숲
6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7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8	세상의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파담빠 상계	민족사
9	치유하는 불교 읽기	서광	불광출판사
10	그대 마음이 부처라네	이정범	김영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동서양 대가들의 삶과 주역

주역에게 길을 묻다 -인물로 읽는 주역

맹난자 지음 | 연암서가 펴냄 | 1만8천원



인류의 영원한 테마는 ‘인류’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원한 테마는 ‘우리’다. 또 한 번 바꿔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알 수 없음이 끝없는 의문을 품게 했고, 그 의문들은 많은 생각들을 쏟아냈다. 그 많은 텍스트들 중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손을 떠나지 않고 인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텍스트들이 있다. 점서(占書)임에도 불구하고 경전으로 대접받고 있는 〈주역 · 周易〉 역시 그 중 하나다. 인류가 오랜 동안 길을 물었던, 그 흥미진진한 텍스트의 또 다른 텍스트다. 이미 수필가로 여러 권의 수필집과 주역 관련서를 펴낸 바 있는 맹난자의 역작 〈주역에게 길을 묻다〉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고 온갖 사물들이 생겨나니, 하늘이 대체 무슨 말을 하더냐?” 〈주역〉을 완성하고 난 뒤 공자가 “앞으로 나는 말이 없이 살고자 하노라.”고 하자 그의 제자들이 놀라 “말씀을 아니 하신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했다. 그 때 공자는 위와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저자는 공자의 탄신일을 기해 공묘 대성전에서 치러지는 치전(致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005년 9월 24일, 한국의 유림단체인 ‘박약회(博約會)’를 따라 공자의 고향인 중국의 산동성 곡부를 찾기도 했다. 책은 공자, 노자, 헤르만 해세, 괴테 등 일찍이 주역을 통해 신묘한 세계를 열어보였던 동서양의 대가들을 통해 주역을 다시 들여다본다.

〈주역〉은 “천지의 모든 조화를 포괄하되 어긋남이 없고, 만물을 원만하고 완전히 생성시키되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고 공자는 〈계사전〉에서 적고 있다. 〈주역〉의 범위가 천지의 모든 조화를 포괄하되 어긋남이 없다는 것은 어떤 법칙도 역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음을 뜻한다. 역은 천지의 준칙이기 때문이다. 우주의 모든 법칙이 다 그 속에 들어 있다. 그리하여 〈주역〉은 제자백가의 기본사상이 되었고, 아인슈타인은 음양의 상대적 관점을 받아들여 상대성이론을 완성했다. 양자역학의 아버지, 닐스보어는 주역을 참고해 원자 모델을 발표했다. 전자계산기, 컴퓨터, 로켓의 발사 원리가 주역에서 비롯되며, 주역은 첨단과학의 진리인 불확정성 원리, 카오스 이론, 프랙탈 구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우주론적 철학이다. 또한 흉운을 물리치고 길운을 만나고 싶은 처세의 지혜를 담고 있어, 점복(占卜)을 위한 원전(原典)과도 같다.

‘역’이란 말은 ‘바뀐다’, ‘변한다’의 뜻으로 〈주역〉은 천지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현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풀이한 책이다. 〈주역〉이 인류의 손을 떠나지 않고 인류와 함께 살아온 것은 그 속의 문장들이 늘 덕을 닦고 괴로움을 이겨내는 지혜의 방법을 일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역〉에게 길을 물었고, 묻고 있다. 〈주역〉의 도는 이렇듯 모든 것을 포괄하기에 충분한데 그것의 접근은 실로 용이치 않다. 이에 저자는 인물 중심의 보다 평이한 서술로써 그 다각적인 응용을 통해 〈주역〉의 실체를 들여다보고자 했다.

또한 저자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지구의 생태환경이 위험에 처한 지금, 우리는 자연의 근원인 도에서 너무 멀어진 것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를 느낀다. 거기에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뿌리는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오천년 지혜의 서 〈주역〉이 그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다.”고 발간의 의미를 밝혔다. 인류가 늘 길을 물어왔던 고전 〈주역〉에게 다시 한 번 길을 물을 수 있는 기회다.

박재완 기자

〈초기불교의 사회적 실천〉 올해의 불서 대상

불출협, 당선작 총 10종 발표

초기불교경전을 토대로 교리의 실천적 재해석을 시도한 김재영 교수의 〈초기불교의 사회적 실천(민족사 刊)〉이 ‘2012 올해의 불서’ 대상에 선정됐다. 불교출판문화협회(이하 불출협)는 11월 28일 ‘2012 올해의 선정 불서’를 발표했다.

심사위원장인 박경준 동국대 교수는 “대상으로 선정된 이 책은 불교가 민중의 고통을 구제하는 종교적 생명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장의 불교’ ‘현장의 불교학’을 강조했다.”며 “저자는 교학주의, 출가주의, 선정주의에 함몰되어 사회적 실천을 등한시하는 한국불교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초기불교경전에 기초하여 교리의 실천적 재해석을 시도하고 사회적 실천사례들을 제시하고, 21세기의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불교의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고 평했다.

또한 우수상은 석담 스님의 〈한계를 넘어서(동국대출판부 刊)〉와 불필 스님의 〈영원에서 영원으로(김영사 刊)〉가 차지했다.

우수상으로 꼽힌 〈한계를 넘어서〉는 독특한 방법론을 통해 한국 비구니 승가의 발달사와 현대 한국사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내고 이해하는데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책이라고 호평을 받았다. 이어 〈영원에서 영원으로〉는 가족사에서부터 선지식들의 인간적 한계를 넘나드는 수행이야기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에 심사위원들이 후한 점수를 주었다.

이외에도 〈생각나무 1 · 2(스튜디오 돌 지음, 솔바람 刊)〉 〈자기치유(조순희 지음, 정우서적 刊)〉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뺄뛸 린뽀체 지음, 지영사 刊) 〈소설 경(김정빈 지음, 문학의문학 刊)〉 〈산사는 깊다(지안 지음, 불광출판사 刊)〉 〈불교와 무의 근대(김영진 지음, 그린비 刊 〉 〈만해 한용운(정수일 지음, 운주사 刊)〉 등 7종이 올해의 불서에 선정됐다.

이번 2012 올해의 선정 불서 선정에는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동국대 박물관장), 보경 스님(법련사 주지), 하춘생 우성불교학콘텐츠연구소장 등 3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한편 시상식은 12월 12일 오후 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열린다.

김주일 기자

상 이름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대 상	초기 불교의 사회적 실천	김재영	민족사
우수상	한계를 넘어서	정인영 (석담)	동국대출판부
	영원에서 영원으로	불필 스님	김영사
기 타	생각나무 1 · 2	스튜디오 돌	솔바람
	자기치유	조순희	정우서적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	뺄뛸 린뽀체	지영사
	소설 경	김정빈	문학의문학
	산사는 깊다	지안	불광출판사
	불교와 무의 근대	김영진	그린비
	만해 한용운	정수일	운주사

www.minjoksa.org

경전 강의시리즈 출간!

그동안 수많은 불자님들의 염원이었던 본격적인 강의 교재

경전강의시리즈는 다른 책과 다릅니다.
1. 대학승 · 대강백 스님들의 경전 강의 내용을 한 권의 책에 온전히 담아냈습니다.
2. 경전 원문과 그 독음, 번역, 강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어려운 한자를 골라내어, 그 독음과 뜻을 원문 바로 옆에 달았습니다.
4. 경전 강의를 들으며 직접 필기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충분합니다.
5. 한 권만 있으면 다른 보충 교재는 필요 없습니다.
6. 경전 강의를 하려는 선생님께, 경전 강의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 모두에게 교재용으로 적합합니다.
7. 실양장제책을 하여 360°로 짜악 펼칠 수 있습니다.

교재 01
금강경
깨지지 않는 법
472쪽 | 25,000원
대학승이신 성본스님의 금강경 강의!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파괴되지 않는 견고한 반야의 지혜로 일체의 중생심을 끊어버리고 타파하는 경전이다. 성본스님은 절망과 무기력에 지친 현대인의 괴로움을 달래줄 긍정의 힘을 금강경에서 찾고 있다.

교재 02
유마경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624쪽 | 28,000원
대강백이신 무비스님의 유마경 강의!
유마경은 출가 중심의 편협하고 왜곡된 불교를 철저하게 비판하여 대승불교의 참다운 뜻을 밝히고 있다. 무비스님은 갖가지 고민과 불행 속에서 헤엄치는 현대인의 아픔을 보듬어 공감하는 힘을 유마경에서 찾고 있다.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 2404 Fax. 02)739-7565 이메일. minjoksa@cho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왕초보 한문 박사 되다
김형중 지음 | 288쪽 | 12,000원
불교 한문 초보자를 위한 맞춤 도서
1. 최초의 불교 한문 공부 교재
2. 해석 방법과 문법 소개
3. 경전에서 예문을 발췌하여 소개함
4. 복잡한 그림처럼 보이는 한문, 이제 글자로 보인다!

초조대장경 탄생부터 현재까지 심층 조명



고려초조대장경 세상을 움직이는 다섯가지 힘

대구 MBC제작팀 지음
마더북스 펴냄
1만3천원


대구 MBC가 제작해 화제가 된 2부작 다큐멘터리 '고려 초조대장경'의 방송장면

부인사를 방치하는 것은 초조대장경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부인사에 대한 재조명은 세계적인 목판인쇄술과 문화적 역량을 보여준 초조대장경의 역사적 가치를 정립하는 일이다. 대구 팔공산 부인사의 역사는 7세기, 신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인사는 왕조가 바뀌는 모습, 그리고 수많은 전쟁과 역사적 사건을 지켜보면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천 년 역사를 이어 오고 있다. 또한 영남지역의 주요 고찰로서 그 위상이 드높았던 부인사는 험준한 산세와 더불어 북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조건이 나라의 보물, 초조대장경을 보관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였다.

고려시대 몽고 침입으로 소실된 고려 초조대장경은 역사 기록으로만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여러 곳에서 인쇄본이 발견되면서, 우리나라 최초 대장경인 고려 초조대장경의 존재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이 '대장경'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흔히 팔만대장경이라고 불리는 재조대장경이다. 그런데 고려시대, 팔만대장경 이전에도 대장경이 존재했다. 바로 고려 현종 2년(1011년)에 판각을 시작한 초조대장경이다. 해인사에 보관된 팔만대장경은 초조대장경이 불타 소실된 이후 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고려 수도인 개경서 부인사로 이운된 초조대장경. 하지만 몽고 전란 중 봉안처였던 부인사의 화재로 목판이 영원히 소실되었을 것이라 예상되었던 고려 초조대장경이 판각 1000년 만에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단행본 〈고려 초조대장경, 세상을 움직이는 다섯 가지 힘〉은 대구MBC가 제작한 화제의 특집 2부작 다큐멘터리, '고려 초조대장경'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2011 불교언론문화상 TV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많은 이들이 초조대장경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 책에서는 다큐멘터리에서 분량 상 담지 못했던 초조대장경의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숨은 이야기를 화보, 도표 등 각종 자료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상세히 전해준다. 이를 통해 불교의 탄생과 전파 과정, 고려 시대 때 초조대장경 조성 이유와 과정, 몽고와의 전란 속에 대장경이 소실된 과정, 일본으로의 전파 경로 등 대장경 역사를 되짚어 보고, 초조대장경 조성 천 년의 의미를 밝혀낸다. 부인사 초조대장경 유허지 발굴과 고려대장경연구소의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통해, 천 년 만에 화재로 소실된 초조대장경 목판을 복원하는 흥미로운 과정 또한 이 책에서 꼭 읽어야 할 부분이다.

판각 천 년의 해를 맞아 다채롭게 열린 초조대장경 전시회 풍경, 컬러 일러스트와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장경의 제작과정, 한국 · 중국 · 일본 대장경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한역 대장경 연표, 실제로 일어났던 일본 안국사 초조대장경 도난사건을 다룬 역사 소설 소개까지, 이 책은 지금까지 베일에 싸여 있던 초조대장경을 새롭고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대장경의 여정은 부처의 고행 길처럼 험난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 부인사 주지 종진 스님, 통도사 광우 스님,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남권희 교수, 대구MBC 대표이사 차경호 사장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고려 초조대장경의 존재와 의미를 밝히는 데 뜻을 함께했다. 초조대장경 연구와 발굴, 복간, 우리말 옮김과 디지털화 과정에 참여한 학자와 불교계 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 등 관련 인사들의 활동과 생생한 증언, 인터뷰를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대구문화방송 제작팀은 초조대장경 인쇄본의 소장처를 학계에서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작을 시작해, 1년 6개월이 넘는 제작기간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네팔, 일본 등을 입체적이면서도 심도 깊게 취재해 고려 초조대장경을 방송영상물로 부활시켰다. 특히 고려 초조대장경의 인쇄본인 일본 대마도 '장송사'에 보관되어 있는 대반야바라밀다경 600권 전질과 초조대장경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 배경, 이동경로를 알 수 있는 이키섬의 '안국사' 소장 대장경을 국내외 최초로 촬영해 세상에 알리는 쾌거를 달성했다. 종림 스님(고려대장경 연구소장)은 "고려인들이 전란 속에서 초조대장경을 만들면서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 목판 대장경에 어떤 것을 새기고 담아내고자 했던 것일까. 이 책은 그 물음과 해답을 찾는 대장경의 길라잡이다."고 평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무궁무진한 한국 신화의 힘

신과함께(상중하)

주호민 지음 | 애니북스 펴냄 | 각권 1만1천원



중고등학교 시절 누구라도 한 번쯤은 토마스 불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을 읽었을 것이다. 흥미진진한 신들의 이야기는 10여 년 전 공중파 TV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돼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그렇다면 정작 한국인은 우리는 한국의 신화나 설화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교과서에서 배우는 단군신화를 제외하고 한국의 다양한 설화를 한켠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서양 사상의 근원이 된 그리스 로마신화에 대해서는 줄줄 외우면서.

그런 의미에서 웹툰 작가 주호민의 〈신과 함께- 신화편〉는 한국의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2010년부터 연재된 〈신과 함께〉는 저승, 이승, 신화편 총 3부작으로 구성됐으며, 이번에 발간된 신화편은 전편들의 세계관을 완성하는 프리퀄적 요소가 강하다. 작가 특유의 참신한 상상력과 적재적소에서 터지는 유머와 위트, 토속적 정서는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 이런 인기로 〈신과 함께〉는 현재 일본 만화잡에서 리메이크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영화로도 제작, 개봉된다.

〈신과 함께- 신화편〉은 제주도 신화인 천지왕본풀이, 이공본풀이, 문전본풀이, 차사본풀이와 경기도 신화인 성주 풀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다만, 신화편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일부 각색이 됐고, 전편들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여섯 개의 신화를 하나의 세계관으로 통일해 모두 이어지게 만들었다.

실제 첫 번째 이야기인 '대별소별전'의 경우, 원전인 '천지왕 본풀이'에서는 원래 대별왕이 혼자 해를 떨어뜨린다. 하지만 작품에서는 모든 나라의 백성이 함께 활을 쏴 해를 떨어뜨리도록 각색했다.

작가는 후기에서 "지금 세상에는 한 명의 영웅보다는 개개인의 자존감을 바탕으로 한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모두가 힘을 모아 해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각색했다"며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상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차사전이나 외전 형식으로 삽입된 철융전 등은 자료가 부족해 완전히 창작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호민 식' 상상력으로 복원된 한국 신화는 그 나름대로의 맛을 가진다.

작가는 〈신과 함께〉를 "어디까지나 한국 신화의 동인지 정도로 봐달라"고 당부하지만, 그리스 로마신화 정도만 알아 온 한국 사회에 〈신과 함께〉는 우리의 신화를 대중 콘텐츠화한 교본이다. 그만큼 아이들의 교육 교재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된다.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본편인 이승과 저승편은 어른들을 동화다. 〈신과 함께-이승, 저승편〉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하는 무한 경쟁시대, 누구나 죄인이 돼야 하는 시대를 저승차사들을 통해 비판하고 있어서다.

주인공 김자홍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저승편'은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두 축으로 진행된다. 김자홍은 하청업체의 고혈을 짜냈다는 혐의를 받지만 그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지

정감 넘치는 한국 설화들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학생 교재로 활용도 높아

장보살의 화신) 진기한은 회사의 압력과 영업 실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고 항변한다.

사실 소개되는 지옥들의 형벌 기준에서 보면 이승에 살면서 죄를 안 짓는다는 게 더 이상할 정도다. '신과 함께- 저승편'는 지옥이 꽉 찰만큼 죄를 짓는 게 당연해진 한국 사회를 보여주고 이후 사후 세계의 모습을 통해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던져준다.

반대로 '이승편'은 가난이라는 지옥에 던져진 서민들을 보여준다.

이 같은 일련의 작품을 통해 작가는 제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같은 죽음을 기억해야 한고 말한다. 그리고 살기 위해 우리 모두 죄인이 된다는 명제 역시 인정하라고 강조한다.

저승에서 이승으로 다시 신화로 이어지는 '신과 함께'는 우리 모두의 죄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현대판 민담이기도 하다. 그리고 작가는 말한다.

"하늘이 보고 있다고. 그러니 똑바로 살라고."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마음공부 목표 정확히 제시

깨달음

순일 스님 지음 | 여래 펴냄 | 1만5천원



수행의 시대다. '마음다스림'이나 '마음공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수행에는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저자인 순일 스님의 마음공부법은 불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음공부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 한 후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가령 스님은 불자들에게 말한다. "삶에서 이것을 좋아하고 저것은 싫어하는 이런 삶의 패턴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다람쥐 쳇바퀴의 고통은 끝이 없게 된다. 이 둘을 끊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집착하는 대상과 싫어하는 대상 모두를 사랑함으로써 '집착'과 '저항'을 초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마디로 이 책은 인간이 육체에 얽매어 있는 동안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신집중으로서, 욕망과 분노를 비롯하여 자아가 낳는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도 마음의 평온을 깨뜨리지 않고 기쁨으로 가득 찬 상태인 삼매에 도달하는 명상 수행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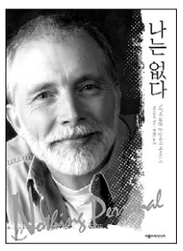
의식과 무의식, 본래마음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 그 틀에 따라 참마음과 마음의 상태를 넘나들면서 삼매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미내사에서 〈참나를 찾아서〉, 〈금강경〉, 〈초기경전〉 등을 강의하고 있는 저자는 현재 부처님 초기경전을 받들기 위해서 순일선원을 설립하고 '원음종'을 창종했다. 저서로는 〈깨달음〉〈삼매〉〈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 등이 있다. **김주일 기자**

'참나' 깨닫는 것이 진정한 '웰빙'

나는 없다

니르말라 지음 | 유영일 옮김
아름드리미디어 펴냄 | 2만원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대개 우리는 '나'를 개선하려고 애쓴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고 '나'에게 좋다고 느끼거나 생각하는 어떤 것을 하면 '나'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얻거나 이루더라도, 잠시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금방 또 다시 불만족에 빠져들어 더 큰 갈증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오해 또는 잘못된 관념 때문이다. '나'라는 것은 '나'에 대한 생각일 뿐이다. '나'는 한마디로 거짓이고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이런 '나'를 붙들고 뭔가를 한다거나 더 낫게 만들려 애써봤자 헛수고일 따름이다. 어떤 것을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욕망하는 것도 '내'가 아니다. 심지어 고통도 '내 것'이 아니며, 심오한 영적 깨달음조차 '내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분리된 '나' 또는 개별 자아가 존재한다는 환상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그럴 때 '참나'를, 우리 자신이 바로 모든 것의 근원임을 깨닫고 말로도 글로도 쓸 수 없는 진리를 가슴을 열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조건에도 매이지 않는 큰 사랑 안에서 진정한 웰빙(Well-being)을 노래 부르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인 니르말라는, 미국 서부에서 영성운동을 펼치며, 우리들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의 참 근원을 가리키는 일을 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살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팬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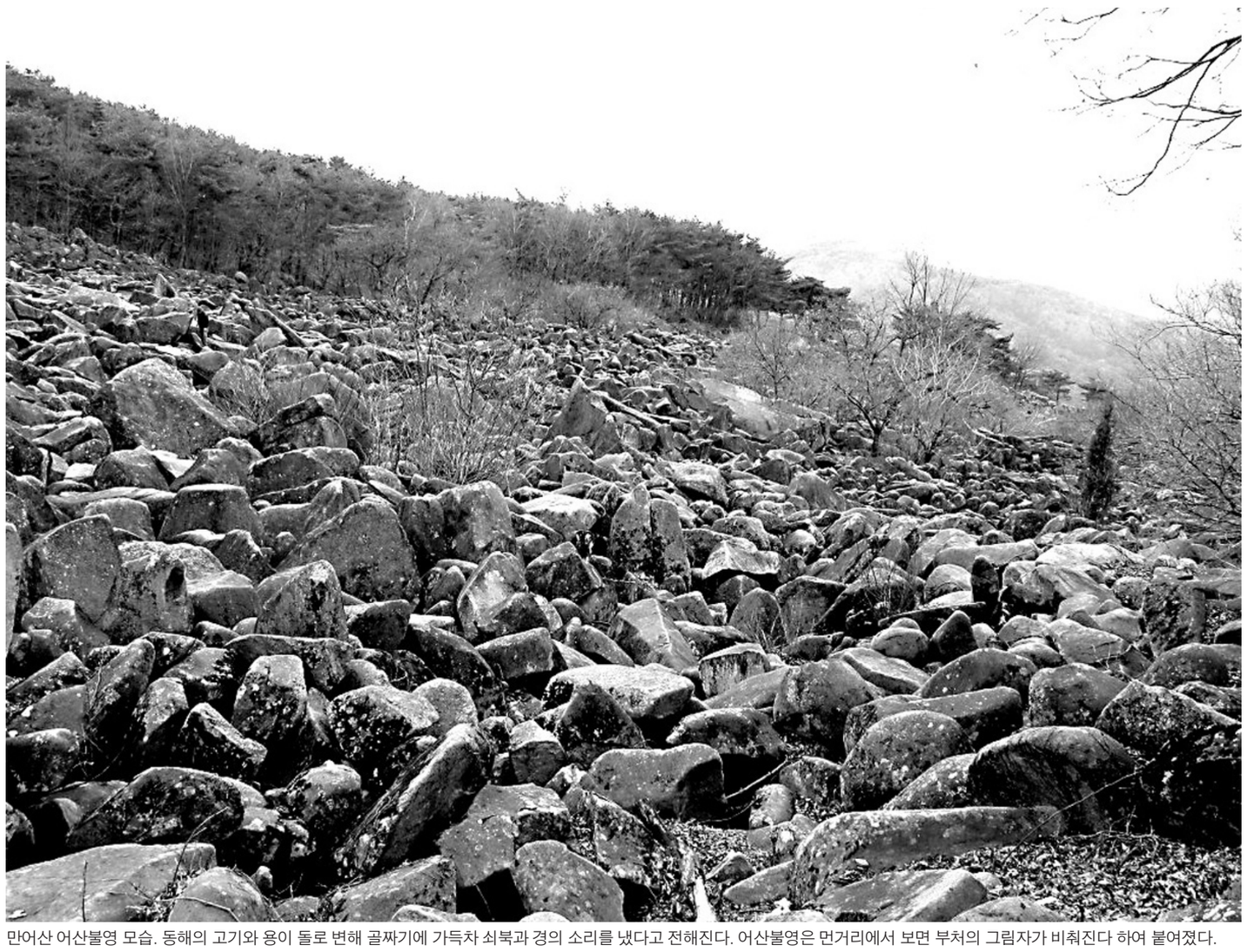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만어산에 부처의 그림자가 비친 까닭은?

인도와 한국불교의 접점 시사해 줘



만어산 어산불영 모습. 동해의 고기와 용이 돌로 변해 골짜기에 가득차 쇠북과 경의 소리를 냈다고 전해진다. 어산불영은 먼거리에서 보면 부처의 그림자가 비춰진다 하여 붙여졌다.

1. 인도불교와의 접점

인도불교와 한국불교와의 접점은 고대로부터 적지 않게 있어 왔다. 하지만 그 접점은 아유타국의 허황옥 공주의 도래로부터 이루어져 왔다. 더불어 금강산의 16나한의 연기설화가 역사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지만 인도불교에서 비롯되었을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어산불영'(魚山佛影)조의 기록 역시 한국불교와 인도불교와의 접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고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전한다. "만어산은 옛날에 자성산(慈成山)이다. 또 '아야사산'(阿耶斯山)이라고 했는데 그 이웃에는 가라국(呵囉國)이 있었다. 옛날 하늘에서 알이 바닷가로 내려와 사람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으니 바로 수로왕이다. 이 당시 나라 안에는 옥지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독룡이 있었다.

만어산에는 다섯 나찰녀가 있어 독룡과 오가며 교접을 했다. 이 때문에 때때로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려 4년 동안이나 모든 곡식이 익지 않았다. 왕이 주술로써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하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려 부처에게 설법을 청했다. 그 뒤에 나찰녀는 그녀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을 받고서 폐해가 없어졌다. 이 때문에 동해의 고기와 용이 돌로 변하여 골짜기가 가득 차서 저마다 쇠북과 경쇠의 소리를 냈다." 『가락국기』와 '오가야'조에는 "하늘에서 자주색 줄이 늘어져 땅에까지 닿았는데 줄 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로 싼 금합이 있었다. 그것을 열어보니 태양처럼 둥근 황금빛의 알이 여섯 개가 들어 있었다"고 하였다.

여기의 만어산은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에 있는 해발 607미터의 산을 가리킨다. 그런데 만어산을 무대로 한 이야기는 가야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로까지 확장된다. 『가락국기』가 찬술된 것도 고려 중기 즈음이다. "대정 20년 경자(1180)는 바로 명종 11년이다. 이때 처음으로 만어사를 창건했다. 고위 승직인 동량(棟梁)의 직위에 있던 보림(寶林)이 임금께 산중의 기이한 사적에 관해 글을 올려 말씀드렸다. "북천축 가라국 부처의 그림자에 관한 일과 서로 맞는 것이 세 가지가 있사옵니다. 첫째는 산 근처의 양주 땅의 옥지(玉池)에 역시 독룡(毒龍)이 살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때때로 강가에서 구름의 기운이 떠올라 산꼭대기에 닿으면 그 구름 속에서 음악소리가 나는 것이고, 셋째는 부처 그림자의 서북쪽에 반석이 있어 항상 물이 고여 마르지 않는데 이곳이 부처가 가사를 세탁한 곳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옵니다."

보림의 이야기에 접한 일연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지금 와서 친히 예를 올리고 보니 역시 분명히 공경하고 믿을 만한 것이 두 가지이다. 골짜기의 돌중에서 거의 3분의 2는 모두 금과 옥소리가 나는 것이 그 하나이며, 바위의 부처 모습이 멀리서 바라보면 나타나고 가까이서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다. 혹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그리고 일연은 북천축의 글을 모두 뒤에 싣고 있다.

2. 가야불교와의 통로

일연은 인도불교와 가야불교와의 접점을 깊이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三國遺事』「駕洛國記」에서 "수로왕 즉위 2년에 정궁(正宮)을 정하기 위하여 가궁(假宮)의 남쪽 신답평(新畓坪)에 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좌우 신하들에게 이곳이 아주 명당이니 십육나한(十六羅漢)이 머물만한 곳이다"라고 한 것과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산불영'(魚山佛影)조에서 "독룡과 다섯 나찰녀(羅刹女)의 장난을 수로왕이 주술(呪術)로도 금치 못하고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청하여 설법한 뒤에야 나찰녀들이 오계(五戒)를 받아 후환이 없어졌다"고 적었다. 이러한 기록은 일연이 인도불교와 가야불교와의 통로를 열기 위해 북천축 가라국의 글을 실어둔 의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고려대장경』 '가자함'(可字函)의 『관불삼매경』제7권을 인용하고 있다. "부처님이 야건가라국 고선산에 오셨다. 그곳은 악독한 용이 사는 담복화 숲의 옆이며 청련화 샘의 북쪽이고, 나찰의 동굴이 있는 아나사산의 남쪽이다. 이때 그 동굴 안에는 다섯 나찰이 암컷용이 되어 독룡들과 사통하였다. 독룡은 때때로 우박을 내리고 나찰은 난폭한 행동을 하므로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돌았다. 이렇게 4년이 지나니 왕이 놀라고 두려워 천지신명에게 기도하며 제사를 올렸으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때 총명하고 지혜가 많은 바라문이 대왕에게 말씀드렸다. "가비라국 정반왕의 왕자가 지금 도를 이루어 이름을 석가문(釋迦文)이라고 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여 부처가 계시는 곳을 향하여 예를 올리며 말하였다. "오늘날 불교가 이미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 나라에는 이르지 않고 있습니까?" 이때 여래는 여러 비구에게 명령을 내려 육신통을 얻은 자에게 뒤를 따르게 하여 야건가라국의 왕인 불파부제(弗婆浮提)의 청을 받아들였다.

용왕의 칠보대에 들어간 부처 기록 전해
가야, 신라, 북천축 불연 이어 불국토 주장
신라의 안함 · 자장 불국토설 창안과 맥닿아

이때 세존의 이마에서 광명이 솟아 나와 1만이나 되는 여러 천신과 화불을 만들어 그 나라로 갔다. 이때 용왕과 나찰녀는 오체투지 하여 부처님께 계율 받기를 원하니 부처가 즉시 삼귀와 오계를 설법했다. 용왕이 다 듣고 무릎 꿇고 합장하여 석가부처님이 늘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청하면서 만일 부처가 여기 계시지 않으면 자기는 악한 마음이 있어 아뇩보리를 얻게 될 수 없노라고 했다. 이 때 범천왕이 다시 와서 부처에게 예를 드리며 청하였다. "석가모니께서는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셔야 하므로 편벽되게 이 작은 하나의 용만을 위해서는 안됩니다." 그러자 수많은 범왕들이 모두 이같은 청을 하였다.

3. 불연의 깊이와 너비

이때 용왕이 칠보로 꾸민 대[七寶臺]를 내어 석가여래에게 바치니 부처가 용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청을 받아들여 너의 동굴 속에서 1천 5백 년을 지내겠다." 그러고는 몸을 솟구쳐 돌 속으로 들어가니, 그 돌이 밝은 거울과 같았으므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며 여러 용들도 모두 부처의 모습을 보았다. 부처가 돌 속에 있으면서 밖으로 형상을 나타내니 여러 용들이 합장하면서 기뻐하여 그곳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었다.

이때 석가세존이 석벽 안에서 결가부좌를 하고 있었는데 중생들이 멀리서 보면 나타나고 가까이서 보면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 범천이 부처의 영상[佛影]에 공양하니 부처의 그림자가 역시 설법을 했다. 또 이르기를 '부처가 바위 위를 밟으니 문득 금과 옥소리가 났다' 고 하였다. 『고승전』에는 이렇게 이르고 있다. "혜원(慧遠)이 천축[佛影]에 부처의 그림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옛날에 용을 위하여 남겼던 그림자로서 북천축 월지국(月支國) 나갈가성(那竭呵城)의 남쪽 옛 선인의 석실 속에 있었다." 일연은 다시 법현의 『서역전』(불국기)의 기록을 덧붙이고 있다.

"나갈국의 경계에 있는 나갈성에서 남쪽으로 반유순되는 곳에 석실이 있다. 이곳은 박산(博山) 서남쪽에 있는데 그 석실 안에 부처가 영상을 남겼다. 10여 보 떨어진 곳에서 그것을 보면 부처의 참모습처럼 광명이 밝게 빛나지만 가까워질수록 희미하게 보였다. 여러 나라의 왕들이 그림 그리는 사람을 보내어 그것을 본떠 그리려 했으나 비슷하게도 그리지 못했다. 나라 사람들이 전하기로는 현겁 1천의 부처가 모두 여기에 마땅히 영상을 남겼다 하였다. 그 영상의 서쪽 백 보쯤에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머리를 깎고 손톱을 자르던 곳이 있었다." 일연은 다시 성함(星函)의 『서역기』 제2을 덧붙여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옛날에 석가여래가 세상에 계실 때 용이 소를 기르는 목자[牧牛之士]가 되어 왕에게 우유를 바쳤다. (목자는) 우유 진상을 잘못하여 견책을 받으니 마음속으로 원한을 품고 돈을 주어 꽃을 사서 공양을 하면서 솔도파에 수기(授記)하였다. '악독한 용이 되어 나라를 파멸시키고 왕을 해치게 해 주소서.' 곧바로 석벽으로 달려가 몸을 던져 죽었다. 그리하여 이 굴에 살면서 대용왕이 되어 마침내 악한 마음을 일으켰는데 여래가 이를 알고 신통력의 조화로 여기에 오게 되었다. 이 용이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지 악독한 마음이 그만 가라앉게 되어 생물을 죽이지 않겠다는 계율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여래에게 이 동굴에 항상 머물면서 늘 자기의 공양 받기를 청하니 부처가 말하였다. '나는 장차 열반할 것인데 너를 위하여 나의 영상을 남길 터이니 만일 독하고 분한 마음이 생길 때 언제나 내 영상을 보면 독한 마음이 반드시 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처는 정신을 가다듬고 홀로 석실을 들어가니 멀리서 보면 나타나고 가까이서 보면 나타나지 않았다. 또 돌의 발자취를 칠보로 삼았다." 일연은 '아야사산'이 마땅히 '물고기'를 뜻하는 범어 '마따야'(Mataya)의 음가인 '아야사산'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할주(割註, 分註)로부터 시작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야와 인도 북천축 (야건)가라국으로까지 잇고 있다. 그는 '물고기'를 뜻하는 '마야사'를 통해 쌍어문의 출발지로 알려진 인도와 부처님 그림자의 재현을 통해 불연(佛緣)의 깊이와 너비를 확보하려고 헌신하였다. 이것은 마치 신라의 안함과 자장의 불국토설 창안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김영태, 『삼국유사의 불교신앙 연구』(신원문화사, 1975)
서윤길, 『한국밀교사상사연구』(불광출판부, 2000).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하)』(민족사, 2005; 2007).
고영섭, 『한국불교사연구』(한국학술정보(주), 2012)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이 무슨 죄인지 살만 자꾸 찌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바사닉 왕이 묻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 일이 늘 사람을 살찌게 만든다.
첫째, 자주 먹는 것이고 둘째,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셋째, 잘났다고 뽐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넷째, 근심이 없는 것이며 다섯째, 일이 없는 것입니다."
– 법구비유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무속 선, 앉은거리 장단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정선문 미래연구소
사 작 택
주 명 일
직접상담합니다.
개인지도
02)733-8889
017-402-7848
종로 견지동 조계사 바로옆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 434-5990
010-8730-5690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신령이 내린 영법사 경문
축원경,해원경,대감경,신장경,
동자선녀경,산신축원경,용왕경,
성주경,제석,칠성,삼신,대심,불사 등
이 경문은 영험하고 신령스런 경문이며 법사길 가실분은 이 경문을 전수받으시면 신력높은 송경법사로 성불 받습니다
육관법사 010-3123-1325

오랫동안 빙의로 고생하시는 분. 천도재를 여러번 해도 효과가 없는 분. 각종 기도해도 안되는 분.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는 분. 상담 후 고쳐 드리겠습니다
(대원사)
010-4646-7633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천명리강의실
02)389-6597
www.beumchun.com

화림 황토, 상황 氣 훈증 좌훈 침대
누워서 허리 뜸, 배에는 단전 뜸, 앉아서 좌훈 뜸
특허번호 제10-2011-0117220호
상표번호 제40-2011-0070302호
디자인번호 제30-2011-0053572호
웰강 www.wellgang.co.kr
가맹점 개설문의
011-573-4438

전수생 모집
사주 명리학, 천고비전 육임학
기초에서 실기까지
육임은 백법까지
성심껏 지도해 드립니다.
(경기 이천 장호원)
011-729-6011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발명특허 출원내용 : 뒤 틀인 척추, 골반, 고관절 각도, 다리길이 불균형을 바르게 하는 운동기법 디스크, 협착증, 좌골신경통,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 증, 척추측만증, OX다리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운동법
배울 분, 받을 분 한번 오시면 해결가능
혜경선사 011-829-7582

관상 · 손금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개인지도 (나이 관계없음)
스님특별지도
철학원,포교원,무속인,일반인
전국 어디든지 출장 강의함
대학교 강의중. 사찰 무료로 보시함
010-4014-8822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립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염불 잘하는 스님이 의식 집전해 드립니다
천도재,49재,바라,
나비, 회심곡
010-6569-1010

불경 무료 보시
– 고려대장경 1질
– 한글대장경 1질
– 외 불교경전 약 300권
합계 700권
010-4323-0087

부전스님 모심
전통염불
배울 처사 구함
(마산)
010-3428-6665

신심있는 공양주
(나이 40~60대)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예천)
010-4901-4925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심 와 기 도
• 천문이 열릴 적에 천시를 받는 기도며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스님
(경북 문경 쌍용사)
010-8819-8988

신심있는 법당 보살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31)585-4626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해광 하순천 지음 .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값 15,000원 / 410면 / 전화 063)643-7285
◉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킵시다
항암에 상황버섯과 + 불로초의 + 영지버섯이 + 숙취제거의 인진쑥과 + 소화력의 칡이 만났을 때
완성품 (1팩= 1500원)
1박스 = 50팩(봉) → 75,000원
1박스 = 100팩(봉) → 150,000원
상황버섯 1kg = 12만원 (이메일 2880367@hanmail.net)
010-5615-0367
010-5669-0367

창공기도 20년
해돋이 기도 12년
자시기도 1000일
산별 맞은 사람, 신병환자치료
해가 돌아가는
약사부처님 가피력으로
손으로 만져 영적인
분들을 해결합니다.
017-257-6795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근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3)474-8228, 010-9562-8228

청정한 **남해바다**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멸치**와 **멸치액젓(맑은 액젓)**을
자신있게 불자님과 모든 분들께 직거래로
소개하여 드립니다.
055)867-2259

점성(占)비법 전수자 모집
1. 吉凶 영가찾기 2. 이름작명 (한자速成학습법) 3. 풍수
* 스님 특별강좌 * 타로교육
◆ 역 술 상 담 법 ◆
• 기 초 반 : 4주 완성 (선착순 8명) / 교재비 포함 5만원.
• 고 급 반 : 24주 완성
• 점성영업법 : 6주 완성 (선착순 3명)
• 특전 : 사단법인 한국역술협회,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상담자격증 취득됩니다.
전화 02)977-1389 (수시상담 가능)

탈 종 취 하 공 고
현대불교신문 915호(11월21일字)
25면 하단 광고에 기재한
대한불교조계종 탈종공고
(법명 : 德玄, 사찰명 : 금륜정사)를
취소하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금요일
금륜정사 주지 덕현 합장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561-10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 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무료공개강좌 – 12월 7일 (금) 오후 2시
• 대 상 – 역학 왕초보자, 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기 초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1.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되나?
–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다.
4.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5.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딛히는 가정
6.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통신반 모집
백 암 역 리 원
02)597-1101. 011-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우리은행) 옆

수정기공 특강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불 자 정 보 26 | 917호 | 전면광고

2012년 12월 5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삼보불사 사찰안내

삼보기획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양평
- 법당자리 최고
- 요사 : 50
- 부지 : 1400평
- 약수물,명물
- 가액 : 7억5천

- 위치 : 금산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총 560평
- 가액 : 1억 8천
- 최고 보시면 ok

- 위치 : 서울
- 인법당 : 25평
- 개액 1억 3천
- 전세. 월세 급구 연락주세요

※서울 경기 근교 포교당 전세 암자 급히 구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 상담 환영. 양도 전,월세,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 법당 : 20(목조)
- 요사 : 100평
- 부지 : 1300평
- 가액 : 3억5천

- 위치 : 경남
- 법당 : 12평
- 요사 : 30평
- 부지 : 440평
- 가액 : 2억

- 위치 : 경기도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극락전 : 60평
- 부지 : 740평
- 가액 : 1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온천장 사찰

- 대지: 235평
- 법당(2층) 30평, 요사채(2층) 80평
- 주지실 25평
- 부산의 주산 금정산 솔밭 자락
- 가액 : 6억 3천만원

울산 근교 아름다운 사찰

- 총부지 : 2,400평(관리지역)
- 법당 및 요사 50평
- 산세, 계곡물 최고, 주차장 200평
- 총금액 : 6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 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도심안의 산중사찰

- 부산 (구 보림극자 위)
- 대: 97평(계단 약간 있음)
- 1층65평(법당 및 공양간)
- 2층 35평 (큰법당)
- 텃밭(20평)
- 급양도가: 2억9천만원

- 8m 옆 나대지
- 평당 240만(36평)
- 현재 유료주차장
- 부산 범일동 (지분등기) (부산진 시장 10분거리)
- 가액 : 8700만원

부산 동구 범일동 010-5511-7000 스님

종교관련시설터

- 요양시설, 수련원, 선방, 포교원 등
-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자락)
- 평수 400평(대로에서 200m)
- 건물 : 약 40평 있음
- 특징 : 산 밑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조용한곳
- 가액 : 15억

011-372-7744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지하철역 3분 교통편리
- 3층건물 중 2층 45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500만원(가격절충가능)
- 스님개인 사유 • 급 양도하고자 함

010-8631-6333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 대지 175평(법당 20평, 요사채 22평)
- 아미타불 도량, 산신용왕
- 백년 된 대추나무, 은행나무 돌탑
- 비구니 스님, 안주하기 적합한 도량
- 가액: 1억 1천만원

010-8503-5769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 주차 40대가능
- 가액 : 4억 5천만원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응암3동 대림시장 맞은편
- 버스 정류장 앞, 4층건물 3층, 25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칠성, 독성탱
- 에어컨 2대 포함 집기 일체,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800만원 / 월 6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010-3209-040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소재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대지: 공동사용 도지료 연 35만원
- 건물 : 단층 32평, 개인 등기 필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큰길변 교통좋은요지 남향 법당넓고,현대식 시설생활 편리함
- 가액 : 6천 8백만원

010-7295-1259

창건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임실 섬진강 회문산
- 평수 : 법당 2동(대지 300평)
- 종교용지 허가 대지,총 5000평 중 300평
- 부처님 세분 모셔져있음. 현대식 입식 한옥 목조 기와 시설. 섬진강 명당 위치
- 비구니 스님 환영(일체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 호남 최고의 명당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총 건축비 2억 1천만원 소요)

010-9647-0723

포교원안내

- 위치 : 서대문 홍은동
- 3층 건물 중 3층, 50평, 옥상전체 사용
- 삼존불, 후불, 108불 소불, 산신각 방 2, 접견실, 샤워실, 화장실
- 에어컨 2대포함,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7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10-9231-460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군포역 부근
- 평수 70평, 상가건물 2층, 시설 A급
- 대웅전, 삼존불, 방3, 주방
- 보증금 2,000만원, 월 14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시설 : 도시가스 아주 깨끗함
- 주지스님 건강 관계로 급 안내

010-5622-4589

사찰요양터 안내

- 위치 : 포항시 부근 도로접
- 마을 뒷산 (울타리 모양 대숲으로 이루어짐)
- 평수 : 약 1480평 (평당 42만원) 외 하천부지 약 700평

010-2794-5368
054)261-1104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잠실
- 최요지 2층, 약 60평
- 방2, 공양간 큼,
- 삼존불, 신중단, 탱화 소불 약 200불
- 전세 2000만원 월 120만원 시설비 있음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6889-5040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염포동
- 상가, 시장, 주거지 밀집지역
- 4층 43평, 옥상이용, 창고 1 별도있음
- 보증금 포함 시설비 총 2500만원 월 40만원, 답사 후 절충

052)287-8180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터미널에서 3분거리
- 대지 : 총 1320평
- 대웅전 1동, 요사채 3동,
- 부속건물 등등, 관광버스 6대 주차 충분
- 방10개, 심야보일러, 경비시스템
- 가액: 3억 3천만원 (대출 7500포함)

010-2775-337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부지 2,000평
- 법당 조립식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 2억 1천만원

010-7188-7723

사찰부지안내

- 위치: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 내 천등산
- 지목 : 전 10년전 4단식 계단 토목공사완료
- 산세수려, 청정계곡, 토굴이 있음
- 평수 2400평
- 양도가 2억 5천만원

010-6317-5863

포교원안내

- 위치 : 양산 북부동
- 전세 5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합해서 5,500만원
- 평수 90평, 3층 건물 중 3층
- 아미타, 지장, 관음, 삼존불, 신중탱화 산신, 용궁, 후불 등 부처님 모셔져 있음
- 법당 외 방 5개, 소불 200불

011-9556-8413
010-8384-7754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고전면 소재 금오산자락임
- 면적: 실면적 : 634평 (2,095㎡)
- 가용면적:약 1000평(도로부지300평 포함)
- 특징: 현부지에서 지리산 천왕봉 자락이 맑은 날 육안으로 보임
- 광양만경제특구 진입도로 예정지로 유동인구 증가예상
- 가액: 6억 5천만원(가격절충가능) 원매자 직접 양도

010-7145-1083
010-6255-2431

포교원안내

- 위치 : 안산시 월피동
- 평수 : 26평
- 법당완벽한 시설로써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5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662-5527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 전철역에서 2분거리, 대로변
- 최고시설, 좋은 위치
- 5층 건물 중 3,4,5층 총 15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5000만원(절충가능)
- 즉시법회가능

010-3198-8988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3층, 옥상이용 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시설 일체 완벽

011-217-9299

밀양암자안내

- 위치 : 밀양얼음골 주위
- 자연경관 수려함 (폭포 , 계곡 등산로)
- 면적: 8000평 (종교용지 25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7억 (협의)

010-4876-55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소재
- 대지 533평, 법당 23평,
- 경관 전망 좋음, 구미 15분거리
- 요사채 23평
- 가액: 2억 6천(절충가능)
- 도심지역 사정상 급 양도

010-4514-3136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남구
- 시장입구, 버스정류장앞
- 유동인구 많음. 건물 뒤 공용주차장
- 평수 : 2층 70평
- 찜질방 • 3층 70평
- 법당. 관음전, 산신각(단청되어 있음)
- 보증금 1500만원 월 120만원
- 시설비 현지답사 후 절충가능

010-4001-3949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시 오라동 공항에서 10분거리 아름다운 사찰
- 평수 : 340평
- 집은 3동
- 가액: 7억

018-590-358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시내에서 10분거리
- 평수 120평, 법당 15평
- 요사채 35평 방 4개, 현대식 화장실 3개
- 가액: 7천 5백만원

010-3087-335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3층 약 50평
- 모든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51)506-40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천강리
- 천수천안후불, 신중영가단
- 65평, 2층
- 전세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9백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8948-2612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양 시장통
- 4층건물 중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평수 : 35평 법당1, 방1, 주방
- 시설비 1천만원

010-4227-8230

포교원안내

- 위치: 강북구 송천동 4거리 기업은행앞
- 2층 25평, 법당, 상담실, 방, 거실 겸 주방, 욕실, 에어컨 2대, 정수기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200만원(조정가능)

010-9469-3689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 큰 대로변 상가 3층
- 평수 30평, 등 200개, 인등 200개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벽

010-2126-2526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의 중심지인 수성구에 有
- 지하철 5분거리(도보)
- 평수 : 상가건물 4층(43평)
- 시설 : 일체 완벽(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 4000만원(월 30만)
- 시설비 : 답사 후 조정

010-2110-2555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및 산 168-2
- 종교부지: 5,577㎡, 산 168-2 : 13, 640㎡ 합계 19,217㎡ (5,830평)
- 건물 4개동 : 대웅전 1동, 요사채(2층) 1동, 부속건물 1동, 스님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 결정

010-4225-0012
02)403-3333 / 031)771-181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 맞은편
- 평수 31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 주방가구 일체 방2, 주방, 샤워실
- 가액: 보증금 6백만원, 월 59만원
- 시설비 1천만원, 주방기구 일체

010-2208-7749

가까운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사상역 시외터미널 건너편
- 건평 60평, 시설 멋짐
- 전세 1800만원, 월 45만원
- 비품대 1500만원 4층건물에 2층

010-3590-6329
010-8548-860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금호읍
- 경주. 포항 20분대 대구 15분시내 IC 3분거리
- 평수: 203평. 인법당. 삼성각. 용왕당. 기도방
- 요사채 방 4, 욕실1, 수세식화장실2, 현대식주방
- 300년 고목 약나무 지하온천수매장. 개발가능
- 비구니스님 거처로 용이함
- 양도가액은 만나서 협의를 원함

010-2835-6886

사 찰 안 내

- 위치: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 평수: 대지 60평, 대웅전 포함 건물 6동
- 낙동강 산자락이 보이며
- 아파트단지가 있는 전망 좋은 위치
- 가액: 2억

010-7749-7090
055)383-7090

사찰(절)포교원

1. 장소 최고 좋음. 2,3층 90평 내부 원목 인테리어 월 70만 시설비 3500만 13년전. 팔천
2. 신축사찰 대지 약 300여평 조경 12자 지장보살, 약사불 삼층 석탑. 전세 7000만원

꼭 필요하신분 010-3630-32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지리산
- 면적 2,100평, 대웅전 30평
- 요사채 각 80평, 30평
- 산과 강이 잘 어울어 아름다운 사찰
- 가액 : 6억 5천만원 (전세가능)

010-2610-9997

백 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자에겐 백 가지 괴로움과 슬픔이 뒤따른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자에겐 괴로움이 없다. 그런 사람에겐 슬픔도 없고 번민도 없다. – 우다나 –

자기치유

조순희 (약사 · 철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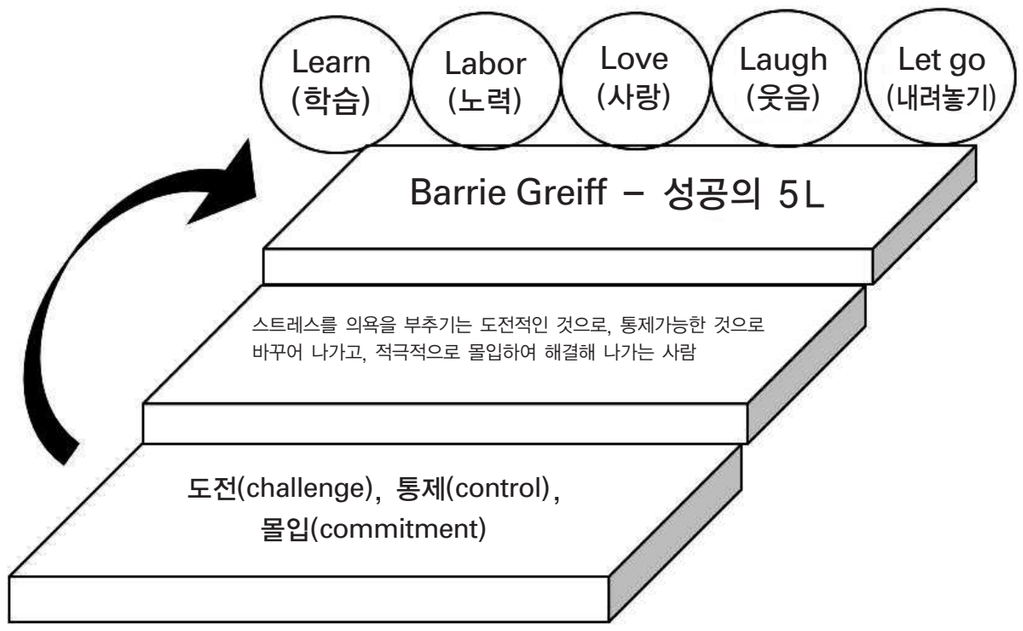
〈1〉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의 변화

‘불신 · 욕심 · 분노’ … 가장 위험한 스트레스 요인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바깥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느라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으면 몸 안의 지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려 준다.

〈자기치유〉(정우서적 刊)는 37년간 약사로 활동해온 조순희 박사가 약물치료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치료 방법을 제시한 책이다. 조 박사는 책에서 약물치료라는 생물과학적 근거와 명상과 이완 같은 심리학적 치료, 믿음이라는 영적인 치유를 질병에 따라 매우 적절하게 그리고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본지는 이 책의 내용을 금주부터 4회에 걸쳐 발췌 ·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주〉



스트레스에 강인한 3C의 특성

심신의학과 스트레스의 의미

과학적인 의미에서 스트레스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내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병이라는 것은 스트레스와 관계가 깊으며, 스트레스 요인들에 의해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은 마음의 작용이 잘못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이며, 또한 그 원인이 되는 마음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병에 걸렸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의 병은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부정적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병에 대해서도 그러한 인식을 바꾸지 못하는 환자들은 생존율이 낮을 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어떤 환자들은 자신의 병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병을 만들어 낸 자기의식을 근원적으로 바꾸며 자신의 병과 삶을 마주합니다. 이런 환자들 가운데 가망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병을 완전히 치유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환자의 의지 · 믿음 · 상상 · 기대와 같은 의식상태가 환자의 건강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몸은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며, 이를 잘 이용하기만 하면 질병의 예방뿐만 아니라 치유도 가능할 것입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유전적인 소인 · 체질 등의 내부적인 요인과 물리적 · 화학적 · 생물학적 인자 등의 외부에서 인체에 가해지는 요인에 의해 병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체에 가해지는 가장 위험한 스트레스 요인은 불신 · 욕심 · 분노와 같은 심리적인 것입니다.

병이란 몸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가해진 상태와 그것을 없애려는 몸의 방어반응이 합쳐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어반응은 몸의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반응이며, 몸은 자극을 받으면 일단 긴급반응 상태에 빠지나, 그 다음 부신피질호르몬을 분비하는 등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와 신체적 · 정신적 작용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몸은 여러 가지의 생리적 반응을 보입니다. 즉 심장박동률 · 혈압 ·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하고, 위나 장은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며, 혈당치가 높아지는 등 일련의 위기를 만났을 때의 몸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몸의 반응과 더불어 불안 · 급격한 공황적 공포 · 산만한 생각 등 심리적 반응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뇌는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긍정적인 사고를 할 때와 부정적인 사고를 할 때 정반대의 물질을 분비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할 때 분비되는 β-엔도르핀은 인체가 힘든 고통을 당하거나 극심한 운동으로 산소가 부족할 때 혹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아 기분이 나쁠 때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입니다. 이는 엔도르핀이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을 때 분비되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이해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 과정은 우리 몸에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나타나는 우리 몸의 자연치유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상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물질들로 인해 몸의 면역계 · 내분비계 및 신경계는 상호작용을 하며 질병의 치유에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에 강인한 사람의 특징

심리학자 수잔 코바사(Suzane Kobasa) 박사는 스트레스에 강인한 성격의 특성을 헌신(Commitment) · 도전(Challenge) · 통제(Control)의 3C로 정의했습니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위협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의욕을 일으키는 도전적인 것으로 보며, 일상에서 일어나는 좋지 못한 일들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 직장이나 가정에서 자신 주위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몰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과 스트레스 밀접한 관계
경고증상 찾아내면 예방 가능

격심한 분노가 만성통증 유발
“惡에 대해 자비심을 느끼자”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열정을 갖고 살아가고, 자신이 하는 일에 몰입하며 새로운 일을 마주하면 도전해 보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도전을 즐기는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위험요소 보다는 자신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관여하는 일에 강한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전력을 다합니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에 강인한 3C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면 긍정적이고 활기가 넘치며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헌신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언제나 뒤로 처지는 반면,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는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도전에 약한 사람은 힘겨운 일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데 반해,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는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통제력이 약한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무력감을 느끼는 데 반해,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는 오히려 그것에 도전하려는 자신감을 보입니다. 통제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C를 갖춘 사람이 규칙적으로 운동과 명상을 한다면, 스트레스를 보다 잘 대처할 수 있어 질병에 걸릴 위험은 줄어들고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스트레스 경고신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무력해지고, 압도되는 느낌을 갖게 되며,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화가 나게 됩니다. 또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을 집중할 수가 없고, 분명하게 생각하기가 힘들며,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우유부단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부르는 방법을 피해가는 방법은 스트레스 경고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시기를 알 수가 있으므로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몸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경고신호의 증상으로는 두통 · 요통 · 복통 등의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목이나 어깨가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피로감을 느끼거나 어지럼증이나 귀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며, 안절부절 못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림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동에서는 음식을 제어하지 못하고 계속 먹거나, 강박적인 껌 씹기를 한다든가, 거드름을 피우기도 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평하는 태도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술과 담배도 늘고, 자면서 이를 갈기도 합니다.

정서적인 증상에서는 자주 울기도 하고 외로워하며, 소심해지고 불안해하며, 이유없이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또 매사가 귀찮고 쉽사리 동요하며, 폭발 직전의 위기감이나 압박감에 사로잡히기도 하며, 분노를 자주 느끼기도 하고, 변화하고 싶은 의욕은 아예 상실해 버립니다.

인지증상으로는 건망증이 심해지고 명쾌하게 사고하기가 어려우며, 걱정이 끊어지지 않으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창의성이 결여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증상 가운데 가능한 일찍 경고신호를 찾아내게 된다면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통증은 마음의 병

인간에 내재된 격심한 분노가 통증을 유발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발상입니다. 격심한 분노가 일으키는 긴장성 근육염 증후군인 TMS(Tension Myosis Syndrome)라는 병이 있는데 존 사노 박사에 의하면 만성통증의 90% 이상이 TMS라고 합니다. TMS는 무의식에 내재된 격심한 분노가 자신의 노출을 숨기기 위해 몸에 통증이라는 현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소적인 치료는 효과가 없으며 심리치료를 받아야만 치료가 된다는 획기적인 이론입니다. 사노박사에 따르면 현재 TMS는 미국에서 가장 흔한 장애입니다. 사노 박사는 TMS의 경우 일단 자신의 통증이 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의한 것임을 인식하면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TSD

격심한 스트레스가 일으키는 또 다른 심각한 정신장애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는 격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트라우마의 정신분석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소화할 수 없으나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입 밖에 내어 말을 함으로써 나쁜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중국에 의해 투옥된 티베트의 난민들과 승려들이 자신의 고통을 영적인 기회로 바라보는 명상수행 덕분에 가장 비참한 학대 속에서도 PTSD 증상을 보이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잘 극복해 왔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불교적 관점에서 악(惡)은 무지(無知)이며 그러므로 불자들은 자신에게 커다란 고통이 되더라도 무지에 대해 자비심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리=이나은 기자

이 글은 정우서적에서 펴낸 〈자기치유〉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조순희 박사는



경남여고와 부산대 약학대학 약학과를 졸업하고 부산 광안리에 약국을 개설하여 37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 위덕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석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논문으로 ‘유식학에서의 고(苦)의 원인에 대한 연구’(위덕대 석사논문, 2002), 병의 원인과 치유에 대한 유식학적 해석 ‘밀교학보 제8집, 2006’ ‘스트레스 관련 질병의 치유에 대한 유식학적 해석 연구’(위덕대 박사논문, 2010)가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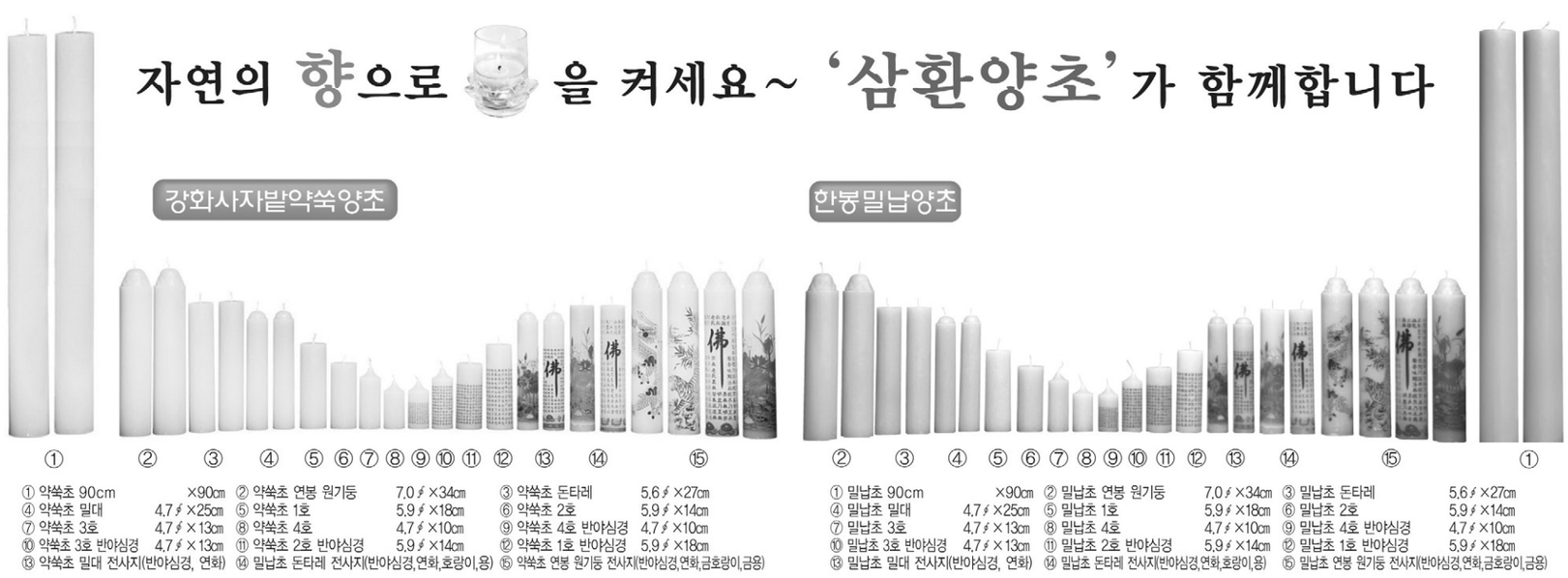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강화사자밭약쑥양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약쑥초 90cm ×90cm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약쑥초 돈타레 5.6ϕ×27cm
④ 약쑥초 밀대 4.7ϕ×25cm
⑤ 약쑥초 1호 5.9ϕ×18cm
⑥ 약쑥초 2호 5.9ϕ×14cm
⑦ 약쑥초 3호 4.7ϕ×13cm
⑧ 약쑥초 4호 4.7ϕ×10cm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한봉밀납양초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ϕ×27cm
④ 밀납초 밀대 4.7ϕ×25cm
⑤ 밀납초 1호 5.9ϕ×18cm
⑥ 밀납초 2호 5.9ϕ×14cm
⑦ 밀납초 3호 4.7ϕ×13cm
⑧ 밀납초 4호 4.7ϕ×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현우경' 이야기 (49)

선사 태자와 악사 왕자 ②

여의주 얻은 태자에게 검은 그림자가…

선사태자의 손에 금강저를 쥐어준 장님은 자신을 모래에 묻어달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선사 태자는 장님이 일러준대로 길을 따라 갔다. 그리고 드디어 황금섬을 찾았다. 닻을 내리고 일행들은 섬 안으로 들어갔다. 섬은 모래는 온통 금가루요 산은 황금으로 된 신기한 곳이었다.

같이 간 일행들은 황금모래와 황금산을 보고 뛸듯이 기뻐했다. 모두들 주머니에도 모자에도 황금을 주워담으며 정신없이 황금을 찾아다녔다. 태자는 장님이 일러준대로 성을 찾아갔다. 성 앞에 당도해 금강저로 문을 두드리니 그 안에 오백 천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사가 들어서자 천녀들은 무릎을 굽혀 손에 들고 있던 보배 구슬을 태자에게 내밀었다. 태자는 장님이 일러준대로 그중에서 가장 뛰어난 보배구슬 하나를 집었다. 그것이 바로 여의주였다.

태자가 여의주를 손에 쥐는 순간 세상은 온통 광명으로 빛났다. 그리고 천녀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선사 태자를 축복해주었다. 이런 선사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악사 왕자였다. 악사는 그 여의주를 꼭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여의주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두를 갖는 것임에 분명해 보였다.

"우리 부왕은 은혜와 사랑이 공평하지 못해 형만 사랑하고 내게는 사랑이 없다. 지금 우리 형제가 함께 보물을 찾으러 왔다가 형은 진기한 보배를 얻고 나는 빈손으로 돌아가면, 부왕은 그때부터 나를 더욱 천대할 것이다"

악사 왕자는 마음이 초조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악사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선사태자 일행들은 황금섬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다음날 떠나기



삽화 · 강병호

하기만 했다.

그때 그림자 하나가 선사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림자의 두 손은 선사의 두 눈을 가시로 찌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내 그림자의 손은 악사의 품에 있던 여의주를 빼앗았다. 선사는 이렇게 외쳤다.

"악사야! 악사야! 여기 도적이 있다"

하지만 악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도적이 바로 악사였기 때문이다. 악사는 선사를 바닷속으로 집어 던져 버렸다. 선사는 계속해서 악사를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때 바다의 신이 이렇게 말한다.

"악사는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을 찌르고 당신을 바다 속에 던진 사람이 바로 악사니까요"

"아닙니다. 제 동생 악사는 그럴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악사는 그런 일을 할 만큼 태자님을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의 질투가 오늘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동생은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태자는 몸도 마음도 너무나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어느새 파도 속으로 휩싸여 떠내려가면서 정신을 잃고야 만다.

다음날 아침 선사 태자는 정신을 차렸다. 눈앞은 캄캄했고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모래가 잡혔다. 그리고 비릿한 짠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어디 바닷가에 다다른 것임에 분명했다.

손으로 주변을 더듬던 선사는 지나가던 어부의 다리를 잡게 된다. 깜짝 놀라 선사를 쳐다보던 어부는 선사의 눈에 박힌 가시를 보게 된다. 어부는 선사를 집으로 데려가 가시를 뽑고 치료해주었다. 그리고 선사는 어부가 주는 죽을 먹고 몸을 조금씩 회복해 나아갔다.

선사는 어부의 형편이 그리 넉넉치 않음을 느꼈다.

"당신은 무엇을 해서 생활을 해 나갑니까?"

"저는 물고기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제 제 몸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세를 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 스스로의 길을 갈까 합니다"

"이 몸으로 어디를 가려구요?"

"성 안으로 가서 구걸을 하며 지낼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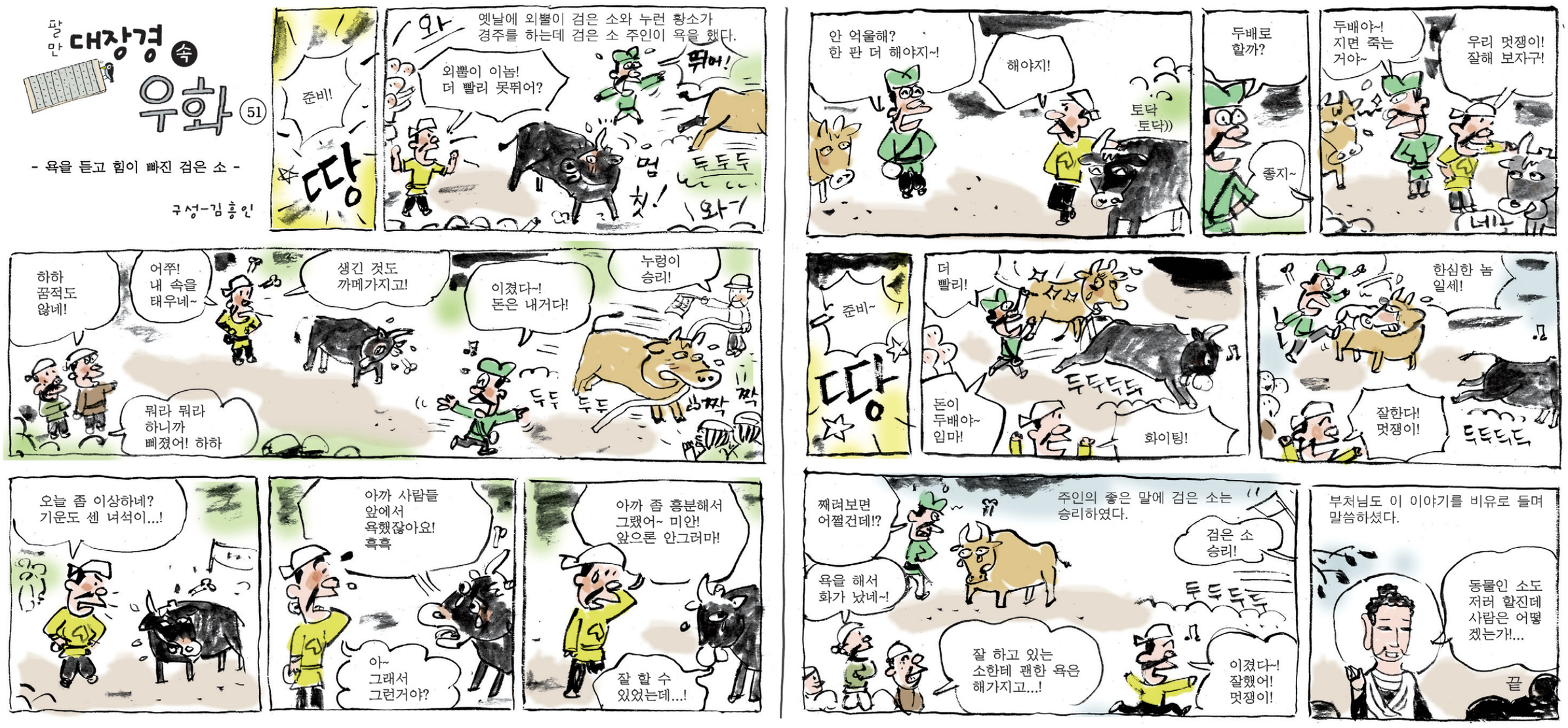
"구걸이라니요! 이 몸으로 어떻게 구걸을 한단 말입니까? 절대로 안됩니다. 당분간은 여기서 머무르십시오"

"저를 가엾이 여기신다면 저에게 거문고 하나를 사주십시오. 저는 거문고를 아주 잘 탄답니다. 그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부는 더 이상 선사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그렇게 거문고 하나를 사서 선사의 손에 쥐어 주었다. 이제 선사는 저잣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구성=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제2회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학 인 모 집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범패 및 불교무용(승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염불승으로서 한국불교 전통범패단을 "한국불교 홍익범패단"으로 이름 짓고 창단하였습니다. 뜻 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먼저 청강해 보시고 접수는 뒤에 하셔도 됩니다. 성적이 우수한 분은 한국불교 홍익범패단에 단원으로서 인정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강 의 내 용

1. 기초 :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향수해례, 사성례, 도량석, 종송, 조석예불, 사시불공, 사물.
2. 중급 : 주 둘째시간 ~셋째시간 : 천도재의식, 시련, 대령, 관욕, 신중청, 상용영반, 관음시식, 고혼소, 봉청(짓소리), 39위, 복청게, 고혼청, 헌좌게, 진령게, 칠언사구성, 가영, 향화청, 고아일심 귀명정례긴소리, (짧은소리) 화청
3. 상급 : 매주 넷째시간 : 범패의식-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도량게, 다게, 법고춤, 호적
4. 고급 : 2년이상 된 자로서 시다림, 다비, 점안식, 방생, 생전예수재, 종사이운, 불상이운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회 비 : 월 10만원 (1년 선불 10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본원에 비치)
■ 장 소 : 김해사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법당
■ 주 소 : 김해시 홍동 7-5번지
■ 전 화 : 055)322-0088. 055)332-1675
■ 강 주 : 민지효 010-4466-3575

스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목걸이



실용신안의 장 특허출원

A+B (1set) ₩100,000
택배비무료

주문전화
구 미 미륵사 (지연) 010-8631-3527
팔공산 정원사 (성봉) 016-849-8889
거제도 정토암 (진각) 010-6657-5522
대 구 포교사 (법일) 010-9591-8599

☆ 유* 무선 겸 용

입금계좌(예금주 : 미륵사)
농협 351-0251-7333-73
우체국 700914-02-063333

★ 꿈이 이루어 집니다! ★
보현사신협과 함께하면
- 사찰대출 전문 불교은행 -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917호 현대불교
2012년 12월 5일(음 10월 22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걸어왔으면 그뿐이지 왜 발자취를 불들고 늘어집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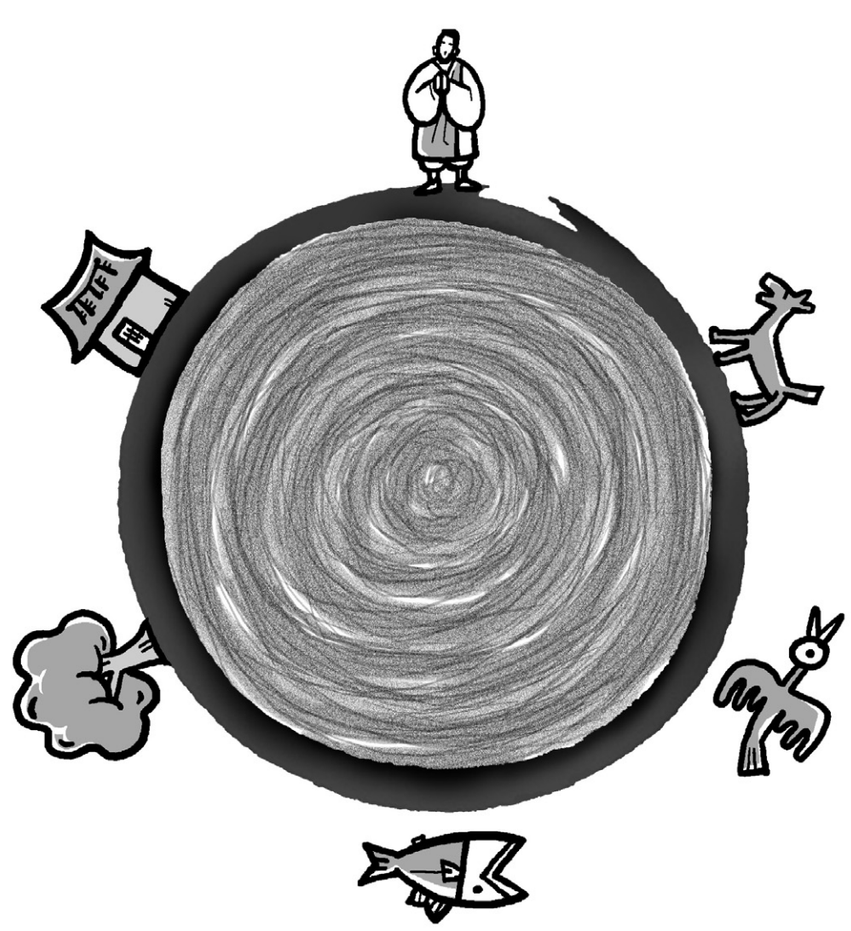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난 호에 이어서)

우리가 아무리 말이 좋고 이론이 좋고 학식이 좋고 지식이 좋고 이러지마는, 그것은 안으로 구겨 넣을 건 넣고 바깥으로 내놓을 건 내놓고 할 수 있게, 중용을 할 수 있게끔 50%의 내면 정신세계 그거를 알아야만이 걸림이 없이 돌아갑니다. 우리 보이는 세계의 50%만이 안다면 보이지 않는 데 50%가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만 간다면 그 무슨 재미입니까? 그리고 삶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데는 차를 타면은 내리려고 타고, 내리면 타려고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유통돼서 걸림 없이 우리가 차를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할 수 있어야지 정상적인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타기만 하고 내릴 적에는 '아이구, 왜 타는 거는 알았는데 내리는 게 그렇게 그 안되는 게 많습니까?' 이러거든요. 되는 것은 됐는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되는 건 되는데 왜 안되는 게 있습니까 이러거든. 그건 정상이죠.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니깐요. 안되는 건 되기 위해서 안되는 거니까 그것을 재료로 삼아야지 항상 그것을 업으로 삼고 또는 병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항상 병고에서, 애고(哀苦)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생각이 그러하니까, 그 관습에 의해서, 항상 살아오던 습성, 남한테 들은 습성, 본 습성, 습성에 의해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땐 한 생각이면은 그냥 다 벗고 턱턱 털고 일어나건만도 아이구! 깐죽깐죽하고 붙들고 늘어집니다. 자기 걸어온 발자취를 왜 붙들고 늘어집니까? 그냥 걸어왔으면 걸어왔을 뿐이지 왜 걸어온 발자취, 걸어온 자체를 쥐고 늘어지느냐 이겁니다. 모든 여러분이 하루살이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삼천년 전을 바로 일 초로 축소할 수도 있고, 일 초를 삼천년으로 늘일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이 모두가 그러하니 우리는 이 껍데기를 벗기 전에 우린 자생중생들을 화(化)하게 해서, 즉 말하자면 보현(普賢)으로 해서 응신(應身)이 돼서 뭇 중생들의 마음을 통해서 응해주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할 줄을 모르는 말이지마는 현재의 우리가 알고 듣고 감지하고 갈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처님께서 수없는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놓으셨지만은 그때 용어로 그때 삶의 방편으로 모두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그 용어를 잘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 마음에 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불교가 발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 부처님의 말씀을 다 감지하고 감응이 될 수 있게끔 현실의 용어로다 바꿔놓을 수만 있다면 이 불교의 발전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모두 여러분이 불교라면은 목탁을 두들기고 머리 깎은 사람만이 불교를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불(佛)이라는 거는 일체 만중생들의 바로 생명의 근본이 불(佛)입니다. 그러니 풀 한 포기의 생명도 곤충의 생명도 전부 불입니다. 불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불이라고 했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해서, 말과 말로 통해서 통신으로 통하고 해서, 통해서 (원을 그려 보이시며) 돌아가는 그 자체가 교(敎)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영원한 것이며 바로 끝간 데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교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불교 안에 안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셔서 과학자든지 의학 계통의 의학자든지 공업자든지 정치가든지 막론해 놓고, 이 도리를 완전히 습득한다면 심성천체물리학이 되고 심성의학이 되고, 심성천문학이 되고 심성철학이 되고, 모두가 일체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되는 까닭에 하나도 가질 게 없이 되는 까닭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광대하고 무변하고 아주 참, 말로는 행할 수 없는, 말로는 수요를 말할 수 없는 이런 평등공법(平等空法)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알아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우리가 평등공법이라 하는 것은 그대로 마음이 연결이 돼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그 뜻의 그릇을 말하고, 한 찰나에 만났다 한 찰나에 떨어지고 하는 그 자체를 볼 때에 우리는 한 찰나에 붙으면 바로 부(父)가 되고 한 찰나에 떨어지면 자(子)가 되듯이 한 찰나에 붙었다 떨어지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물은 물대로 있고 산은 산대로 있느니라.' 성철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자체가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법이 한데 공(空)한 것을 말할 때는 바로 둘이 아닌 까닭에 법은 법대로 있고 바로 행은 행대로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찰나에 붙었다 찰나에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보!" 하고 부르면 "그래." 그러곤 대답을 하고 한 찰나에 그 마음이, 소켓이 딱 끼어지니까 둘이 아니게 불이 일어나서 마음을 서로 털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딱 떨어지면 소켓이 싹 빠져서 딱 떨어져서 또 나는 나, 너는 너예요.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한 사람하고 또 딱 붙으면, "아버지!" 하고 붙으면 또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돼서 딱 붙어서 또 소켓이 싹 들어가서 "아버지, 뭐 어쩌구…." "응, 응…." 이러곤 한데 붙습니다. 하하하. 그렇게 수없이 끝없이 돌아갑니다, 이 세상만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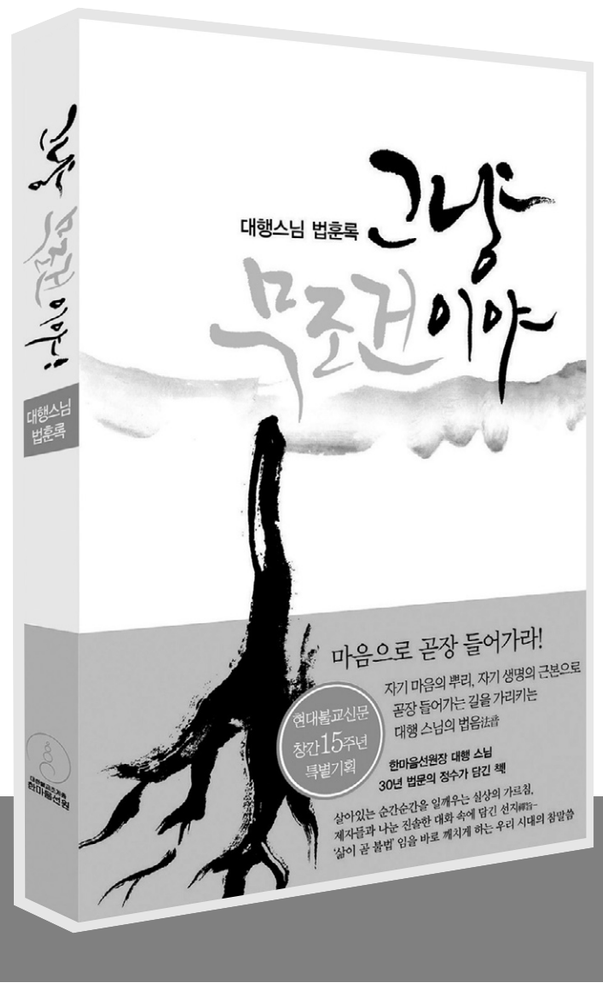
그러는 것을 어떻게 나 하나가 개별적으로 '아이구, 잘했다. 내가 설법을 했다. 내가 잘 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수없는 사람들이 좋아지고 모두 깨쳐지고 또는 병도 낫고 여러 가지 각색으로 성취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지만 나는 내가 낫게 해주고 내가 말을 해줘서 여러분이 깨쳤단 말 안 합니다. 왜? 내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여러분이 있듯이 또는 내 몸도 공(空)해서 내가 혼자 한 게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그 뜻을 아시고 그저 자유스럽게 살 수만 있다면, 어항 속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모든 그 오신통(五神通)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오신통도 벗어나야 하니깐요. 벗어날 수 있다면 정말 자유스런 자유인으로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세세생생에 남의 모든 마음을 집어넣어서 굴려내도 손색이 없고 굴려서 내보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자유인이 돼야죠. 그것이 바로 구경(究竟)에 이르고 열반(涅槃)에 이르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다스리시라고 믿고 질문 있걸랑은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남): 스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양식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행 중에 헷갈리는 것이 있어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스님께서 관(觀)의 정의를 안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하여 주인공을 믿는 것이 아니고, 되고 안되고를 맡겨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뜻이 되고 산은 산같이 살라 하고 꽃은 꽃같이 살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뜻을 세간법으로 정치에 비유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모든 국민의 뜻을 종합해서 민의에 따라 해야지 억지로 하면 언젠가는 불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가운데서 여여하게 사십시오

☞ 29면에서 계속

만이 터지게 되고 불만을 갖고 있는 민중에 의해서 사회가 혼란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의 뜻을 읽는 것이 관이라고 하면 그 뜻을 하나로 모아서 인연 따라 행하는 것이 무심(無心)으로, 업식에 따르지 않는 좌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단이 생기는 것은 스님께서 안될 때는 '너는 할 수 있다.' 하고 마음을 내라고 하시고 간혹 저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려내다 보면 무심관(無心觀)에서 일보 후퇴하는 일심관(一心觀)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며 억지로 익힌 감과 저절로 익은 감의 맛이 다르듯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 수행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큰스님: 여러분이 이렇게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내 마음을, 즉 말하자면 과거 부(父)와 현재 자(子)가 상봉을 해가지고 둘로 보지 않는 관찰을 하는 거 다르고, 지금 무지에서 관찰하는 게 다릅니다. 무지에서 관찰하는 것은 겉면만 보고 나쁘다 좋다 하는 거고, 바로 상봉한 사람이 관찰하는 것은 둘로 보지 않는 까닭에 안팎이 다 동시에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의 요약이 여러분의…, 여러분은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니 둘 아닌 관찰이라면 자기가 봐서 둘 아닌 관찰이니까, 봐서 딱 한생각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그 순간 바로 손 없는 손이 눈 없는 눈이, 귀 없는 귀가 바로 한 찰나에, 찰나에 왕림이 되니깐요. 그래서 그것은 법으로 행해진다. 그건 즉 말하자면 한 부처님의 마음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런 거죠.

질문자1(남): 다음 또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백 원 걱정이 생겨 백 원을 던져버리면 천 원을 주워 천 원 걱정을 만들고 또 천 원을 던져버리면 남의 돈이라도 몇 억을 빌리게 해서 더 큰 걱정을 만들어, 던질 수도 버릴 수도 없도록 만들어 코를 죽이고 귀를 죽이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대로 무심 수행을 하노라면 권속이, 식구가 살림살이 투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방심을 했었나?' 하고 생각을 하면 번뇌가 찾아들어 무심을 흩어버립니다.

이때 걱정을 하면 걱정을 한 것만큼, 마음을 옆돌린 것만큼 야단을 맞습니다. 이럴 때 그 한생각을 찾아서 거슬러 다시 되바꿔놓으면 시원해짐을 느끼면서 한생각이 법이 됨을 깊이 되새기곤 합니다. 스님의 표현 방법을 빌리자면 무심이 눈을 뜨고 푹 쉬는 것이라면 방심은 눈을 감고 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눈 감고 쉬면 길잡이 야단을 듣고 눈 뜨고 쉬면 권속이 빤히 쳐다보니 이렇게 꽉 막힌 곳에 방귀씨 털 먹이는 도리가 있는 것 같아 수행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큰스님: 그것은 이것도 저것도 다 놔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가운데서 그대로 여여하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한 푼이고 두 푼이고 열 푼이고 이거고 저거고 따지게 되면 아주 산란합니다. 더 갖고자 해서 산란하고 덜 가지면 못 가져서 산란하고 이러니까 모든 것을 양면을 다 놓으십시오. 다 놓고….

왜 놔라 이러느냐 하면, 그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리고 고정됨이 없이 공(空)해서 돌아가는데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 건데, 자는 걸 버릴 수도 없고 깨는 걸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한꺼번에 그냥 다 놓구 '으응, 그렇게 너는 그렇게 작용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다 놓아버리세요. 그런다면은 '너는 네가 다, 네가 하는 건데, 먹이는 것도, 네 시자를 먹이는 것도 네가 먹일 거고, 끌고 다니는 것도 네가 끌고 다닐 거고, 다 굶어죽이는 것도 네가 할 거고 살리는 것도 네가 할 것이니까 너 알아서 해.' 하고 부지런히 안을 다스리면서 뛰게 되면, 마음을 편안하게 두고 뛰게 되면 영원한 양식을 얻을 겁니다.

> '네가 다 하는 건데,
> 네 시자를 먹이는 것도 네가 먹일 거고
> 끌고 다니는 것도 네가 끌고 다닐 거고
> 굶어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네가 할 것이니까
>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 부지런히 안을 다스리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두고 뛰게 되면
> 영원한 양식을 얻을 것입니다.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화두는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교라고 생각됩니다. 큰스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인공을 잡아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선방에서는 '이 뭣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의 어떤 선지식은 '내가 누구인가?' 했고 또 어떤 이는 '내가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선경에는 '내 것 보다'고 했습니다. 또 큰스님께서는 '아빠'라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많은 화두 중에 내면에 잡히는 것이 있고 잡히지 않는 것이 있는 걸 볼 때 이는 자기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깨치신 분들마다 화두의 표현이 다른 것을 볼 때 이는 무슨 도리가 숨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는 하나인 것 같은데 표어가 다른 것은 시대나 법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이 점에 대하여 여쭈고자 합니다.

큰스님: 그 이름의 말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이름은 이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벗어나서 그대로 믿고 (정면을 찔러 보이시며)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 이름을 '이게 뭣고?' 하는 건 수박을 놓고 '이게 뭣고?' 하고 굴리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건 '그대로 수박을 잘라서 먹어라.' 이겁니다. 그대로 수박을 잘라서 먹는다면 바로 영원히 먹일 씨도 나오고 또는 맛도 알고 그럴 테니까 '잘라서 먹어라.' 이런 겁니다.

그 이름을 다, 그 많은 이름을, 그 많은 공안을 다 놓고, 그냥 못 믿지 말고 믿고,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깐 상대성도 생겼고 세상도 벌어졌고 부처가 있는 줄도 알았지 내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없는 거 아닙니까? 무효니까. 내가 있으니까 나를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고 잘라 먹어봐라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인공' 하면은 전체 한데 합쳐진 주인공입니다. 개별적인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면으로나 외부로나 모든 게 한마음으로 뭉쳐진 자체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공(空)해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틀림없이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그냥 전체 뿌리를, '나무는 전체 뿌리를 믿어라. 네 나무는 전체 뿌리에서만이 너 나무가 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 살 수 있다. 너만이, 너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형성돼서 심부름꾼으로 있지 않은가. 이런 걸 믿고 무조건 놓아라. 무조건 믿고 거기에 맡겨놓아라 이런 겁니다. 맡겨 굴려라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름이 있기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게 뭣고?' (손수건과 컵받침을 함께 들어 보이시고) 하고서 굴리다 보면은 십년이 가도 그만, 이십년이 가도 그만, 삼십년이 가도 그만입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죠. 안 그렇습니까?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주 법회 때 스스로 마음으로 정한 보시금을 바쁜 곳에 대용해 쓰고 다음에 보시하겠다는 것은 즉, 돈에 돈 섞기니까 급한 곳에 먼저 쓰고 형편 되면 다음에 보시하면 되지 하는 생각은, 물건값을 주고 그 돈을 다시 뺏어오는 경우와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저는 이를 대통령도 자기가 만든 법은 지켜야 되는 것과 같은 도리로 비유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를 저질렀을 때 되돌려놓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큰스님: 물론 둘이 아닌 까닭을 알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무명에서 벗어나서 여여하게 다스리고 참, 구족(具足)한 사람들은 그것을 따질 필요도 없죠. 허나 지금 배우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꼭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에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때에 따라서는 어려워도 우리가 이건 참 감사하니깐 시주를 해야겠다 이러고 떼놓지 않습니까? 떼놓고 있다가 그 이튿날이고 언제고 어이구, 이거 돈이 급해서 그냥 뭐 쩔쩔매다가 아이구, 어디 가서 꿀 데도 없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서 꾸어 쓴다 이런 생각으로 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생각을 잘 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건을 산 값입니다. 이 돈을 시주를 하면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물건 산 겁니다. 그럼 물건은 가져오고 이게 물건 값은 도로 빼앗아 온다면 그건 그 물건 사왔던 걸 도로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예 내 가정이나 내 삶, 이 모든 것을 생각해서 또 부처님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잘 알아서 정성껏 새 돈으로 바꿔서, 이건 정성이니까 이렇게 떼어놔라 이래야지, 무턱대놓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집어서 이렇게 해놓고 도로 갖다 쓰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건.

그것을 왜 그렇게 내가 일러주느냐 하면 몇 해 전입니다. 몇 해 전에, 여기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등포에 사는 사람인데 공업을 새로 시작을 한 사람인데 그저 요만한 하꼬방처럼 해놓고서 그거를 지금 사글세를 들어서 있으면서 그거를 먹고 살 양으로 뭐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는데야, 그 물건이 영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에이그, 그냥 시주를 부처님 앞에 해봐야겠다.' 그러곤 시주를 그때에 오만 원인가? 잊어버려서 모르겠어요, 얼만지. 그래서 시주를 하려고 그거를 이불 갈피 속에다 넣어놓고는 턱 나왔는데 아, 그 물건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쩔쩔매다 보니까 그걸 도로 갖다 썼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그 물건을 되찾아가더라는 얘기예요. 그 물건을 그냥 다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돈 낸 것 그냥 다 줘버리고요.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곤 와가지고는 울고불고 야단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왜 시주는 했다 도로 빼앗아 갔어?" 하하하. 이랬더니 "아이구, 애들 학교에 뭘 내는데 그걸 낼 게 없어서 그냥 쩔쩔매고 물건도 하는데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그거 되면 바로 또 넣어놓으려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거야, 절대로. 이거는 부처님 법 이 자체가 그대로, 그대로 법이지 절대로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이게 이유가 거기 붙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런 경험을 나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러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질문자1(남): 그럼 일단 법이니까 한번 당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큰스님: 네?

질문자1(남): 일단 법이니까, 법은 법이니까 자기가 그걸 되돌려받는 방법은 결국 당하는 길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큰스님: 그런데 이 둘 아닌 관찰을 할 수 있고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즉 혜향(慧香), 마음의 혜향이라면 해탈향(解脫香)도 할 수 있고,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이게 마음 그대로인데 그대로 그 도리를 알았더라면…. 이거 해가지고 사는 것만 알았지 그 사람들이 뭘 압니까? 그러니깐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일러줬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둘이 아닌 도리를 알고 그 무명 속에서 벗어날 줄 안다면 결국은 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고 그 도리를 아주 완벽하게 알 수 있다면 아무 지장이 없을 테죠? 또 그렇게도 하지 않을 거구요.

질문자1(남):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르침대로 수행 잘 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1월 21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찬덕불교의 연등이 새로워집니다.
찬덕불교는 우리 전통을 이어 온 아름다운 등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연등 변화의 새로운 바람을 선도하겠습니다.

찬덕불교 대표 김기찬 합장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불자 세상보기

'안철수 바람'이 우리에게 남긴 것



고준환
본각 선교원장
경기대 명예 교수

"산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 준대요." 이는 우리 국민들이 어릴 적 흔히 부르는 동요다.

'시원한 바람'인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제18대 대통령 후보직을 단일화 약속시한을 지키기 위해 전격 사퇴했다.

우리나라는 왕검단군께서 동북아대륙에 첫 민족국가 '조선'을 세우고, 그 유구한 역사가 면면히 이어져 왔으나, 근대에 일제강점으로 나라를 잃는 비극을 겪었다.

우리 조상들의 자주적 항일투쟁과 국제협조 속에서 기쁘게 8.15해방을 맞았으나, 남북분단, 6.25 민족상잔을 겪으면서도 드디어 '민주산업화'에 성공한 세계적 민주경제대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민족통일을 이루고, 정신적으로 세계를 이끌어야 할 역사적 도정에 서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열강의 지배체제가 각축을 벌이고, 국내적으로는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 등으로 국가 기본 민주질서가 무너지고, 이로 인해 불신이 팽배한 불안사회가 됐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부정부패와 교육, 검찰 권력붕괴, 극심한 민생 고통까지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또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등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당 정치염증은 국민들에게 '안철수 현상'을 불러왔다.

안철수 현상은 곧 '바람'이 됐고, 대통령 후보로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해온 박근혜와 유력 후보인 문재인을 꺾었다. 이런 바람은 1년 남짓 지속됐다.

안철수 후보는 주인정신과 성실한 삶, 진지한 노력, 사회봉사실천, 상당한 내공, 여성성을 포함한 포괄적 인격으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다. 특정종교는 없으나, '종교적(진리추구적)'인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그는 국민 후보가 아닌 '야권 후보'로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에 나섰다가, 스스로 '후보등록 전 단일화' 약속에 걸려 양심상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훌륭한 자질의 안 후보에게도 몇 가지 문제점은 있었다. 정치를 알고 천하를 내다보는 정치멘토가 없었던 점, 조직을 너무 과소평가 한 점(정치부패를 줄이려는 배려였다 하더라도)이 우선 생각된다. '단일화' 경우도 마찬가지다. '후보 등록 전'이라고 못 박음으로서 경쟁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스스로 구속

정치권에 염증 느낀 국민들
기성 정치권에 큰 경종
미래지향적 정치 교훈 삼자

당하는 경우가 됐다. 어려운 정치현실에서 정치인은 항상 '틈'이나 '퇴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 혁신을 바라던 국민들은 이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주요 정당 후보 3명의 토론 모습을 씁쓸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게 됐다. 정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신선했던 '안철수 바람'은 이제 '앓이'로 변모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안철수 바람이 환기시켰던 그 자유로움들, 즉 과거, 정치, 권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젠 좀 더 미래지향으로 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이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무소속 안후보가 사퇴를 했지만, 오랜 기간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유지한 것은 기성 정치권에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다. 1년이 넘게 지속해 온 이른바 안철수현상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기성 정치권의 비아냥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때문에 다음달 19일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되는 정치 쇄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할 것이 분명하다.

'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했다. 〈능가경〉에는 '능가산이 바다의 섬 한가운데 있어 접근이 어렵고, 수많은 고난을 헤쳐가야 산 정상에 올라 능가산인으로 성불할 수 있다고 한다'라고 했다.

안 후보가 수많은 고난을 헤치고 능가산인 같이 새 시대를 열어가길 간절히 기원한다.

사부대중 칼럼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자광)는 11월 30일 AW컨벤션 센터에서 제44회 '군승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2012년을 마무리 하며 2013년 군포교 진흥을 위한 각오를 육·해·공군 선임법사들에게 들었다.

군승 기강 확립으로 다가올 2013년 대비



능허 김응 법사
군종감 (육군)

1968년 5명의 군승법사가 육군 군종장교로 임관된 이래 군포교 현장에서는 400여 법당에 140여 명의 군승법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승들은 성직자로서, 군종장교로서 힘든 상황의 군장병들의 상담자로서 신뢰와 존경받는 모습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육군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완공은 하나의 과제를 해결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 불자들과 군승들이 일심으로 군포교를 일구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포교방법 개발과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간인 성직자를 비롯해 비구니 군승 파송 등 군포교 과제의 실마리가 풀릴 2013년이 기대됩니다. 군승들은 새해를 앞두고 군과 불자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다사다난의 해군에 정신적 위로 주는 포교 필요



일각 심학섭 법사
해군본부 군종실장 (해군)

군승 파송 44주년은 군종교구 출범 이후 종단과 연계해 큰 발전을 이뤄낸 해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습니다. 먼저 육군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완공에 육해공 군승들과 불자들이 힘을 모았다는 것이 뜻깊습니다.

그동안 해군과 해병대는 천안함 사건을 격고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겪으며 창 끝에 서있는 듯한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해군 군승들은 사태를 겪으며 장병들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해군과 해병대 구성원들에게 정신적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군포교활동을 보다 활발히 펼치겠습니다.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쟁을 떠나 제주 해군기지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국가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공군사령부 법당 신축 계기로 현실에 맞는 포교전략 세워야



각원 허현구 법사
계룡대 공군본부 (공군)

2012년은 군포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논산육군훈련소 준공을 비롯해 공군장교와 사병들을 교육해 배출하는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750석 규모의 새 법당 완공 등 외형적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뤄진 한해입니다.

7월 28일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충국 성불사에서 맞은 낙성식은 공군법사들에게 새로운 각오를 심어줬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현대식 환경으로 교육사령부 내에서 법회에 참여하는 장병들의 수가 두배 이상 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군법사들은 외형적인 개선과 함께 젊은 세대에 맞는 포교전략을 세우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2013년은 창공을 훨훨나는 보라매처럼 신바람으로 훨훨나는 군포교의 한해가 됐으면 합니다.

社說

'佛文硏' 50년…관심과 박수를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연마를 위해 1962년 문을 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이 연구소의 개원은 불교교육과 연구가 전통 강원교육에서 벗어나 근대화가 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국내 최초 인문분야 대학부설 연구기관인 불교문화연구원은 1983년 2월 연구역량을 강화해 불교문화연구소에서 불교문화연구원으로 승격했다.

그동안 이 곳을 거쳐간 불교학자들의 면면을 살펴만봐도 불교문화연구원이 불교계에 끼친 영향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한국불교사학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조명기 박사를 초대원장으로 김동화, 장관규, 홍정식, 김영태 등 명실공히 불교학계의 거목들이다.

반세기를 유지해 온 불교문화연구원에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았다. 초창기 불문연은 재정적인 면이나 연구환경이 열악했다. 연구진도 동국대 교수들로만 구성돼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현재는 연세대, 이화여대과 같은 타대학에도 문호를 열고 HK사업을 진행하는 등 학계를 이끌고 있다.

그동안 불교문화연구원의 성과는 눈부시다. 1963년 10월 15일 교계 최초 불교학 전문학술지인 〈불교학보〉를 발간했다. 2001년에는 〈불교원전연구〉를 창간하고 단행본으로 〈한국불교사상총서〉 7권을 발간했다.

불교자료 정리로는 한국불교에 관한 문헌을 정리한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을 1976년 간행했으며 이에 근거해 원효, 의상 등 한국불교 논서와 논문을 정리한 〈한국불교전서〉 14권을 2011년 펴냈다.

연구원이 많지 않았던 당시 한국불교의 모든 발전적 요소의 아이디어나 이념의 유일한 제공처가 바로 불교문화연구원이었다. 앞으로도 전통에만 안주하던 한국불교를 끄집어 내 학술을 넘어 불교계의 변화를 이끈 촉매역할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스님들 정치 참여 신중해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5일 남짓 남았다. 국가의 향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인 만큼 불교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관심이 지나친 나머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 불교계 지도자급 스님들이 대거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서다.

주요 종단인 태고종 소속 전국보국회와 전국신도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군소 종단 모임들도 같은 방식으로 잇달아 박 후보 지지에 동참했다. (사)대한불교종단종연합회 스님 150여 명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매번 종교 편향이 발생하면 불교계는 정교분리 원칙을 주장하면서 날선 비판을 정부에 쏟아낸다. 하지만 매번 대선이 되면 헌법에 명시한 원칙을 불교 스스로가 어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요 종단보다는 군소 종단들의 지지 동참 비율이 높지만 일반인이 볼 때는 '불교'라는 큰 카테고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불교가 양축으로 나눠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스님들의 이 같은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은 공감보다는 반감을 사고 있는 듯 보인다. 적지 않는 불교계 인사들은 자칭 지도자급 스님들의 후보 지지 선언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 이라고 비판한다.

실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지난 11월에 발표한 '한국 사회·정치 및 종교에 대한 대국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종교계의 정치인 공약 검증과 정책 제안에 대한 질문에 66.3%의 국민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국민들은 종교에게 정치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이다.

누구라도 들뜬 시기, 중심을 잡아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길 국민은 종교에 원하고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효도선물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세상에 이럴수가 통증이 싹 ~

허리·팔·다리·무릎·어깨 등... 통증이 있으시분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글루코사민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환원 작용한다.

- ■ 문질러 발라 주세요
- ▶ 허리, 팔, 다리, 무릎,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
- ▶ 근육통이 있으신 분
- ▶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기능공 직장인
- ▶ 수술후에도 통증이 있으신 분
- ▶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신 분
- ▶ 골프,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120㎖ × 2개 가격 3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치아통증 이제 끝! 신비의 견운모 치약

지긋지긋한 치아로부터 해방!

견운모치약이 이렇게 좋은줄 이제 알았습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들 때 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견운모 치약은 고품질의 희귀원소가 함유(원적외선 92.5%)된 광물질로 구강 내 살균 소독 효과는 물론 세균증식을 억제하여 잇몸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예방 및 치유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 효 능 효 과 ⊙
- ▶ 잇몸질환 예방
- ▶ 구취 제거
- ▶ 치주질환 예방
- ▶ 시린 이 개선
- ▶ 충치예방
- ▶ 미백효과
- ▶ 치태제거

200g × 2개 가격 2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현불샵 추천 상품 대잔치

다향정 캐릭터 차걸이 핸드폰걸이


부엉이걸이

다향정 제품은 100% 수공예 작품이고,
모든제품을
다향정에서 직접 제작합니다.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구매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움자차걸이 4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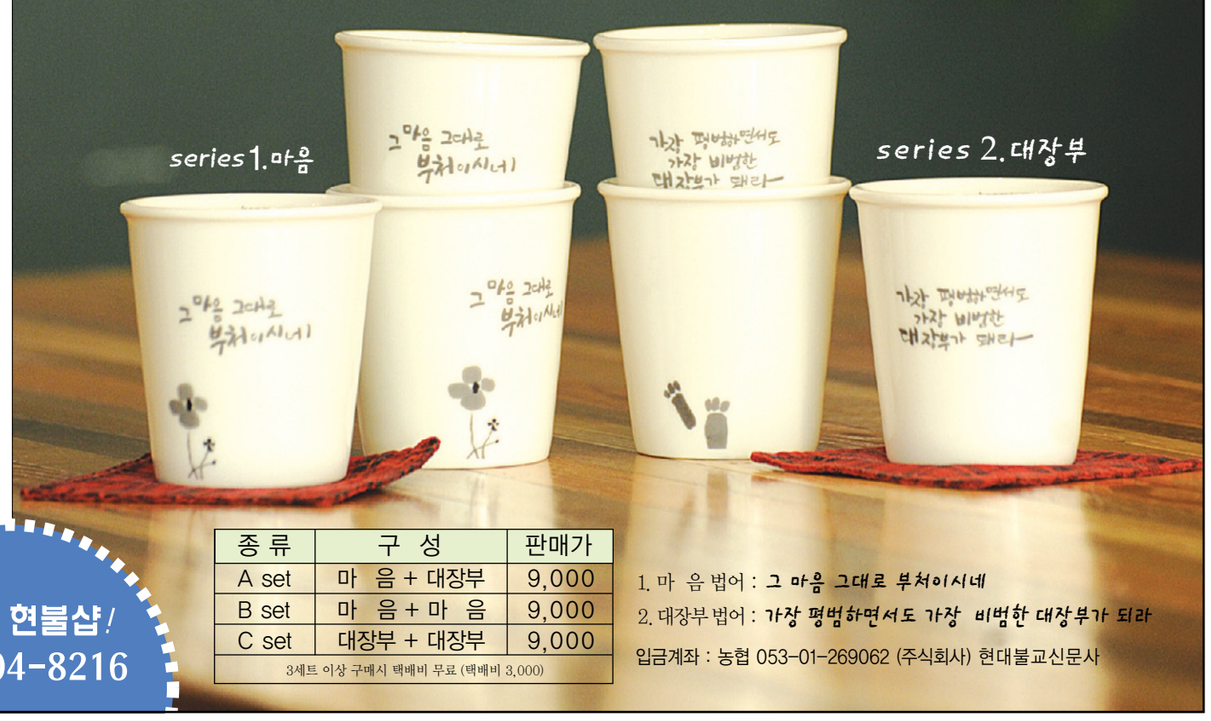
종 류	가 격	제 조
움자차걸이(4색)	33,000원	국내제작
부엉이걸이(大)	20,000원	국내제작
부엉이걸이(中)	15,000원	국내제작
부엉이걸이(小)	10,000원	국내제작
목어걸이	15,000원	국내제작
부엉이 향낭	15,000원	국내제작

[계좌 : 053-01-269062 농협.(주)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지구 환경을 해치는 종이컵 대신 이제부터 (법어가 담긴 에코컵) 을
사용하세요. 늘 곁에 두고 음미하고픈 대행스님의 법어!

도자기
법어가 담긴 ✓ 에코컵



종 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십장생 福 포대화상 도자기



십장생 복 포대화상 도자기를 모셔둔 家에는 언제나 밝은 웃음이 그치지 않고 하는일 마다 만사형통하여 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매산 김선원


청곡 이한동

천하를 다 포용하고도 남을 큰배와 언제나 밝게 웃는 모습으로 포대자루 속에든 복을 꺼내어 중생에게 나누어 주시는 포대화상 (앞면)

도자기 옆면과 뒷면은 십장생 그림으로 사슴이 불로초를 물어다가 거북에게 건네주는 신비한 장면이며 아래위 여백을 살려 시원하게 처리 하였습니다.

「KBS 진품명품」에서 해박한 지식으로 서예 감정을 하여 그 이름을 떨치신 **매산 김선원 교수**님의 글씨와 한국 화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미술원장을 맡고 계신 **청곡 이한동 화백**의 그림으로 합작하신 십장생 포대화상 도자기

※ (높이 37Cm× 둘레 100Cm 제조원 여주 다양도예 최고급 여주 백자
(손으로 일일이 만든 작품이라 약간씩 차이가 있음)

도자기 선물 SET

도자기 외 사은품 6종 가격
할인가 ₩ 99,800원

1 십장생 장수 반상기 세트 6P (밥그릇, 뚜껑, 국그릇, 2벌)



세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이 천가지 보약보다 낫다고 합니다.

중요한 시사를 하는 반상기(밥그릇, 뚜껑, 국그릇) 또한 소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2 소품 연화 다기 5P



짙은 약이나 차를 따라 드실 때 편리한 소품으로 된 약찻잔 5피를 청곡화백의 작품으로 연꽃이 들어간 예쁜 잔입니다.

3 용달마 순금카드 1점



달마 순금카드를 남편 지갑에 넣고 다니게하면 늘 남편을 지켜 줄 것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계좌 : 053-01-269062 농협.(주)현대불교신문사]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 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초판 22쇄의 스테디 셀러!!

10,000원
A5 / 287쪽

삶은 고가 아니다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